
실시순례와 참선법회는 물론대가 있는 음문사에서!
음성이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054) 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3월 31일(음력2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467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포럼으로 내일을 준비한다

토론 통한 불자 위상 정립 · 사회참여 확대 모색에 '이목집중'

2004년 봄, 세가지 포럼을 통한 재가불자들의 결집이 시도된다.

'불교문화포럼(가칭)', '중신포럼(가칭)', '새 시대를 여는 화엄포럼 위원회'는 불교문화, 신도운동, 사회현안을 주제로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을 한데 모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들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포럼의 주제가 미래사회에서 불교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포럼은 그간 불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소극성, 사회참여 미비, 불명확한 정체성을 불자 스스로 적극 타개해,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불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적극적인 연대는 이들 인적 자원이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극대화하는 기반도 될 수 있다.

특히 포럼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포럼에서 마련된 각 사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은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어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교문화포럼'은 불교문화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중 · 장기적인 불교문화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축이 되고 종단의 관련 실무자들과 불교계 각 분야 문화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불교문화포럼'은 6월부터 매월 1회 정기포럼을 열고 불교문화정책 아젠다를 선정해 불교문화정책의 큰 틀을 그려갈 계획이다.

문화부 박재현 과장은 "포럼은 불교문화에 대한 개념에서 문화장르별 구체화된 대안까지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포럼이 구체화 · 장기화 되면 불교문화산업이 체계를 갖추고, 일반에 불교문화를 회향해 불교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발족시킨 '중신포럼'은 신도운동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살피는 토론장으로, 신도운동은 불교의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3월 29일 '중앙신도회 포럼구성과 활동방안'을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후 매월 한차례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말경에는 '불자사회네트워크'도 정식 출범한다. 중앙신도회가 주도한 '불자사회네트워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도들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대구 지역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직 불자로 구성된 '새시대를 여는 화엄포럼 위원회(이하 화엄포럼)'도 3월 28일 창립됐다. 이날 '화엄포럼'은 창립 선언문에서 "지역사회와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치 · 행정집단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행위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지역정서를 반영하는 불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불교가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도로 평가된다.

'화엄포럼'은 불교뿐만 아니라 △도시 · 건설 · 환경 △문화 · 예술 · 관광 △교육 · 보건 · 복지 △지방분권 등 5개 분과별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포럼 과정을 거쳐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불교인들이 마련해 나간다. 또 이를 공론화해 실제 시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오유진 · 김은경 · 배지선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포럼
6월부터 월 1회 문화산업육성책 제시

▮중앙신도회 '중신포럼' '불자사회네트워크'
신도활동 점검 · 유기적인 활동 연대 추구

▮대구지역 '화엄포럼'
지역정서 반영 통한 불교발전 견인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된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24' 등 7첩(사진 아래 왼쪽)과 이를 보관해 온 가죽함(사진 아래 오른쪽). 사진제공= 문화일보

700년 만의 귀국

고려사경 '…화엄경' 국내 소장 확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밝혀

일본 사찰에 소장돼왔던 700여 년 전 고려사경인 '감지 은니 대방광불 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감지에 은으로 필사한 화엄경)'이 국내로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초 박모 씨가 '감지 은니 대방광불 화엄경(이하 화엄경)'을 일본에서 구입해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고려 충숙왕 때인 1336년 8월 경주 기림사에서 제작된 이 화엄경은 일본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오모로이지(福祥寺)에 소장돼 왔다. 박모 씨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화엄경은 권28, 권29, 권38(이상 진본)과 권24, 권53, 권56, 권60(이상 주본) 등 모두 7첩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이 화엄경의 '권60 사성기(寫成記)'에는 중국에서 한역된 진본(晉本), 주본(周本), 정원본(貞元本) 등 3가지 번역본을 모두 필사했음이 기록돼 있다"며 "3가지 번역본을 모두 사경하는 대 불사는 흔치 않은 일이며, 사경의 가치나 보존상황, 희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환 스님
'선수행의 요체'
4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ARS 060-700-1080
우리이웃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3월 26일 개통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벌이고 있는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의 ARS(060-700-1080)를 3월 26일 개통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자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ARS 060-700-1080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02)737-0090, 02)737-8881

'우바이 파워' 전국 강타

박근혜 조계사서 참회의 108배
추미애 국회정각회 · 연등회 활동
강금실 불교학생회 출신, 사찰건립


박근혜 대표


추미애 의원


강금실 장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 강금실 법무장관. 이 세 사람은 최근 '우먼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부 각료다. 하지만 이들이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서로 걷는 길은 다르지만 이들은 '우바이 바람'의 당당한 주역들이다.

최초의 여성 법무부 수장에 오른 강금실 장관은 서울대총불교학생회 출신의 독실한 불자. 변호사 시절 10여건의 불교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로 있던 2001년에는 경기도 가평에 천관사라는 사찰을 건립해 서울 사당동 관음사에 기증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민주당 연등회 고문을 맡고 있다.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희망메시지'에 <잡보장경>의 구절을 인용해 화제를 모을 만큼 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5년 박순천 여사가 민주당 총재에 당선된 이후 39년 만에 여성 수장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불교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인 故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위패를 서울 도선사에 봉안, 매년 기제사를 올리고 있다. 당대표가 된 다음날인 3월 24일 조계사에서 참회의 108배를 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 법장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수행안내 부록(타블로이드판 16쪽) 발행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23면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SUMMER CAMP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 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폴리네시안 및 미국 현지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넓은 세계를 배움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 간** : 7월 28일 ~ 8월 17일(20박 21일)
- **참 가 비** : 25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 원** :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 3월 15일 ~ 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 최** : 현대불교신문
- **주 관** : 하와이 싯다르타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준 비 물** :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래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 참가학생 부모님의 경우 하와이 사찰에서 공동생활을 전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관광비용 포함해 1주 180만원, 2주 200만원, 3주 220만원입니다.


◇ 하와이 한인문화원 전경

□ 이런점이 좋아요
- 참가비 최소화 – 하와이 무량사 숙식후원 가격거품 제거. 항공요금과 교육비, 관광요금만 실비정산.
- 믿을 수 있는 기관 – 불교계 대표 언론사와 하와이 무량사가 보증.
- 원어민 교수진 – 하와이대학교 어학연수원 현직 교수와 강사로 구성. 소정의 자격과 국제경험 쌓은 원어민 강사 엄선.
- 어학연수기관 사용 교재 – 미국 어학연수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 효과적인 회화구사 – 강의내용을 문화체험시 실제 상황에 적용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
- 단계별 수업 – Test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레벨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실력을 빠르게 향상.

□ 프로그램 일정표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일 정	시 간	프 로 그 램
7월 28일(수)	오전 8시	영어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전용)	8월 7일(토)	09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8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7월 29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9일(월)	09시~16시	진주만 방문,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7월 30일(금)	09시~16시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자연박물관 관람	8월 10일(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7월 31일(토)	10시~12시	와이키키해변 수영, 휴식	8월 11일(수)	09시~16시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및 퍼레이드 관람
8월 1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휴식	8월 12일(목)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2일(월)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3일(금)	09시~16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에서 수영
8월 3일(화)	09시~16시	카할리만다린호텔 돌고래쇼 및 코닥 홀라쇼 체험	8월 14일(토)	09시~16시	영어학교 졸업식, 휴식
8월 4일(수)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5일(일)	10시~12시	하와이 친구들과 대화
8월 5일(목)	09시~16시	하와이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8월 16일(월)	09시~18시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8월 6일(금)	09시~16시	영어교육, 휴식	8월 17일(화)	10시~	출발



'책' 없이 해외포교도 없다

해외 포교에 있어 현지 언어로 쓰인 불교서적의 영향이 얼마나 크리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짐작될 줄 안다. 구술언어의 효과는 녹음하여 유통되지 않는 한 포교 효과가 지역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서책으로 유통될 경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장기적인 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교관련 서적이나 신문 등 각종 불교문서가 포교사가 없는 곳에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포교에 있어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포교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현지 언어로 된 포교서적이 필요한 이유이다. 만약 포교사의 현지 언어가 서툴러 즉시 설명해줄 수 없는 경우라도 현지 언어로 쓰인 좋은 불교서적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를 제공하며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불교성전〉으로 유명한 일본 불교전도협회는 그 책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로 유통시켜오고 있다. 영어는 물론, 불어, 에스파냐어, 독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을 포함하여 40여 개국 언어와 에스페란토(실용에 사용되는 국제보조어) 역을 출판·배포하여 왔다. 아울러 일본어와 이들 언어의 대역본을 만들어 일본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日, '불교성전' 40개국 배포 효과 커
외국어로 된 종합 포교자료 개발 절실

그 불교전도협회는 창립자 예한 누마타 씨의 원력으로 그의 기업 이익을 이 사업에 투입하여 세계 각지의 유수한 호텔에 불교성전을 배치하고, 그의 모교인 버클리대학교를 비롯하여 하버드대학교 등 몇몇 명문대학에 불교학 교수 확보와 강좌를 개설하여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버클리에 번역센터를 마련하고 대정신수장경을 영역하는 30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불교는 물론 일본불교의 특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여 왔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해외포교를 위해 한국인이 발행한 현지 언어 서적현황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 언어는 접어두고라도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 현지인을 위한 영어서적은 얼마나 될까? 일반 불교서적은 차치하고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과 인연이 있는 몇몇 학자들에 의한 몇 권의 학술서적 외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불교의 포교역량이 교포권 밖에 미칠 수 없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근래에 동국대학교가 뉴욕주립대와 공동으로 원효전서를 영역하고 있는 등 다소의 희망적 노력이 있기도 하다. 장래를 위하여 다양한 한국불교관련서적이 영어를 포함하여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야 함이 절실하며, 외국어로 된 종합적 포교자료 개발사업이 종단적 지원 속에 계속 추구되어야한다.

■ 진월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군승특별교구 신설 의의와 과제

군불교 총본산 건립 '이상무!'

포교종책 체계화·법당운영·의식 등 변화
예산확보·종단내 권한과 의무 조율 남아

군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가 지난 3월 18일 특별교구 설치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군승특별교구 설립'에 물꼬가 터졌다. 군승특별교구는 전국 24개 교구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군 포교를 총괄·관리하는 '군불교의 총본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단의 공식 독립 기구다.

이번 종헌개정안 통과는 기존 포교원 산하의 '군불교위원회'를 '교구본사'로 격상시킴으로써 군 포교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는 종단이 전체 규모가 대형화된 군불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군불교 규모는 군법사 134명, 군법당 400여 곳, 신도 15만 여명에 달한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설치는 제정 빈약 등의 고질적인 군 포교 예산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구 내 자체 예산 집행이 외에도 종단의 집중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포교 종책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군법당 운영 시스템 확립, 군신도의 신행체계·법회의식 통일 등 장기적 군 포교 비전을 입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승특별교구의 세부 밑그림도 속속 그려지고 있다. 종법초안을 입안 중인 군승특별교구추진위원회(위원장 성광·군불교위원장)는 추진 일정 조율을 위해 3월 25일 포교원에서 회의를 열고 '(가칭)군 교구법안'을 마련, 오는 6월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를 위한 공청회도 4월 중에 개최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군불교위원회, 군승회의 등도 '특별교구 주지의 임명·선출 및 자격 조건'을 '선(先)특별교구 추천, 후(後)총무원장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격도 예비역 군법사를 포함한 군 포교 경험이 있는 중진급 비구로 했다.

또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이행 범위 등은 사안에 따라 적용키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권, 종회참정권 등의 권리행사는 '제한'쪽에 무게를 두는 한편, 중앙교구분담금 등의 교구로서의 의무이행은 '면제' 방향으로 잡았다.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스님은 "군승특별교구 권한의 '제한'과 '허용', 의무의 '면제'와 '유예' 등은 이해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종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조계종마을 내달 29일 준공식

스리랑카 라투나푸라서, 법장스님등 참석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준공식이 4월 29일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 16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라투나푸라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은 "3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약 80% 이상 공사가 진행됐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 수재민을 위한 주택 100여 채를 비롯, 법당, 설법전, 마을회관, 보건소, 우체국, 직업재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3월 22일 밝혔다. 또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현지 방문동안 8년마다 거행되는 캔디 불치사의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 행사도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마을은 지난 해 5월 발생한 스리랑카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교구본사 중심으로 모은 성금으로 준비되고 있다. 지원문의 : (02)2011-1823

남동우 기자

필동 中大병원 매입
동국대, 교육공간 활용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 필동의 중앙대 부속병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기로 하고 필동병원을 매입했으며, 오는 12월 인수작업이 끝나게 된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필동병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의실과 연구실 등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은 높이 11층인 구관과 4층의 신관을 갖춘 연건평 4천8백 평 규모다.

한편,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현해)은 3월 31일 오전 10시30분 타워호텔에서 제198회 이사회를 열어 일산 불교병원 장례식장 운영 문제와 정관 개정건을 논의한다.

한명우 기자

종헌개정 인준등 안건
조계종 원로회의 31일

조계종 제23차 원로회의(의장 도원)가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종헌개정안 인준의 건 △의장단 선출의 건 △원로회의법개정에 관한 건 △멸빈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 인준의 건 등을 다룬다.

남동우 기자

군불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4주년 맞아



국군불교총신도회는 3월22일 열린 창립 4주년 기념법회에서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조직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권영기 군불총)가 군불교 통합 홈페이지(www.buddha.mil.kr)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조직력 다지기에 나섰다.

군불총은 군승교구와 군불총, 일선 군사찰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3월 29일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통합 홈페이지는 국군불교뉴스, 우리신도회 활동 소개, 군포교 후원 등의 코너를 통해 전군 차원의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될 계획이다.

권영기 중장(국방대학교 총장)은 "발족 4년이 됐지만 아직은 전군적인 동참과 인식 확산을 위한 조직이나 업무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장교 및 사병 불자 관리 체계 확립 △군포교 후원단체 네트워크 확립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불총은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송영근 육군 기무사령관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권형진 기자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운동전개

조계종, 4월부터 자원봉사 축제 등

조계종이 자원봉사 및 후원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3월 24일 △박람회·축제·공모 △자원봉사교육 △모금캠페인 △외국인상담·지원 등을 큰 틀로 하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이 주최하고 사회복지재단, 포교원, 중앙신도회, 서울노인복지센터, 불교신문사 등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2억3천6백여만 원을 예산으로 올 4월부터 진행된다.

우수자원봉사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불교자원봉사활동 공모전'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진, 비디오 체험수기를 접수받는다.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조계사 및 우정총국에서 진행되는 '제1회 불교자원봉사박람회'는 자원봉사 사진전 등을 통해 자원봉사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청소년 및 종립학교·사찰별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청소년층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찰 자원봉사 조직기반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교자원봉사 리더십 교육' '간병자원봉사자 교육' '한방자원봉사자 교육' '발반사 자원봉사자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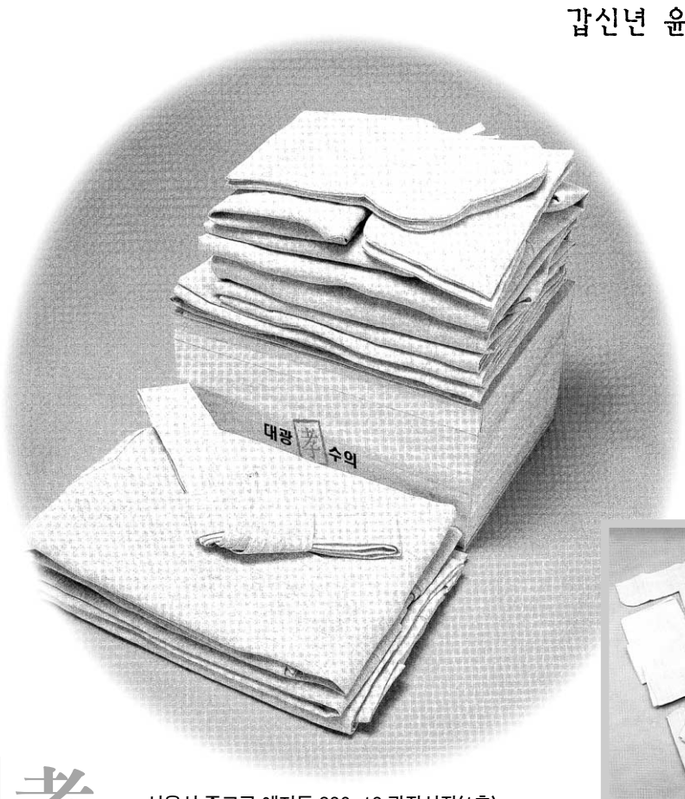
조계종은 각 불교대학 교과에 자원봉사 내용을 포함시키고, 포교사 고시에 자원봉사 관련 문항을 출제하며, 자원봉사 체험을 10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특히 7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장애우에게 휠체어 보내기 운동'도 추진한다.

남동우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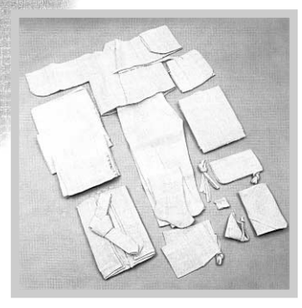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 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3월21~4월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봉선사 교구 간담회
문화재 반환 등 논의

조계종 교구본 · 말사 주지 및 신행 단체장 간담회에서 봉선사 측이 "서천국 108대 조사인 지공화상의 수기(受記)에 의해 건립된 회암사지가 정부에 강제 수용당할 위기"라며 종단적 지원을 요청하자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률적 검토 뒤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월 22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봉선사 측은 용문산 상원사 대종, 회암명 청동발우 등 사라진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법장 스님은 "총무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원사 대종은 봉선사 요청대로 꼭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전략적 환경평가' 추진
환경부 올해 주요사업

환경부가 올해 주요사업으로 개발사업 최초 정책 · 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 · 조정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국장은 3월 25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 금정산 관통 구간에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 문제와 관련,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도입을 올해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고 국장은 "올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항목 · 범위 획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해 평가서 작성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BBS 사장 공채키로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각)은 3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불교방송 후임사장을 공개채용하기로 결의했다. 진흥원 이사회는 4월 중순이후 불교계 신문에 불교방송 사장 채용광고를 낼 예정이다. 또 재임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김규칠 사장에 대해서는 정관상, 운영규정상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한상희 기자**

올 봉축행사 '국제화'에 초점

5월23일 연등축제 '화합 · 희망' 테마로
표어 '우리도 부처님같이' 전국 준비 돌입

올해 부처님오신날 주요 행사가 5월 11일 오후 7시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열린다.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등 전시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개막식은 21일 낮 12시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된다. 연등축제 전야제인 '연등놀이'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사, 우정국로, 인사동 등지에서 펼쳐진다.

5월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불교문화마당'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부부터 6시 30분까지 동대문야구장에서 개최되는 '어울림마당'에서는 3만여 제등행진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등법회' 등을 봉행한다. 어울림마당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동대문에서 우정국로까지 연희단의 신명나는 음악과 율동 속에 화려한 장엄등과 10여 작은 등불을 들고 '제등행진'을 한다. 우정국로에 도착한 제등행진단과 시민들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분홍의 꽃비를 맞으며 우정국로에서 '대동한마당'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서원을 태워 희망의 불씨를 만드는 '서원문 소지' 등을 통해 연등축제가 '화합과 희망의 축제'임을 느낄 수 있다.


올 봉축 대표 캐릭터인 환영동자.

봉축위원회 홍민석 홍보담당은 "이번 봉축행사는 국제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 참가한 태국 뿐 아니라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일본 등에서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과 대구 지역도 봉축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봉축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6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회장 성오 스님,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지역 70여 사부대중은 18일 대구불교회관에서 3백여명 규모의 봉축위원회(위원장 지성)를 구성했다.

대구 봉축위는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표어로 내걸고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를 봉축기간으로 정해 점등식과 연등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대구시 봉축탑 점등식은 5월 6일 오후 4시 국채보상공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연등축제는 5월 23일 오후 4시부터 두류야구장에서 봉행된다.

천미희 · 남동우 · 배지선 기자

"우린 모두 부처를 닮았지요"


의정부 교도소 재소자들이 3월 22일 선재동자원을 찾아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수지포교원 자원봉사자 · 재소자
선재동자원서 즐거운 하루

3월 22일 의정부의 선재동자원은 색다른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경기도 지장사 수지포교원(주지 의선)의 자원봉사단체 '부처를 닮은 사람들'과 출소를 앞둔 의정부교도소 모범수 20명이 바로 그 주인공. 분기별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일일외출을 나온 재소자들은 수송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아이들이 묵는 방으로 향했다. 방을 쓸고 닦고, 책상을 걸레질하고, 널어놓은 빨랫감을 개는 재소자들의 손길은 의무 그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자자, 식사들 드시고 하세요."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들은 재소자들을 위해 밤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놓으며, 향긋한 사랑을 나눴다.

점심공양 후 의정부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 수원 도선사 혜법스님, 상계동 천문사 진승 스님 등과 함께 남양주 봉선사를 찾은 재소자들은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 봉선사를 참배하며, 분별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달에 출소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김모 군(22)

재소자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처를 닮은 사람들의 회원들의 감회도 남다르다.

"사실 처음에는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렇게 인연이 닿아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봉사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청정문(피운주, 41) 보살 말에 옆에 있던 자성명(김위숙, 51) 보살도 한수 거든다.

"맑고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은 소외된, 그래서 더욱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길이야."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들은 의선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소자교화활동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의정부=김은경 기자

'탄핵무효 · 화합상생' 촉구
종교인들 단식 · 삼보일배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종교인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안동에서 탄핵 무효를 선언하기도,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07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에 참여한 193명의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북안동지역 카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지도자 7명은 18일 '탄핵 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지역 종교지도자 릴레이 단식선포식'을 갖고 안동시 삼산동 조흥은행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지)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가 20일 원각사 앞에서 '탄핵무효 민주수호 불교시국기도회'를 개최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는 3월 23일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안정과 국민, 시민 화합을 위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동국대 교수 31명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스님 등 80여명과 함께 교내 불상에서 후문까지 400m를 삼보일배로 행진하면서 정치권의 각성을 호소했다.

공동 취재단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수행과 여성문제' 등 6개 주제

6월27일부터 중앙승가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주최하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린다.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 렉셔 쏘모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종교학자 파울라 아라이(미국) 교수 등 45개국 700여명의 출 · 재가자, 불교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본행사인 학술발표(6월 27일~7월2일)와 사찰순례(7월 3일~5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술발표 기간에는 6개 주제에 따라 참여불교속의 수행, 불교수행과 여성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찰순례 기간에는 해인사, 불국사, 운문사, 석남사 등을 참배하며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갖게된다.

3월 23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이번 대회는 비구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체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66-9580 www.seoul-sakyadhita.org **한상희 기자**

"여성불자, 數에 비해 위상 · 활동 극히 저조"
신도단체 지부장급 이상 임원 중 여성불자 4%

최근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창간호로 발간한 격월간 잡지 <우바이 예찬>에 실린 황찬익 씨(조계종 총무원 사서과장)의 '통계로 본 여성불교 현황'은 비구니 스님과 여성불자들의 위상이 턱없이 낮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단 1만2천여 스님 가운데 비구와 비구니 스님의 비율은 반반. 그러나 공찰 900여 곳 가운데 비구 스님이 주지인 사찰은 600여 곳(69.6%)을 훨씬 넘는데 반해 비구니 스님이 주지인 사찰은 250여 곳(30.3%) 정도.

81석인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비구니 스님 몫은 10석뿐이고, 각 교구본사 산중총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피선거권은 없다.

여성 재가불자의 위상도 마찬가지. 조계종 등록 신도 중 여성불자는 65.7%로 남성불자 34.28%에 비해 거의 두 배. 하지만 중앙신도회 대의원 수는 전체 116명 가운데 남성불자가 86%인 반면 여성 불자는 14%에 불과하다. 조계종 등록 신도단체 지부장급 이상 임원 중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4%이고 남성불자는 95.56%. **한명우 기자**

여성지도자 강좌 등 개설
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서울 장충동 소재 건물(6층, 대지 200여 평) 매입을 추진한다.

불교아카데미는 3월 19일 불교경영정보센터에서 3차 이사회를 열고, 재가불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며 독자적인 종합 공간 제공과 건강한 재무구조 확립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올해 교육 및 컨설팅 과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불교 인력양성 인턴십 과정 △30~50대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한 리더십 강좌 △NGO활동가 전문 강좌 등을 개설하기로 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 리서치 실시, 불교계 인적자원 관리 및 불교계 신규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사찰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스님과 종무원 대상 교육 · 업무 매뉴얼 제작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9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이며 계를 대신 받아주는 것 또한 대자비의 보살행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며 특히 입재시 중국 불광산사 성운대사의 법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3월



■ 일 시 : 불기 2548년 갑신년
• 입재일 : 2004년 4월 23일 (음 3월 5일) 금요일
• 회향일 : 2004년 4월 25일 (음 3월 7일) 화요일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 전계아사리 중산 혜남 대화상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화엄전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 통 편
◉통도사 버스 - 부 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대 중 교 통 - 부 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 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 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 서 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전계사 중산 혜남 대화상 주 지 이산 현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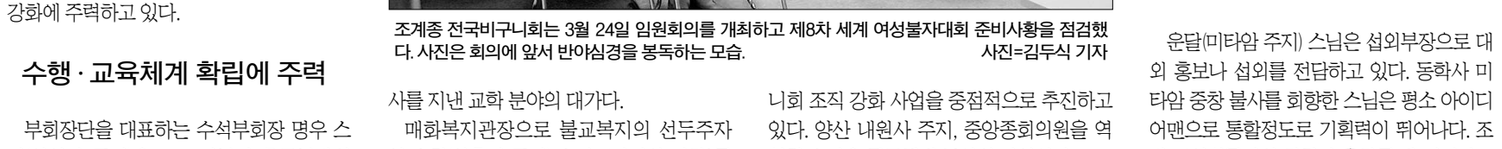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 화엄전 접수처 : 055)381-1288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이끄는 스님들

정화이후 결성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우담바라회의 정신을 이어 1985년 창립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현재 목동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숙원 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을 건립,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내 로라 하는 활동가이자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참가해 1실 6부 체계의 내실화를 다지며 비구니 스님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세계여성불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비구니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명성 스님 명우 스님 지원 스님 재운 스님 자민 스님 수현 스님 정덕 스님 도문 스님 계호 스님 해주 스님 혜원 스님 자광 스님


일법 스님 명수 스님 광옥 스님 운달 스님 승혜 스님 재범 스님 계명 스님 담교 스님 혜조 스님 희유 스님 효탄 스님 정운 스님

명망높은 전문가 활동가 총집합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이끌고 있는 스님은 바로 청도 운문사 회주인 명성 스님.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스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존경받고 있는 스님이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운문사승가대학을 개원해 평생을 비구니 교육에 헌신해 왔다.

지금의 운문사를 만든 주역인 스님은 7천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출세간의 문을 열고 이제 출출세간으로 나와 매월 임원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 회장인 광우 스님이 전국비구니회관이라는 대들보를 쌓았기에 명성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위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3월 24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8차 세계 여성불자대회 준비사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회의에 앞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사진=김두식 기자

수행 · 교육체계 확립에 주력

부회장단을 대표하는 수석부회장 명우 스님(성심사 주지)은 1985년부터 총무부장의 소임을 맡으며 비구니회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실무형 전문가다. 종회의원, 목동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현재 비구니 계단의 증명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 부회장단으로 부산지역 비구니회 모임인 금련회장을 맡고 있는 지원 스님(보림사 주지)은 비구니 전계대화상. 계율에 관심이 많고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노후 복지시설을 운영중이다.

재운(경산포교당 주지) 스님은 마산대학 종교학과와 범어사 강원을 나와 현재까지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민(연대선원 주지) 스님은 7 · 8 · 9대 종회의원을 역임했고 개심사 강원, 서울 청룡사 강원 등에서 강사를 지낸 교학 분야의 대가다.

매화복지관장으로 불교복지의 선두주자인 수현(안흥사 주지) 스님, '자비의 전화'를 개설하고 10여년간 불교 상담 분야를 개척한 정덕(인과선원 주지) 스님, 평생을 수행에만 전념해온 도문(전 석남사 주지) 스님도 부회장으로 비구니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

비구니 발전 정책과 인력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획실장은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이 맡고 있다. 중국선종사 분야의 석학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불교방송에서 '산사의 향기', '살며 생각하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재범(인월사) 스님이 기획 국장으로 혜원 스님을 보좌하고 있다.

총무 부장 자광(법계사 주지) 스님은 비구니회 조직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 내원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한 스님은 종무행정 분야의 달인이다.

보문중고등학교 교법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효탄(대자사) 스님이 총무국장 소임을 수행중이다.

전국비구니회지인 <비구니>발간과 비구니 수행 교육을 실시할 교무부는 일법(법천사 주지) 스님이 부장 소임을 맡고 있다.

경북 구미 대둔사 불사에 평생을 매진한 스님은 종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비구니계 원로 · 중진 스님들과 친분이 두텁고 전국비구니회 초창기 맴버로 비구니사(史)에 해박하다. 교무국장은 정운(니련선하원) 스님이다.

재정 분야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재부부장 명수(미타사 대성암 주지) 스님은 사찰재정을 일반 신도에게 일임해 투명성을 높인 선구자다. 재무국장 계명 스님과 함께 수익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구니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의 추진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사회부. 별도의 추진 위원회가 있지만 캐나다 등지에서 오랜 기간 해외 포교에 매진해온 광옥(봉덕사 주지) 스님이 부장으로 담교(불법사) 스님과 함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비구니 자원봉사 인력 네트워크와 정기적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도 고심중이다.

세계 여성불자대회 준비 한창

운달(미타암 주지) 스님은 섭외부장으로 대외 홍보나 섭외를 전담하고 있다. 동학사 미타암 중창 불사를 회향한 스님은 평소 아이디어맨으로 통할정도로 기획력이 뛰어나다. 조직 구성원들간의 화합과 융화를 잘 시킨다고 평가받고 있는 스님은 실천승가회 인권위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혜조(청룡암) 스님과 함께 환경, 인권, 통일, 여성 관련 NGO 연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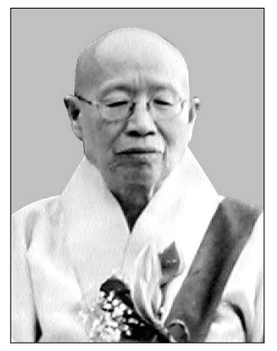
비구니 스님들의 계율을 연구하고 불교심리상담소 개설을 모색하고 있는 규정부는 양산 내원사 등에서 13안거를 성만한 승혜(법융사) 스님이 부장 소임을, 희유(금곡사) 스님이 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해주 스님과 종회의원 계호(보광사 주지) 스님이 감사로 전국비구니회의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0> 진관 스님

어린이법회의 선구자



"수행자는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차이가 없어.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한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해."

서울 삼각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고찰 진관사 주지 진관( ) 스님은 "스님은 수행에 열심히 매진해야 하고, 재가불자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자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가 밝아지고 더불어 사는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스님은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다른 스님보다 일찍 법당에 올라와 아침 예불을 준비하고 108배, 참선, 독경 등 수행을 꾸준히 하신다. 상좌 스님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 좀 쉬시라고 하면 아직도 수행자가 어떻게 편안함을 찾느냐며 호통을 치실 정도이니 스님이 얼마나 철저한 수행자인지 알수 있다.

광우 스님 등과 전국비구니회 만들어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난 진관 스님은 1945년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에서 인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월정사 강원에서 탄허 스님에게 사사를 받았다.

19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수덕사 견성암, 지리산 국사암, 문경 대승사 윤필암, 예산 보덕사 등에서 정진했다.

스님은 진관사와의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1973년 주지로 부임, 현재까지 30년 이상 불사를 해오고 있다. 진관사는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 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前 전등사 조실 서운 스님이 하루는 나를 보고 네가 고려시대 때 진관사를 창건한 진관 스님의 화신이라며 진관사에 가서 청정도량을 만들라고 하셨어. 생각해보니 한문은 다르지만 한글로는 법명도 같고 해서 내 일이려니 하고 도량을 가꾸기 시작했어."

진관 스님은 광우 스님 등과 함께 전국비구니회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1985년부터 부회장 소임을 맡아 비구니회관 건립 서원을 세우고 전국을 돌며 모연을 했다. 당시만 해도 비구니 스님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스님은 비구니 큰스님들을 만나 그 뜻을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 부지를 마련했고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린이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진관 스님은 어린이법회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1880년 초부터 불교의 미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법회를 열고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사중에서 된장, 청국장 등을 팔아 어린이 법회에 기부해 재정적으로 안정시켰고 풍물, 다도 등을 가르치면서 불교적 소양을 심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회를 졸업한 학생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1996년에는 행신동에 코끼리 유치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진관 스님의 상좌인 진관사 총무 수경 스님은 "큰 스님은 거울과 같은 스님"이라며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듯이 스님을 보면 내가 어떤 수행자인지를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경책이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본지 466호 4면 '한국의 비구니 스님-성연 스님' 기사에서 정묵 스님은 '상좌'가 아닌 '손상좌'로 바로잡습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생전예수재법회

칠재	날짜	요일	특별법회 / 행사내역	장 소
입재	2.29	일	입재법요식	우리절
초재	3.07	일	윤달삼사순례	보문사
이재	3.14	일	주장자법회	우리절
삼재	3.21	일	태화산산신제	우리절
사재	3.28	일	점안법요식	우리절
오재	4.04	일	서용큰스님사리친견법회	백양사
육재	4.11	일	관정법회	우리절
막재	4.18	일	봉송법요식	우리절

제 3재 태화산산신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 8권을 나누어 드리고 제 6재 관정법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제4재 점안법요식에서는 예수재용품을 비롯하여 금강경탑다라니와 광명진언탑다라니를 점안합니다.
예수재용품은 회향 때 살라드리지만 이번 윤달에 우리절에서 점안한 탑다라니는 종이가 아닌 비단 위에 그려진 것으로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다시없는 좋은 효도선물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여성 신도들 뭉쳤다”



그림: 김영민

불교·원불교·천주교 ‘재가삼소회’ 창립
교류 통한 종교화합·봉사활동 펼칠 예정
청소년 상담 등 사회역할 확대 나서

수녀, 교무, 비구니스님 등 여성 성직자들로 구성된 삼소회에 이어 재가 여성 신도들로 구성된 ‘재가 삼소회’가 부산에서 창립된다.

3월 29일 부산여성불자회 사무실에서 창립 준비 모임을 가진 재가 삼소회에는 종교 화합과 나눔의 삶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특히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와도 긴밀한 교류를 갖고 종교를 초월한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학교상담 봉사자로 활동하던 이들을 주축으로 발족되는 재가 삼소회는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 안락 성당 조말숙씨, 원불교 사직 교당 박경순씨 등을 중심으로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상담자격증을 가진 학생 상담 전문가, 전직 교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각 종교별로 10명씩, 총30명의 회원이 확보되면 곧바로 창립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가 삼소회 결성에 뜻을 모은 조말숙 씨는 “종교마다 개별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힘과 마음을 모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동참의 이유를 밝혔다.

재가 삼소회 활동의 기본 방향은 종교화합. 우선 각 종교간 울타리 허물기를 위해 사찰, 성당, 교당 순례 행사를 갖고 성직자 초청 간담회 등 이웃 종교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웃 종교 성직자 초청 간담회도 갖는다. 이 밖에도 삼소회 소속 성직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여성 종교인들의 힘을 결집해 나감으로써 여성 종교인들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가 삼소회는 봉사,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봉사’의 깃발을 꼽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를 위해 “나누는 삶, 봉사하는 삶은 종교를 초월한 과제”라는 신념으로 청소년상담, 종교를 초월한 불우 시설 후원 및 자원봉사 등 다년간의 봉사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봉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은 “종교는 달라도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 20년째 교육청 상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인연된 분들이라 앞으로 내실 있는 봉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가 삼소회 창립의 의미를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3월 29일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초펠 스님 초청법회 모습.

삼원노인복지센터 초펠 스님 초청

자원봉사자 위한 특별법회

사회복지법인 삼원(대표이사 민소현)이 운영하는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초펠 스님 초청법회를 열었다.

3월 29일 열린 법회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회라는 점과 티베트 스님인 초펠 스님과 한국 불자들의 만남으로 의미를 더했다.

초펠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일체중생을 위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즐겁게 그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가르침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미륵복지원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문소현 이사를 비롯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 등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봉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흥희 삼원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법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우리는 부처님 품속 한 식구


통도사자비원과 삼소원 보현행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워하고 있다.

통도사 자비원·사천 삼소원
보현행원 어르신들 위문
정보 공유 친교의 장 마련

“그동안 잘 있었어? 반가워! 정말 반가워!”

이산가족 상봉도 아닌데 3월 24일, 김해 무료노인요양원 보현행원(원장 최분이) 복도가 떠들썩하다. 멀리서 손님이 왔기 때문이다. 사천 삼소원(원장 하영숙), 양산 통도사자비원(원장 오심)에서 보현행원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년 전 만난 적이 있는 보현행원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느라 바쁘다. 2002년 삼소원과 보현행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통도사자비원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삼소원에서 그리고 올해는 보현행원에서 다시 만났다. 외출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동병상련의 애틋함 때문인지 만남의 기쁨이 각별하다. 보현행원 류호순 할머니는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통도사자비원에서 온 한분홍 할머니의 손을 꼬옥 잡는다.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인 보현행원과 삼소원, 통도사자비원이 시설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행사는 세 시설간의 프로그램과 정보 공유는 물론 어르신들의 타 시설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와 친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 시설에서 요양중인 50여분의 어르신들과 오심 스님, 하영숙 원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보현행원 복지사들이 준비한 코믹 공연과 보현행원 최분이 원장이 깜짝 출연한 장고 춤사위, 장기 자랑 등으로 흥겨움을 더했다.

최분이 보현행원 원장은 “가을에는 통도사자비원에서 초청을 했다”며 “부처님의 자비이념으로 뜻을 같이하는 시설간의 교류로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천미희 기자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여래원’ 개원

65세 이상 치매·중풍환자 무료 입주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정진석)는 3월 26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381의 9번지에 치매 및 중풍질환 노인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 여래원(원장 박종명)을 개원했다.

65세이상 중풍 치매 질환 노인72명을 수용하여 진료하게 된 여래원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질환자는 무료로 입주하며, 65세 이상의 일반 치매 중풍질환자도 25명 선에서 실비(1개월 60만~80만원)로 입주 가능하다.

대지 424평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735여평 규모의 여래원은 식당, 물리치료실, 주·단기보호실, 목욕실 등을 갖추고 중풍 치매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증상별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여래원 개원식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여래원 운영기금마련 ‘치매어르신과 함께 하는 자비의 작품전’을 함께 개최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전시회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동양화, 서양화, 공예, 전각작품 등의 개인 소장품을 후원 받아 중광 스님, 수안 스님 작품 등 15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053)472-2222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신라문화원 11주년 기념식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3월 20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혜국 스님 초청법회 및 기념식(사진)을 가졌다.

혜국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백상승 경주시장, 박영복 국립경주박물관장, 전국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협회장 지성희 신부 등 각 기관 사회 문화단체 대표 및 시민과 불자 약 700여명이 동참했다. 신라문화원 10년사를 돌아보는 영상자료 관람과 가수 김태곤, 풍물패 니르바나, 풍물패 건달바, 서라벌 국악실내악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진병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이 준비의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경주의 불교문화유적 보존과 사회 활동을 통해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배지선 기자

부산 대불청회장 류상영 씨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는 3월 21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창립 38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사진)을 봉행했다.

류상영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법중흥을 위해 재도약하는 청년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대구 교불회 신연섭 회장 선출

교사불자연합회대구지부는 3월 20일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포교국장 혜경 스님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능인고등학교 반야전 3층법당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신연섭 교사(덕원중) 부회장 서용선 교사(노전초등)외 8명의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2004년도 행사일정을 확정했다.

신연섭 신임 회장은 “청소년 포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배지선 기자

창원 길상사, 대웅전 기공식

창원 길상사(주지 무자) 3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초청 대법회 및 대웅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영·호남 불자들의 가교역할을 할 길상사 대웅전 불사가 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원만 회향되길 바란다”며 “길상사는 갈등과 논쟁을 지양하고 상생의 육화 정신을 일깨우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사 말사인 길상사 대웅전 기공식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AMS
2천만 불자의 대표 브랜드

2천만 불자 (주)AMS 주식 10주 갖기 운동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인인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에서 금년 1월에 인수한 스마트카드 제조 및 숭모사업 업체인 코스닥 등록기업 ㈜AMS(www.ams.co.kr / 회장 이운산 총무원장, 대표이사 부회장 지현진, 대표이사 사장 정호윤)의 주식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태고원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AMS는 제16기 주주총회에서 전 임원진의 급여 20%를 자진 반납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경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명실상부한 불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 최대주주인 지병규氏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당사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임직원의 **‘우리사주 100주 갖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 중심의 회사 경영을 막고 소액주주 중심의 투명한 회사 경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큰 대주주 개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를 주식 담당자로 정하여 직접 매주 두 차례 유선상의 공식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대표이사들의 E-mail을 공개하여 수시로 이메일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소액주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진 내부의 투명경영 실천과 함께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에서도 불교종단들과 협조하여 명실상부한 불교의 대표적 성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천만불자들에게 10주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한다’**는 불교의 자리이타정신을 실물경제에 접목하여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과 나를 함께 이롭게 하는 불교 기업
AMS™
www.ams.co.kr

1. 참여대상 : 전국 2천만 불교 신도
2. 참여방법 : 1) 코스닥시장 내 직접매입 2) AMS 유상증자 기간(3/29~31)내 청약 신청
3. 문 의 : 에이엠에스 업무지원팀 (02-780-2031)
4. 참 조 : 에이엠에스 홈페이지 (www.ams.co.kr)

무료노인복지시설 '복림촌'에 오세요



복림촌 원장 일우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새로 건립된 복림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 대승사 설립, 19일 입주자 접수
정부 지원금 없이 자원봉사자 운영
65세이상 40여명 독거 할머니 우선

'불교복지' 부문에 있어 불모지와 다름없는 남도 땅 순천에 무료노인복지시설 '복림촌(福林村. www.br.or.kr)'이 건립되어 함께 생활할 식구맞이에 들어갔다.

복림촌은 송광사 순천 포교당 대승사(주지 일우 스님)가 건립한 복지시설로 지난 19일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입주자 접수에 들어갔다.

복림촌이 주목받는 것은 정부나 지방단체로부터 일체의 지원금없이 순수하게 사찰과 신도들이 사재를 털어 건립하고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한다는데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복림촌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여생을 부처님 품안에서 넉넉하게 생활하는 '부처님 집'이다.

복림촌이 자리한 곳은 순천 상사면 운동산 중턱. 지난달 신축건물 준공검사를 마친 복림촌에는 총 3500평 부지에 지장전, 생활관, 종무소 등 3채의 건물이 들어섰다. 지장전은 기도 정진할 수 있는 법당이며 요사채격인 생활관은 4명씩 기거하는 방사와 물리치료실, 교육실, 목욕탕, 식당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약왕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혈액정제기와 척추교정기, 찜질기 등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갖춰져 있다.

복림촌 건립의 주역은 3년 전 대승사 주지로 부임한 일우 스님.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매년 경노잔치를 펼치다 단발성 행사보다 영구적인 복지사업을 위해 복림촌을 건립했다.

사세가 약한 도심 포교당 대승사가 무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스님의 뜻을 받들어 사부대중이 하나로 뭉쳤다.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맸고 마침내 불자들의 힘으로 복림촌 불사를 해낸 것이다.

4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복림촌 입소자는 우선 '65세 이상 독거 할머니'로 정했다. 특히 자식이 있어도 보호 불가능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시설이 확충되면 할아버지도 받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본격적인 복림촌 입주에 앞서 대승사 대중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신도회(회장 여련화)는 향후 복림촌 운영비 마련을 위해 후원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봉사팀인 보현회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림촌 식구들의 손발이 되기 위한 물리치료, 목욕, 세탁, 청소, 미용 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입주 및 후원 문의 : 061-745-0828 (농협 615010-51-053100 예금주: 복림촌)

순천=이준엽 기자

용주사, 태안3지구 개발 중단 촉구

"효 문화 단절시키는 처사"
환경위 보존방안 마련 주장

화성 용주사 환경위원회(위원장 성직, 용주사 재무국장)는 3월 22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3지구 택지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용주사 환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적 제206호인 융건릉과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을 비롯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용주사 사이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 개설과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효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단절시키겠다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경위원회는 택지개발 사업 즉각 철회와 전통문화 보존 방안 모색을 주장했다.

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무 스님(용주사 교무국장)은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참회 촉구를 위한 법회를 3월 3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봉행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교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광주 혜룡사 교도소 위문공연
지역가수 재소자 한마당

광주 무등산 혜룡사(주지 혜우 스님)는 3월 24일 광주 교도소 강당에서 재소자 위문공연을 봉행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혜우 스님(미타종 부종정)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말씀은 구구절절 '나를 낮추고 나보다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며 "집안걱정, 억울한 심정은 오늘 공연을 통해 모두 내려놓고 마음공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법회에 이어 2부 공연에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재소자들과 한마당 어울림시간을 가졌다.

이준엽 기자

나주 불회사 일주문 낙성
불국원 착공식 첫 시삽


새로 건립된 불회사 일주문

나주 불회사 일주문 낙성 및 불국원 착공식이 22일 불회사 경내에서 봉행됐다.

이날 낙성식에는 백양사 두백 스님, 나주 사암연 회장 혜인 스님 등 지역스님과 배기운, 정동채 국회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이길선 나주 시의장 등 지역기관장, 재가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낙성식에서 불회사 주지 정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주문은 차별없는 부처님세계에 들어가는 문으로 세상사 고통과 갈등으로 지친 이들은 이문을 통해 들어와 편안히 쉬어가기바란다"고 말했다.

일주문 낙성에 이어 참석자들은 경내 옛 암자터에서 불국원 착공식을 갖고 첫 시삽을 했다.

불회사 불국원은 70평 규모의 무의탁 노인 수행도량으로 금년 가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선암사 선맥 7선승 영정
3월20일 조사당 봉안


전법조사 7위 진영 봉안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중국 선종의 초조 보리 달마 스님과 중국 선종의 법맥을 한국으로 옮겨온 태고 보우 스님 등 한국불교와 간화선에 큰 영향을 미친 일곱 선승의 영정이 순천 선암사 조사당에 3월 20일 봉안됐다.

선암사 조사당에 봉안된 일곱 명의 선승은 보리 달마 스님(?~535)을 비롯해 대감 혜능(638~713), 임제 의현(?~867), 양기 방회(992~1149), 석옥 청공(1272~1352), 태고 보우(1301~1382), 침굉 현변(?~1684) 스님 등이다.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은 "이번 불사를 통해 태고종의 종통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신심,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대전 삼문사 김규철 신도회장



대전 삼문사 김규철 신도회장(오른쪽)이 광수사 박정웅 신도회 부회장과 천태종 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미아 찾아주기 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는 유성구 계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천태종 광수사가 꼽힌다. 정기법회 때면 1천여 신도들로 법당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도들의 신행 열의도 대단하다. 웬만한 수행력과 인품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찰의 신도회장직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삼문사 신도회장인 김규철 거사(68) 이야기를 하면서 광수사를 빼놓을 수는 없다. 광수사 신도회장을 두 번 연임한 김 거사는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의 '특명'으로 올해 삼문사 신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수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문사 주지도 겸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바쁜 탓에 삼문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신도가 필요했고, 세운 스님은 그 적임자가 바로 김 거사라고 판단했다. 사실 김 거사는 삼문사가 대전의 중심 사찰로 자리 잡는데 세운 스님과 함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한글학교, 풍물단 등 문화포교 앞장
27년간 매일 밤 11부터 4시간 정진

"94년 삼문사 불사를 할 때 3년간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달렸었는데, 그 인연 때문에 다시 삼문사로 오게 됐나 봅니다."

김 거사가 책임을 맡으면서 삼문사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신도수도 늘고 유치원도 인기가 높아졌다. 문맹자를 위한 한글학교도 더욱 활발해졌고, 풍물단이나 합창단을 통해 문화포교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며 유치원 교사들을 일본에 연수까지 보내고 있을 정도니, 삼문사가 지역 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김 거사는 지금도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삼문사 법당에서 기도를 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삼문사와 인연을 맺었던 27년 전부터다.

"몸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자리죠, 신도회장이라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세운스님 삼문사 주지

말보다 실천 존경받는 불자

거짓 없고 순수한 마음이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김규철 신도회장은 신심이 올곧고 진실한 분입니다. 말 보다는 늘 실천이 앞서는 그런 분이죠. 광수사 신도회장을 하면서도 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문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불의 궁극은 중생제도를 위한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면서 남을 불편하게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신도회 간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하고, 우리 신도회장은 그런 점에서 훌륭한 분입니다.

봉 한국불교해동종 창종 6주년 축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굳은 의지와 수행의 약속으로 한국불교해동종 창종 6주년을 맞았습니다.
더욱더 정진하는 한국해동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 정 해운경우

원로원장 도운 총무원장 혜우 종회의장 대법
종회부의장 정관
사서실장 보각 포교원장 성재 종회부의장 도일
사정부장 천강 교육부장 법헌 총무국장 자은
총무부장 정일 사회부장 지원 교육국장 도승
재무부장 도봉 포교부장 도월 사정국장 해월
충주분원장 화도

종도일동

인사말씀

3월26일 충주이화예식장에서 봉행된 6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불교해동종 총무원 043-853-2855



天用眞人 · 泰日大師 作品

◎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昻明人中師一点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동양 미술 대전 특선 및 동경 국제 서화대전 준대상 당선작품
비림 문화예술 중국 일본 한국 문화상 수상 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과 질병을 이기는 기도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촌 종말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지구변동으로 각종 재해, 재난과 질병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윤리도덕이 왜 떨어지고 있는가..! 그대는 어디로 가십니까.. 귀하는 인류의 스승이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달마상에서는 상서로운 기가 나오고 달마상의 눈이 보는이를 따라다니는 신출 귀물한 달마상으로써 악몽에 시달리거나 각종 파충류나 쥐, 고양이, 비둘기 등이 집주변에 피해를 주는 곳과 새태양의 법도로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개업, 진학, 고시 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시어 소원성취하시고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워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달마종에 입문하시고 본 종단에서는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평생 동반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心
명퇴자 초보자 및 철학에 종사하는 지도자 및 심리학적, 섬리학적반응으로 미래의 사명자 및 달마도법을 전수 받을 자는 동참을 바랍니다.

◆ 신비의 진태인은 남을 재압하고 예언자 도통군자들이 남몰래 소장하여 비법을 발휘하였던 비전이며, 영가를 다루거나 말문이 열리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들은 평생 재복과 출세 관운. 남을 재도하는 비밀장임.
[진태인 구입처 : 전화 02)821-6622, 016-239-31110]

대도근본 우주의식의 유불선이 하나로 윤달드는
진태양 혈단법의 초염력, 진인 경신도통 대법회

제83회 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갑신년 윤2월4月 21日子시와 22日(양4月 10,11日)오시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잣대를 얻어 천안통 타심통 천리통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잣대를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할 수 있는 십이식의 대 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하늘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짓거리다가 허공방망이로 한대맞고 태산같은 병마와 동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인 척 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새천년 미륵 달마도법의 요즘의 달마법도시대는 팔조신장이 지구촌을 삿삿히 인과법으로 중음신과 잡신(수마,인마,병마)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암의 고통으로 겁살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새시대 새종교 웅조달마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십년할 공부를 단 한번의 경신입문으로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만법을 다스릴 수 있는 진인경신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스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낙 당당의 비밀장과 모든종교가 하나로 되는 윤달 진인 경신 진광 도통비법에 동참하시어 건강 수명장수 하시고 도통군자 인류스승 도인 되소서.

동참하시는 분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자만이 선덕에 닦은 인연 공덕으로 초능력을 받아 신선 도인 성연의 길로 가는 것 입니다.

● 입제 : 양 4월 10일 토요일(해시) 음. 윤 2월 21일
● 해제 : 양 4월 11일 일요일(해시) 음. 윤 2월 22일 (선착순)
● 동참금 : 1박 2일 5만원, 침식제공 농협 029-01-167866
하나은행157-015402-00108 곽태일(한영) FAX02)821-7768
02)821-6622/821-7767~8/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일반버스 85,25,105,33-1,26,303,142,26-3,102번모자원고개 하차.

웅조미륵달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교육원 달마선원장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처자(妻子)의 옷을 벗겨 세세생생 절 지붕 떠받치게 하여 속죄하고 싶었던 게야 …

'나부상화' (전등사 후원) 시연을 보고

대학로에 데이트하러 나왔다가 팔짱을 끼고 온 20대의 연인들, 40대 엄마와 20대 딸, 혼자온 50대 아저씨, 들뜬 표정의 외국인들…. 3월 24일 저녁 8시 불교뮤지컬 '나부상화'의 시연회가 열린 대학로 세우아트센터는 다양한 나이의 관객들이 객석을 채웠다. 사찰설화를 바탕으로 한 불교문화 공연 한편이 세월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120분짜리 문화체험이었다.

3월 25일부터 5월9일까지는 세우아트센터에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국립극장에서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컬 '나부상화'의 시연현장과 공연 100배즐기기 감상포인트를 해부해 봤다.



강화 전등사 대웅전 네 처마에 '나녀상'을 새기고 바다에 뛰어드는 '왕동량'. 불교뮤지컬 '나부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나부상화'의 줄거리는?

극작가 우봉규씨가 시나리오를, 박근형씨가 연출한 '나부상화'는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네 귀퉁이에서 처마를 받치고 있는 '나녀상(裸女像)'에 관한 설화를 각색한 창작 뮤지컬이다.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왕족에 대한 배신, 여인의 변심… 도편수 된 왕동량의 비극적인 삶

여말선초, 자신에 의해 몰락한 왕족들의 후환이 두려운 이성계는 왕족들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당대제일의 문인 왕동량을 잡아 고문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앞에서는 저항하지만, 처자식에게 가하는 고문 앞에선 마침내 굴복하고 만다.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자 왕족을 마포나루에 모이게 한 왕동량은 강화로 가는 배에서 왕족들을 수장(水葬)시킨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동량은 절 짓는 도편수가 돼 강화 전등사로 내려와 왕족들을 수장시키는데 일조한 '도치'와 술집 작부인 '들레'를 만난다. 이어 전등사 대웅전 공사를 맡은 도편수 동량은 들레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된다. 둘 사이가 그러한 만큼 도편수는 '들레'를 믿고 그녀에게 자신의 돈을 맡겨둔다. 그러나 공사가 끝날 무렵 '들레'는 돈을 갖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자 분을 삭이지 못한 도편수는 전등사 대웅전 처마에 나녀상을 만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들레'와 사랑의 밀어를 나누는 '왕동량'.



뮤지컬의 백미는 춤과 노래다.

'나부상화' 100배 즐기기

장르가 뮤지컬이다 보니 노래와 춤이 많이 나온다. 풍경소리의 이종만 실장이 우봉규 작가의 노랫말에 맞춰 3개월 동안 '내땅 강화' '전등사의 노래' '도치의 노래' '눈이 내린다' '동량과 들레' '용서' 등 20곡을 작곡했다. 특히 '감축드리옵니다'와 '꽃분이 트로트'는 신명나는 타령조와 트로트 음악을 가미해 어깨춤이 저절로 춰질 정도로 흥겹다.

반주음악도 시대극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악기와 현대악기인 신디사이저를 적절히 조화롭게 활용해 듣기에 편안하다. 하지만 저예산의 뮤지컬인 만큼 무대장치는 화려하지 않다. 다만 연극 '불좀 꺼주세요'로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왕동량역의 최정우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화려한 율동을 선보인 들레역의 임은혜 등



돈을 갖고 도망친 '들레'가 향변하는 장면.

타령조에 트로트 가미 춤 절로 개성적 캐릭터·튀는 대사 '잔재미'

의 물오른 연기가 이 작품을 리드해 간다.

전체적으로 잔재미는 크게 눈에 띠지 않지만 '도치'와 '꽃분이'는 이따끔씩 미소를 머금게 하는 방자같은 캐릭터로 즐거움을 준다. 특히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꽃분이의 "이 몸의 꽃이 오늘도 피는구나. 남정네들의 정은 한순간이라 하지만, 이년의 꽃향기는 영원토록 흩날리리."라는 대사의 천연덕스럽고 요염한 연기는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또 설화속에서의 나녀상은 도편수의 돈을 갖고 도망친 술집 작부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처·자식을 새겨 넣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대사

스님과 동량이 나눈 마지막 장면의 대사.

스님: 자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건 바로 처자였어.

동량: 그만!

스님: 한 귀퉁이는 벌거벗은 자네 처고, 세 귀퉁이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네 아이들이야.

동량: 흐흐흐!

스님: 자네는 자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처자의 옷을 벗겨 세세생생 절 지붕을 떠받치게 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싶었던 게야.

#연출자의 변

전등사와 그 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떠나 창작 뮤지컬인 만큼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했으면 좋겠다. 굳이 이 작품에서 불교적인 의미를 들춰 낸다면 주인공 동량이 자신의 지은 업(業)을 절짓는 행위를 통해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며 결국에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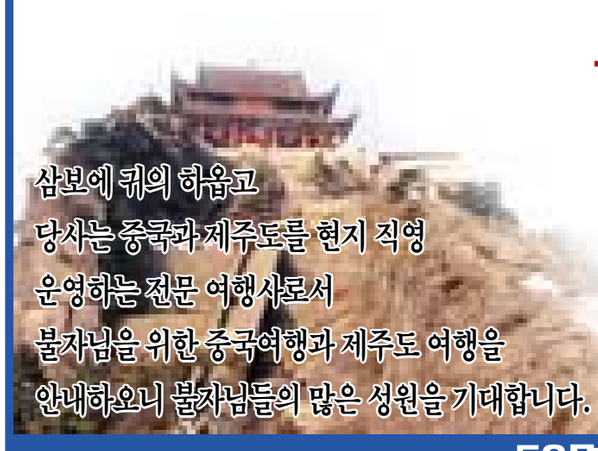
연기지도를 하고 있는 박근형 감독(오른쪽에서 두번째).

설화지만 대중·현대적으로 구성 배우들 연기력 돋보이는 음악극

관객들에게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무대장치도 현대적으로 했으며, 의상도 시대극이라 할지라도 고전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았다. '나부상화'는 엄격히 말해 음악극이다. 하지만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뮤지컬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력과 정서도 이 작품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02)3672-2466~7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특별기획안내 (호화 유람선으로 중국여행을…)
◎ 출발일 : 2004년 4, 5, 6월
1. 북경 / 백두산 7일 (매주 화요일 출발) 69만원
2. 청도 / 태산 / 곡부 / 천불산 (만불동) 6일 (목, 토 출발) 40만원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일요일 출발 - 225,000원 ▶화, 목, 토 - 248,000원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볼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진각종 정체성 재정립

출가승 배출· 불상 봉안…다음달 법 개정

女스승 역할 강화·통리원 집행부 겸직폐지

진각종이 '불상 없는 종단' '재가 스승 종단'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이는 무상진리와 재가 스승으로 기존 종단과 차별성을 부각했던 그간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종단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각종의 변화 시도는 형상불인 불상이 전혀 없는 전통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근본도량인 심인당을 비롯해 모든 전각에는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전통이지만, 납골당 · 연수시설 등의 특별한 장소에 불상을 봉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골당이나 연수시설 등은 직접적인 신앙이 행해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불상을 봉안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각종은 이를 '육자진언(옴마니반메훔)'을 법당의 본존으로 하는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진각종은 재가 스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승단에 출가수도승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출가승 제도를 유지하라"는 회당 대종사의 유법을 다시 되살려 종풍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묘책이다. 현재의 출가수도승을 승단의 일원으로 인정해 수행풍토를 진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불상 봉안과 출가수도승 제도 도입 문제는 종단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종단내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회당 대종사의 유법을 되살려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 대해 승단내에서도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기다.

효암 통리원장이 정체성과 종단 대계(大計)를 고민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점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 통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4월 21일 열리는 정기 중앙종의회에 이 사안을 포함한 종헌 · 종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여성 스승의 역할 증대, 통리원 집행부의 겸직제 폐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종단운영에 나선다.

진각종은 3월 중순 심법정 전수(대구 선륜심인당)를 교육원 산하의 진각대 교수로 임용했다. 선출직에는 전수들이 뽑힌 적은 있지만 중앙기관의 임명직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일은 진각종 내에서 '의미 있는 인사'로 호평을 얻고 있고, 나아가 전수들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인당 등 교화 일선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의 역할도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리원 집행부는 앞으로도 전수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언제든지 전수들을 기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리원 부장급 집행부의 심인당 주교 겸직제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각종은 지역교구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시행한 직무스승제와 더불어 종단 조직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종단 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종조 회당 대종사님의 유법을 계승 · 발전시키고 종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아사리과정 스승 15명 이수

진각종 스승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교육과정인 제8기 아사리과정 수료식이 3월 18일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열렸다. 2년간 진행된 과정에서 15명의 정사 · 전수가 수료했다.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아사리과정을 수료한 스승님들은 밀교의 최고 스승인 아사리가 됐다"며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과 교화에 앞장서며 후학의 사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각종은 이날 11명의 스승이 입학한 가운데 제7기 심학과정 입학식을 봉행했다.



삼론종은 3월 25일 충주 중앙탑 광장에서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만등불사 대법회를 열었다.

삼론종 국태민안 만등 밝혀

혼란한 정국의 안정과 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1만등이 충주 중앙탑 광장에 걸렸다.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3월 25일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광장에서 '국운융창 국태민안 기원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 발원문 낭독, 연등 점화, 영산재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종정 석봉 스님은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중심을 잡고 중생을 제도해 나가야 국운융창의 기운이 퍼져 나갈 수 있다"며 "한 생각 바꾸어 공업중생임을 자각하는 참사람이 되라"고 법문을 내렸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혜광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법회를 계기로 모든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종단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정 석봉 스님은 총무원장 혜광 스님, 중앙종회 의장 대안 스님을 비롯해 사정원장 정봉 스님, 재정원장 청봉 스님, 수선원장 오봉 스님 등 지난 1월 새로 구성된 중앙종무기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신도교육 교재 '불교사의 이해' 발간

조계종이 신도교육 교재 편찬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포교원(원장 도영)은 인도 · 중국 · 한국을 중심으로 2500년 불교사를 정리한 <불교사의 이해>를 3월 22일 발간했다. 신도전문교육 필수과목 중 불교역사의 교재로 3년여 작업 끝에 나온 것이다. 포교원은 불교교리 교재인 <불교의 이해와 신행>을 지난 달 출간한 바 있고, 역시 전문교육 필수과목인 <불교문화>도 올 하반기 내로 펴낼 계획이다. 신도교육 필수교재 편찬이 마무리되면 지난 2001년 신도기본교육 전면시행 선포식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도교육도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불교사의 이해>는 신도전문교육 기관인 전국 50여 개 불교대학의 교재로 나온 것이지만 기존 불교 역사서와 달리 철저하게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술함으로써 일반인들도 불교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개관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도-중국-한국을 중심으로 했지만 한국불교사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특히 한국 선불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불교 전파 경로를 따라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남방불교와 티베트 네팔 몽고 일본 대만 등 북방불교의 흐름을 개관했음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약술했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한국불교의 특성인 선사상의 성립과 발전과정도 중요하게 보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본원종 생전예수재 입재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3월 23일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생전예수재 입재식 및 사리탑 제막식을 열었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중앙종회 의장 대운 스님을 비롯해 중진, 집행부 스님들과 전국 1백여 사찰 신도 6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7회에 걸쳐 49일 동안 열린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개인의 업장을 소멸하는 소극적 불사가 아니라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본 취지가 있다"며 "선업을 쌓고 선근을 심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월23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열린 본원종 생전예수재. 대중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北 영통사 기와 6차 지원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운덕)는 3월 29일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1만3천여장과 단청용 염료 300kg 등 6차분을 전달했다.

이번 방북에는 사무총장 무원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을 단장으로 18톤 트럭 8대 등 11대의 차량이 동행했다. 이로써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북측과 약속했던 46만장의 기와 지원을 완료했다.

정사 정복 한복으로 교체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정사들의 정복을 현재의 양복에서 황토색 개량한복으로 교체한다. 새로 제정된 정복은 4월 20~22일 열리는 스승강공 이후부터 착용하게 된다. 정복은 불공 때 법의 속에 입거나 일상생활에서 착의하는 옷이다.

그동안 총지종 정사들은 법의 안에 양복을 입거나 검은색 개량한복을 입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복을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지종은 정복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스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밀교종단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회 신행수기 공모

진각종 통리원은 6월 14일까지 신행수기를 공모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신행수기 공모는 당체법문, 신행일기, 진각종 스승과 얽힌 일화 등의 이야기를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로 정리해 문화사회부로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가작 3편을 선정하는 당선작은 7월 15일 발표된다.

진각종 통리원은 또 문화사회부 주관으로 '제3회 등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소품등 · 장엄등 등 작품등과 단체행진등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개인 및 단체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5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며, 당선작에는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02)913-0753

대인사에 사리탑 준공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1일 양산 대인사에서 사리탑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종정 연화 스님은 "사리탑 불사의 공덕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이타행으로 보답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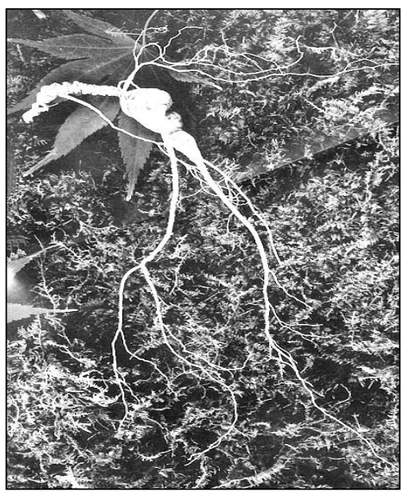
가로 세로 각 3.8m, 높이 9m 크기의 5층 석탑인 사리탑에는 사경으로 조성한 법화경 5백여권과 사리 14과가 봉안됐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육법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그림 · 김영민

스트레스 · 직업병?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신행이 '특효약' 이니까

'출근이 부담스럽다 못해 두려운 사람, 직장 일을 집까지 가져가서 할 때가 많은 사람, 술과 담배가 부쩍 는 사람….' 직업 특성에 따른 일들로 직업병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루 24시간이 고스란히 업무의 연장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 일터불자들은 어떨까?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과 신행 사이에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터불자들은 나름대로의 예방비법을 갖고 있는 점. 질환은 달라도, 그 치유법을 불교에서 찾고 있다. 직장인 불자들이 공개하는 '직업병, 불교로 치유하기',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들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사례1 "가도 가도 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만 계속되는 악몽을 꿉니다. 그러다 갑자기 운전실 앞으로 사람이 달려들고…, 그때서야 비명과 함께 꿈을 깹니다." 기관사 경력 5년차 이 모(35) 기관사. 공항장애(특별한 위험이 없는데도 공포감을 느끼는 발작증세)를 꿈에서도 호소한다. 참다못해 이 기관사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고, 올 2월에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사례2 회사원 박 모(36) 씨. 일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회사 일에 대한 중압감이 그를 짓누른다. 상사로부터 미숙한 업무처리에 늘 지적당하고, 부하 직원들은 그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당장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염불(念佛)과 주력(呪力)으로 마음을 다잡아라' = "심리적 불안감은 열차가 2분 간격으로 역을 지날 때마다 되풀이 됩니다. 초긴장 상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비좁은 운전실에서 장시간 어두운 터널을 홀로 운행할 때 극대화됩니다." 기관사 정찬연 불자(성북승무소 법우회 총무)의 말이다. 최근 들어 두통이 잦아들고 구토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 일나겠다"고 생각한 정불자는 불교에서 치유법을 찾기 시작했다. 선택한 방법은 '염불'. 밀폐된 공간에서 염불은 초조한 마음을 달래는데 특효였다.

▷ '절' 자주 하면 질환 '저절로' 예방 = 일반인은 하루 서 있는 시간이 걸어야 4시간 안팎.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하는 교사, 간호사 등의 직장인들은 관절이나 하지정맥류(피로한 다리에 혈관들이 뭉치고 꼬이는 질환)를 많이 앓고 있다. 다리가 늘 무겁고 쉽게 붓는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일터불심은 이런 질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회장은 '절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 자연스럽게 자기 호흡에 맞춰 절을 하다보면, 기는 물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진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아침에 108배 할 것을 권유한다.

▷ '선체조도 요가도 좋다. 많이만 움직여라' =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내근직 직장인들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보급된 컴퓨터로 인한 근골격계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목, 어깨 등에 심한 통증과 마비를 느끼거나 요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주로 발생된다.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 김천석 회장(인삼연초연구소 연구원)은 "하루 종일 연구에만 매달리다보면, 잦은 어깨 결림과 요통을 느낀다"며 "10분간 매일 간단한 선체조로 뭉친 몸을 푼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홍보부장 원혜랑 경장(민원실)도 "좁은 공간에서 계속 민원 전화와 씨름하다보면 몸이 현저히 무거워졌다"며 "이를 풀기 위해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7시에 1시간씩 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무도를 전수하고 있는 적운 스님(골굴사 주지)은 "의자에 앉아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호흡이 대체로 짧다. 수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호흡을 해야 한다"며 "두 손으로 큰 원을 그린 후 합장한 채로 허리를 곧추 세우는 동작을 3~5회 반복하면 척추가 부드러워지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호흡 · 염불 · 주력 · 절하기 · 요가 등
심신안정 · 적극적 사고 길러 자신감 줘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문가 조언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최훈동 박사(한별정신병원장)는 직장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깨어있는 명상법'을 주문한다. 자기 호흡을 항상 관찰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 박사는 날숨에 진언이든 염불이든 담아야만 초조함과 긴장감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또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에 잠시라도 짬을 내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푸는 여유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울화 · 스트레스 등이 치고 올라오면 그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의 파생물일 뿐'이라며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이 좋다고 조언한다.

최 박사는 만약 증세가 심각하다면,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한다. 신심이 깊지 않은 불자들이 억지로 신앙심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불자회는요

국토연구원 불교법우회

'삼천리 금수강산', 그 땅에 불심을 녹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우리 국토의 씀씀이 연구합니다. 물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보존에도 힘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국토연구원 불자들의 모임 '불교연구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나를 찾고, 원내 직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5에 창립한 직장불자회입니다. 법우회가 결성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아직도 창립법회 때의 환희심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발원을 올리던 그 때가 말입니다. 참으로 일터에서 일과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장불자들은 행복한 불자들인 것 같습니다.

법회는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원내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고, 계절별로는 법주사, 해인사, 수덕사, 태안사 등 전국 명산대찰을 찾아 불심을 키워왔습니다. 불교공부도 열심이었습니다. 불교계 큰 스님들은 물론 불교학자들을 모셔 특강도 열었습니다. '불교입문과 신행', '좌선법의 요체', '사찰예법과 공양법' 등 다양한 주제로 불교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물론 경전공부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동국대 정병조 교수에게 <반야심경>을, 대원불교대학 장휘옥 교수에게 <심우도> 등을 배웠습니다.

배움을 실천으로도 옮겼습니다. 87년에는 '참선소모임'을 결성, 마음공부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법회에서 진행된 법문을 모아 법문집도 발간했습니다. 89년에 '바른삶 보리살타의 지혜'를, 92년에는 2년3개월간 진행된 법문을 한데 모아 '금강경의 이해'를 출간했습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95년에는 국토연구원 불교법우회의 10년사를 집대성한 '국불회 1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법우회원들이 업무를 나눠 야무지게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참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20년간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을 전달해왔습니다.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행'이라는 회원들의 생각이 담아해온 우리 법우회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국토연구원 불교법우회원들이 200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양 안흥사(주지 수연 스님 · 사진 중앙)에서 '초파일 발원 촛불법회'를 봉행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배움과 실천으로 20년 법우애 다져
10년史 발간 · 이웃돕기 등 큰 보람

앞으로 우리 법우회는 안양지역의 직장직능 불자회와 연계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창립한 안양시청, 안양경찰서 등의 불자회와 합동법회를 봉행해 안양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불자회 창립지원'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그간 사각지대로 있던 이들 기관의 불자회 결성에 한몫을 할 계획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법우회를 지켜봐주십시오. 부지런히 정진하는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김태환 총무(지역도시연구실 연구위원)



문화유적 사진작가 알랭 베르디에 씨

35년간 81개국 유적 카메라에 연말까지 한국의 절 렌즈에 담을 계획 아침 저녁으로 참선 · 요가 35년째 작가, 칼럼니스트, 교수 팔방미인 목적지 없이 수행자로서 '만행' 할 뿐

카메라 렌즈에 나타난 불교유적들은 어떤 모습일까.

35년간 81개국을 돌며 문화유적을 카메라에 담아온 프랑스 사진작가 겸 칼럼니스트 알랭 베르디에(56)씨의 대답은 간결했다. "뷰티풀(Beautiful)"이었다.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감탄사를 남발하는 것이 외국인 특유의 단순한 감정 오버(over)가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은 채 그 증거를 주문했다. 선뜻 내보인 수백장의 슬라이드 필름을 보고는 잠시 가진 선입견이 기우였다는 생각에 곧바로 그가 쏟아내는 말에대한 무장해제가 이루어졌다. 그 필름 속에는 '중국의 용문 석굴'을 비롯해 '티베트 라사의 포탈라궁', '라다크 사원', '미얀마의 만달레이 사원', '인도네시아의 보로보도르 사원', '네팔의 스와얌부나트 사원' 등 수백개의 사원과 불교유적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방랑을 '만행'이라고 말하는 베르디에씨는 영국 써섹스 대학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양문화사를 전공하면서 처음 불교문화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동양종교학'을 전공하며 석사학위도 받았다. 이론적으로 동양 철학과 종교에 자신감이 생긴 그가 결정적으로 불교에 심취하며 불교문화유산 답사를 다닌 계기는 1986년 인도북부의 라다크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라다크를 가보고는 진정한 불교국가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행자들은 물론 재가불자들까지도 수행을 철저히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미스 사원에서 만난 스님들에게서 인연과 열반 등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지요."

이후 그는 지금까지 35년간 아침 저녁으로 참선과 요가를 하고 있으며, 식생활도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는 채식을 선택했다. 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의 사원에서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익혔다. 그리고 50번 정도 방문한 인도에서 요가도 배웠다.

"불자가 된 이후 마음의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항상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일까. 수십만장에 달하는 그의 필름중에 불교문화유적이 거의 대다수다. 그의 작품 일부는 조계종출판부에서 제작하는 2005년 캘린더에 사용될 예정이다.

베르디에씨의 한국 방문은 90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경주 불국사와 속초 신흥사, 양산 통도사 등 3개 정도의 사찰만 답사했지요. 그래서 사실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말까지 머물며 전국 사찰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을 작정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사찰에 들어가 참선과 단기출가 경험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단지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일 뿐이다. 굳이 방한 목적을 밝히자면 유럽에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다. 사실 유럽에는 달라이라마 때문에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베르디에씨의 이력은 그가 다닌 나라만큼이나 다양하다. 사진작가와 여행가 뿐만 아니라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하다. 프랑스를 비롯해 필리핀, 인도, 포르투갈 등의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불교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기고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에 '도베' 잡지에서 스리랑카 불교에 대한 내용을 썼다. 또 그는 교수로서도 활동했다. 72년과 77년 각각 필리핀 마닐라 대학 역사학과와 네팔대학에서 동양 종교를 각각 강의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중에는 제법 유명인도 많다. 필리핀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와 툴시기리 네팔 수상의 부인인 사라기리 여사도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갈 때 우연히 동승한 반정부 저널리스트 때문에 함께 아프가니스탄 감옥에서 4개월 동안 갇히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는 티베트 해방운동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다 공안에 붙잡히기도 했다.

힘든 여정이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여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자신감있는 어조로 대답한다.

"저의 여행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관광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듯이 저도 인생의 작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만행'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다음에 방문할 나라가 어디냐고 재차묻자 그는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릅니다. 인연과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제 '만행'의 원칙이지요." 어디서 배웠는지 처처(處處)가 곧 수행처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티베트의 조강사원 앞에 선 알랭베르디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보로보도르사원


히말라야 골짜기에 있는 라다크사원


부탄의 팀푸사원


중국의 용문석굴


미얀마 만달레이 사원의 동승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봉축캐릭터 용품전
마하몰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봉축용품 준비하세요!


캐릭터비닐만월등
□ 32cm × 32cm
□ 분홍,빨강,파랑 노랑,초록,색상별


캐릭터 청사초롱
□ 고급 본염 인쇄
※ 500개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 오렌지,흰색(영가), 빨강,오색등


팔각조립등
□ 높이 26cm 폭 28cm 입구 11cm
□ 핑크,봉축노랑,오렌지, 성도일 노랑, 봉축빨강, 성도일 빨강, 초록, 파랑


장등(오색)
□ 높이 47cm 폭 25cm


중등
□ 높이 40cm 폭 27cm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비단팔모접등
□ 높이 28cm 폭 24cm
□ 연분홍, 노랑, 연초록


공단등(비단등,실크등)
□ (大) 23Cm / (中)18cm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빨강, 흰색(영가등)


비닐팔모접등
□ 높이 26cm × 26cm
□ 핑크, 오렌지, 연두


봉축현수막 : 나염
□ 90cm × 6m (40,000원)
□ 90cm × 7m (45,000원)
□ 90cm × 8m (50,000원)


봉축현수막-세로(실사)
□ 6m × 90cm (60,000원)
□ 7m × 90cm (70,000원)
□ 8m × 90cm (80,000원)


장엄 번(만장기)
□ 90cm × 210cm (40,000원)
□ 90cm × 230cm (45,000원)


지하철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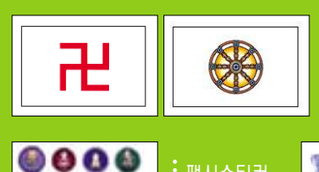

어깨띠
□ 2,500원
※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봉축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고급 : 35,000원
※ 100개 1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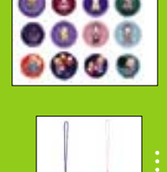

연꽃리본 세트
□ 일반 : 25,000원
□ 고급 : 35,000원
※ 100개 1세트


차량용 깃발
□ 4,000원
□ 20Cm×30m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90Cm×135m
※ 다른 사이즈 제작가능


봉축스티커세트
□ 30,000원
※ 100매 1세트


봉축버튼
□ 3,200원
※ 8개 1세트


팬시스티커
□ 1,200원
※ 12개 1세트


연꽃타올
□ 4,000원
□ 녹색, 노랑, 분홍, 청색
※ 100장 이상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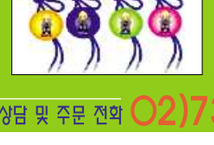

연꽃저금통
□ 3,000원


연꽃향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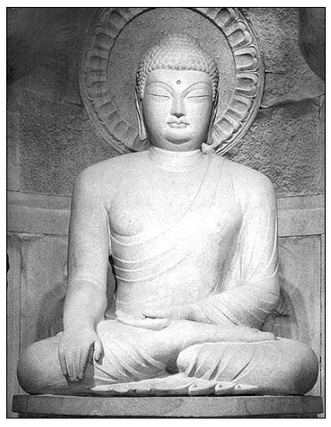

연잎연밥 차걸이
□ 3,000원(개당)


청자연잎 향꽂이
□ 6,000원


봉축 풍선세트
□ 30,000원
※ 100개 1세트(대롱 포함)


봉축타이슬링
□ 5,600원
※ 8개 1세트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kr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보세요. 상담 및 주문 전화 02)732-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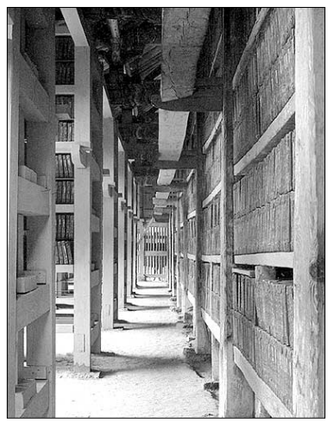


석굴암 · 해인사 팔만대장경 · 경주 역사유적

세계 문화유산 맞나요?

원형 보존 · 주변 정비 · 관리체계 부실
규모에 비해 예산 · 인력 턱없이 부족

이상해 교수 "황금을 돌 보듯 한다" 일침





이상해 교수

불국사 석굴암(사진 왼쪽), 해인사 팔만대장경(사진 오른쪽), 경주역사유적 지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불교유적을 어떻게 관리하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3월 22~23일 이틀간 문화재청이 주최한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워크숍'에 참석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회의)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해 교수는 지난해 이들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문화재 관리수준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는 순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황금'을 '돌' 보듯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사 장경각은 관리인 1명이 청소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데만 꼬박 1년이 걸릴 만큼 방대한 규모"라며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이들 문화재를 모니터링한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에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이들 3가지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면서 "문화유산을 활용하면 관광산업에 대한 안목자체를 높일 수 있어, 세계의 수준 높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불국사를 관리하는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담당 인력자체가 부족해 세계문화유산을 따로 관리할 엄두를 내기 어려워 문화유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지금처럼 문화유산 근처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매운탕집'류의 상업시설들이 관광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문화유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해 질 높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형보존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문화상품화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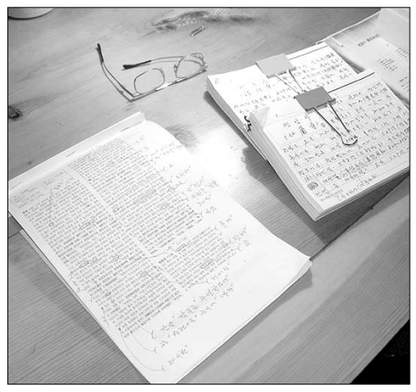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불국사 석굴암의 예를 들며 불교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면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인사 장경각이 자연의 원리에 따른 건축방법으로 7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석굴암도 일제강점기 당시 훼손된 원형을 파악해 이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석굴암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석굴암 원형 회복을 위한 연구모임' 등을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석굴암의 과학적인 구조와 새벽녘의 경이로운 경관은 세계인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가산불교대사림 6권 발간

'ㅁ' 항목 어휘 1천여쪽에… 총 15권 목표





최근에 발간된 <가산불교대사림> 6권(사진 왼쪽)과 지관 스님의 꼼꼼함이 엿보이는 원고가 놓여 있는 스님의 책상.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이 15권을 목표로 펴내는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의 6번째 권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6권은 '만화(萬化)'에서 '무소의지(無所依止)'까지 한글 'ㅁ' 항목의 어휘 일부를 1천여 페이지에 걸쳐 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5권의 책과 마찬가지로 일반불교 어휘에 한국불교의 사상적 문화적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어휘도 포함, 한자어 · 범어 · 팔리어 · 티베트어 등 불교권 언어를 모두 기록했다. 15권 가운데에는 본권 13권 이외에 사전 간행 후 항목을 보완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보유편>과 <색인편> 2권이 포함된다.

<가산불교대사림>은 1권이 나왔던 1999년부터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와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도 사전편찬 과정을 본 사람들은 사전편찬의 가치와 어려움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지관 스님 책상 위엔 7명의 연구원들이 1주일동안 정리한 원고가 쌓이고, 그 때부터 스님은 빨간 펜을 들고 교정에 들어간다. '딸기밭'이 되어버린 원고에서는 고희를 넘긴 스님의 꼼꼼함과 최고 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띄어쓰기 하나까지 모두 교정돼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같은 과정을 몇 차례 거듭해 10번의 편수과정을 거쳐야 완성본이 된다.

사전에 실리는 15만여 개의 표제어는 지관 스님이 1982년부터 하나씩 정리해 놓은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한다. 연구원 본관 2층 벽면 하나를 모두 메운 금속 캐비닛에는 스님이 사전을 오려 붙이고, 직접 써내려간 흔적이 가득한 표제어 카드가 빼곡이 들어차 있다. 또 다른 벽면에는 이미 나온 사전은 물론이고 최근에 외국에서 발행된 사전이 한 가득이다. 마감교정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 이를 추가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전 편수지침만도 A4 용지 24페이지나 돼, 이를 기준으로 사전이 만들어진다.

특히 <가산불교대사림>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부터 <조선왕조실록>까지 각 시대별 대표적인 역사서에 기록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원에서 직접 색인으로 만들어 사전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전이 모두 발간되면 한국학 연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연구원 기획실장 현원 스님은 "사전 15권이 모두 나온 후에는 <한국불교인물사전>, <한국불교역사사전>, <동아시아불교인물사전> 등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 사전을 단순 번역하지 않아 한국불교의 자주성을 지켰고, 저자의 해석을 배제해 몇 십년이 지난 후 후대가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6>

고려장과 존엄사(尊嚴死)

첨단 의학 고통 · 죽음의 공포 반영
욕망 · 집착 놓고 담담히 '몸'을 벗자

생명체는 반드시 죽어 그 개체가 소실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사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죽어 남는 것은 한줌의 재이거나 묘지 속의 썩어 버린 뼈 조각일 뿐이니, 마치 바람이 어딘가에서 불어와 어디로부터인지 사라져 가는 것과 같다.

죽음은 곧 욕망이 소진해 가는 것과 같다. 삶의 바닥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몸을 받는 순간부터 개체 유지와 종족보전이라는 욕망 하나로 이 사바세계 속에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펼쳐지는 데에 기여하지만 결국 그 자신은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져간다.

한편, 욕망의 속성은 집착이기에 생명체는 지금 살아있다는 현상에 집착하게 되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도 그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비록 이러한 노력을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죽음 앞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집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오용(誤用)될 가능성이 많은 안락사와는 달리 '존엄사(尊嚴死)'라는 죽음에 대한 본인의 적극적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아직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안락사(安樂死)에 대한 논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혼란스러운 입장을 대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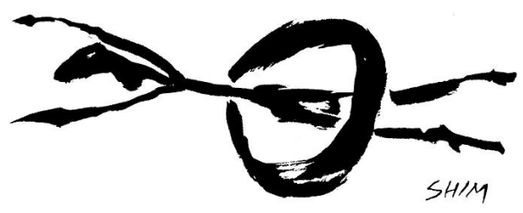
지금은 과거와 달리 생명연장술의 도움으로 죽어야 할 사람도 소생시키고 있지만, 많은 경우 목숨만 연장하고 있는 사회적 식물인간을 양산해 가족과 사회적 부담 등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생명 연장일까? 생명과학이나 첨단 의학은 고통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동물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면 더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조용히 받아들인다. 코끼리처럼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조용히 무리를 떠나 죽을 장소로 향한다. 단독생활을 하던 동물은 조용한 장소에 숨어 죽음을 맞이한다. 이미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잔해져 욕망도 같이 잠들어 간다.

욕망의 만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 지금의 사회 풍조로 볼 때 과거 우리의 고려장(高麗葬)이란 풍습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짓으로 보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서로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였을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교가 흥성했던 고려에서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고려장이 있었다면 '존엄사'는 이 시대의 고려장일 수 있다. 불자라면 스스로 길들여져 있는 자기 내면에서의 욕망과 지금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집착을 되돌아보아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가거나 오는 것이 아니기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듯 때가 되면 옛 조사의 본을 받아 조용히 내가 선택해서 몸을 벗고 싶을 뿐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교통사고방지부적방석

천만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하루에도 몇천건씩 일어나고 수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교통사고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강한 "氣"가 방출되는 신비스러운 "경명주사"로 염색한 [발명특허출원중] 특수실로 삼베에 자수하여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경명주사부적방석"은 나쁜 "氣"가 침범하지 못하게하여 운전자의 심신을 안정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저희 부적패션샵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부산PSB방송 [2003.11.11]아이디어 상품으로 방영되었으며 자매품으로 교통사고예방 "쿠션"과 신기만해도 재수있는 "양말" 세트도 판매합니다.

오늘도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 한개라도 주문하시면 성심껏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 751070-52-055271 예금주 : 장기홍
◇판매대금 : 방석 33,000원 쿠션 23,000원, 양말셋트 23,000원
◇주 문 : 전 화 053)986-1355
휴대폰 011-537-1739

이사업에 관심계시는분 상담요
치질 자연요법으로 치유
참조 홈페이지: www.bujukshop.com

역술의 제왕(帝王)

역술을 알면 현생이 바뀐다 !

옛 성현의 金言에는 "군자는 재해(災害)를 예지(豫知) 함으로써 예방을 먼저 한다."고 하였다. 황제가 세 아들에게 전수하길 이 법으로 나라에 선정을 펴고, 수신을 보호하라! 만일 현명자가 없어 비법 전수를 하지 못하면 명산대산에 가서 묻어라!

- 길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 흉사는 언제 끝는가?
- 근심과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가?
- 언제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때는?
- 상대가 방문할 때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 기로에 서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산소탈인가, 귀신탈인가, 조상탈인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흉재가 발생한 뒤에 감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중생아 깨어나라! 늦지 않은가?

태산육임학회에서 기초입문, 활용과정, 임상록으로 수강생 모집!

- 포교당, 철학원, 운명연구가!
- 궁금하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 운명상담은 예약!
- 각종 비법을 전수!

도서안내

- 아베 태산 대전과 황제내경, 육임대전
- 길흉정단비법
- 실천감정법
- 감정극비전
- 초학상해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501-7번지 1층
자료구입 계좌 : 대구은행 093-08-247393 (예금주 : 손외경)
전화 053)627-0170 / 휴대폰 016-580-6654

불자님을 모십니다



날로 변해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저희 효산에서는 인등 심지위에 모양을 그려 아름답게 핀 꽃에 불경을 실어 디지털인화지로 실크코팅 처리하여 작품화 하였으며 부처님은 정근기도문을 실어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지혜로워지며, 사업이 번창하고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희 효산에 작품구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판매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작품종류
지장보살,관세음보살,약사여래불,윤회의등불
벚꽃3송이,나비,NS꽃,왕관꽃,왕관,제비꽃,진달래,
토끼풀,봉선화,매화

효산

구입문의 및 상 담
Tel 02)422-5335 / 02)422-0110
Fax 02)422-1144 / H·P 011-352-5097

물 맑고 산 좋은 양수리
무궁화공원

▷ 서울에서 40분 거리의 편리한 교통
▷ 북한강이 보이는 명당의 산세
▷ 온 종일 비추는 일광조건
▷ 다양한 형태의 묘지설치
▷ 수도권 최고 저렴한 가격
▷ 이장 무료상담

상담전화 : 031-775-0114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 화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입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귀 휴양할분
- 공기맑고 물 좋은 산간벽지
- 경북 八公山 북쪽 명당길지
- 향토 온돌방 1인 1실
- 불사에 도움주실분 환영
- 공양주 급구(보수 50만원)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암·중풍 기적의치료
견성한 스님이 중국의 고대치료술인 포기회생술과 천도의식으로 **말기암, 중풍** 환자에게 새생명을 드립니다
무료상담환영
031)674-8880 청룡사
017-217-2219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경북 칠곡군
011-529-0008
054)975-0008

토굴이나 기도정진 할 수 있는 촌집구합니다
▷부산, 경남권
010-9944-8777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4.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명리학 강좌
기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용신, 운세,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4. 4. 7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2004. 4. 9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정통풍수지리 강좌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4. 4. 9 (주 · 야간반 : 2개월 완성)

특전 (1) 월요일~ 일요일까지 중복수강이 가능(재수강시 수강료 없음) (2) 저자 직강으로 책임지도 (3) 교재무료제공 (4) 주말반 수강이 가능합니다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토굴 작은암자 외딴촌집
(경남지역)
보시해 주실분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011-9416-2261

통영시 사량면 사찰 불사 동참할 인연을 찾습니다
인수도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하십시요
017-229-8652

비구니 기도 스님 구합니다
▷ 연령 20~40세
051)804-1164
018-801-2586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금호동관음사
017-260-3310

비구니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 서울 진관내동
02)387-3216
011-9782-3216

남자 행자모집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동해사
033)672-2900

기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안동
054)834-6934

포교비젼있음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부전(비구)자리 구합니다
019-556-6047

소백산 조계종 지장보궁에서 기도와 정진하면서 불심으로 사원을 돌볼 신심있는 조계종스님을 구합 그리고 은사처럼 모실 은사를 의지할 인연상좌를 구함
▷소백산 제2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11-9016-6453

사찰에서 일하실 기사님 구합니다
55세~60세사이 처사님 1종 면허
▷경기도 양주
031)871-0101

기도스님 원하는 사찰 연락바랍니다
011-9597-6811

급 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조계종 사찰
02)386-0926
011-9576-9947

자연치유 의학 연구센터
백초대체의학 수기연구소
"지장보살 원력입은"
※ 佛心의氣로 신비의 원력 함께 나누는 삶의 원력!!
※ 「당신도 건강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분
· 불면증, 우울증
· 생리통, 생리불순
· 늘 피곤하면서 의욕이 없는 분
· 허리, 목DISK로 고생하는 분 (초기디스크)
· 만성 변비, 요실금, 소화장애
· 좌골신경통, 중풍 예방관리
· 어린이 스트레스 특별관리
신비의 氣
※ 수강상담
스님이나 불자님들 특별지도 함
법연거사 합장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예약 상담 02-733-0550 / 011-237-0550

종무원 구함
▷유명기도처
▷숙식가능한 남,여
▷급료 50만원 이상
▷기도, 염불스님 모심
▷八公山갓바위 약사암
총무
011-537-5012

모 집
부전스님 1분, 처사 1분
법당화주보살 1분
매점(기념품)보살 1분
공양주 1분
▷나이 : 30~50세
054)383-8032

종무소직원을 구합니다
▷숙식제공
▷천안아산부근은출퇴근가능함
▷컴퓨터와 운전에 능숙한 분
▷월일백만원
▷25~50세까지 가능함
041)567-2841

보살행을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1.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혼자사시는 보살님
2. 정법수행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3. 나머지 인생을 보살행 원력을 가지고 계신분
4. 본인(소암)의 공무원 연금과 양평의 조그만 농장과 내가 가진 모든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분
011)9458-4024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남
055)854-5205
055)854-14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신심이 돈독한 보살님
(45~55세)
▷ 경기도 광주
011-742-8890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
사찰위치: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밑
02)993-3065

공양주 보살님 급히 모십니다
산세가 수려한 토굴에 노스님 혼자 계십니다
▷ 경주 토굴
054)776-7250
011)683-3173

행자구함
(남,여)
▷ 충북 영동
043)743-6800
011-574-9807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시면서 운전할 비구스님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 소지)
041)864-9143
011-392-6885

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대구
011-576-273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대구 현풍 비슬산
053)614-9167

스님찾음
- 허영림(속명)
- 나이: 53세 정도 ● 모친: 성기마
- 고양초등학교를 이모집에서 다녔음
- 외국으로 간다고 말한적 있음 모친이 꼭 만나고 싶어하니 연락바람

02)385-8206

대구,부산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무유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정수사 ● 주지: 제천(강종완)
● 주소: 전남 화순군 북면 수리 2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함
대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대학 분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분원 캠퍼스 설치
▶ 봉직자 과정 – 원사, 원무 자격
▶ 포교사 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례관리포교사
▶ 법사 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경면주사 100% 혜월법사의 생필(100점 한정)
신비의 부적 팔만대장경 부적을 아십니까?

팔만대장경 부적은 고탑에서 출토되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비하고 영험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영가에 시달리는 가정 입시생 사업하시는 분들께 권하고 싶고 **혜월법사가 260자 한 자 한자 기도하며 경면주사로 사경**하고 달마도를 넣어 그 기를 충만케 하고 특히 **화엄경 80권을 천일기도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 경면주사로 사경중**이며 각종 병풍 진언달마도등 불자들이 소장하고픈 많은 작품이 있어 답답하고 고민 많으신 분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보세요!



▮작품크기 : 가로 50cm 세로 120cm

www.ajeaje.co.kr
전화 055)648-5093
H.P 011-231-5094
주문신청:
농협
823031-52-042561
예금주 : 김수영

사경 기도 도량 팔만대장경 마을 건립 불사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01-5

2004 역학 컨설팅 교육생 모집
★ 모집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SBS 인생역전,KBS뉴스투데이, EBS 아름다운도전출연, 굿데이 인연법 연재)
★ 관상학 (특강)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인생역전 김재덕 운세 상담 060-605-0914

사 주 책 임 완 성
■ 수강대상 스님에 한함
전통 명리학 1:1 단기완성
(될때까지 책임지도)
■ 051)757-8879 / 011-9342-9794

運眸谷堂
목당易학연구원
작궁순통
(개인지도) 명합쇄변
☎ 969-3169 (청량리 우체국)

운세(1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능곡철학원(개인지도)
오늘의 권세와 부귀가 영원한 행복이라 단언 할 수 없으면 현재의 고민과 고통도 철학의 하나의 방편이 될수 없습니다.
학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택일, 궁합, 작명, 모든것
2. 모집 : 일반,남,여,스님 3. 교육시간 : 주 5회 1일 1시간 20분
특별 감정가 1인당 2만원 전화 감정도 환영 합니다.
서면지하철 13번 출구에서 (구)진구청 쪽으로 2분거리
- 부산시 진구 부전동 347-12(부전빌딩201호)
전화 (051)-808-3260, 휴대폰 016-878-3915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칠성탱화 점안법회 안내
■ 칠성탱화 점안식 : 4월10일(음력 윤2월21일) 오후 2시
■ 장 소 : 마음의 쉼터 큰법당
■ 문 의 : 033)3456-008 / 팩스 033)345-7025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구 스님
HP : 011-741-0867 ☎ 02)962-0867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부지 : 267평 / 가액 : 6천5백만원 (급매)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3억3천 (급매)
- 위치 : 경기도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3천(전세)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배운사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 가액 : 2억

033)766-005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사찰 안내

- 위치 : 정동진 (바다 바로앞 위치) 전망 최고
- 사용가능 부지 83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1동은 건물등기 돼있음
- 즉시 법회 가능

033)644-5797

도심속 최고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전주역 전북대병원 전북대부근
-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대지 8×6미터 코너절 116평 건평 120평 대웅전 21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 부처님순금 4자반 삼신불 부처님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 자신있게 갖춘도량 매매금 총 4억8천중 준비금 2억 7천이며 개인사찰 등기 완료 좋은조건
- 매월 일백만원나옴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최고도량
- 절앞 4월초파일행사등 90% 자세한 이야기는 답사후 의논 주인직거래

010-3166-8483 ※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소도시 산아래
- 대지 : 13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3천(급매)
- 철학최고자리
- 서울면적 35평
- 2천만원에 월세 50만
- 경북 소도시 사찰
- 가액 : 1억 3천만원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특별조건: 납골탑(100기) 시설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415-6831

사찰 및 부지안내

- 충청권 요지에 있는 전통양식사찰
- 경부,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사정원활
-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며 명당자리임
- 투자적요소를 동시 만족시킬 수 있는 충청권요지
- 가액: 10억원
-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016-9558-030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근교
- 대지 240평
- 임법당 35평
- 요사채 18평(1동)
- 가액: 9500만원

011-878-1391
055)353-863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온천시장내
- 총 65평(3층 건물중 1,2층) 1층 공양실 2층 법당 45평(종무실, 주지실)
- 호불 500불, 인등 500, 닷집 단청릴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500만원 (법당 최고시설)

016)444-5758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 10km
- 대지: 150평 중 100평 등기
- 법당: 목조 22평
- 산신각 5평, 요사채 28평
- 시설 완벽하게 갖췄음
- 가액: 1억3천만원(답사후절충)

043)733-8186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 부지 : 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7천만원
- 위치 : 경기도 양평 용문
- 부지 : 5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양도가 : 6,500만원
-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산내면 감산리
- 땅 : 1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주방 10평
- 대지 : 200평미륵석불
- 가액: 1억3천만원

054)751-5530
018-523-990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대지: 600평
- 대웅전 25평(삼도 목조 단청)
- 요사채 45평(방7개) 기타 산신각, 용왕각
- 특징: 사찰 뒷편은 노송 숲, 앞은 평지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9-546-2116
051)727-2116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 대지: 200평
- 가액: 1천5백만원
- 보살님도 가능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033-375-1717
011-9790-988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죽장 하옥
- 경내에 300~400년 묵은 고목나무와 앞에는 깨끗한 냇물이 잘어울림
- 대지 205평, 통나무 요사 35평
- 절 10평, 전 500평 대지붙어 있음, 신축건물
- 가액 1억 5천만원

054)262-6673
011-9302-0343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38-7번지 (용인마트 옆) 대로변 옆 용인마트 옆 건물 최요적지
- 평수 42평(방3개, 거실, 법당)
-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200만원(시설완벽)
- 스님 건강상 급하게 양도

031)336-9149
011-482-914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250평 등기, 임야 100평
- 건물 : 법당 25평, 요사채 스라브 30평, 스라브 20평(등기필), 산신각, 용왕당(천연약수)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 정남향으로 사찰뒤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마을 어귀에 있음)
- 몸만 오시면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보시하고저 함
- 가액 : 1억5천만원(은행 2천 2백 별도)

011-9017-544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최고요지
- 평수 : 50평
- 가액 : 7천만원(시설비포함) 월 50만원
- 특징 : 50평 전체 국내최초로 게르늄과 맥반석 온돌방으로 이루어져 원적외선의 기를 받을 수 있음

051)248-2477

모텔 "쉬어가는 누각"

해외 이주 관계로 매매 원합니다.

- 지리산 자락 화개장터 쌍계사 부근에 위치한 "쉬어가는 누각"은 4계절 영업하는 아름다운 계곡 화개천변에 있습니다.
- 쌍계사, 칠불사, 보리암, 화엄사, 송광사가 5분 ~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녹차향이 가득한 맑고 향기로운 예쁜집 입니다.



- 사찰의 복지시설이나 신행단체의 수련회장소로도 적합합니다.
- 신행회 모임이나 가족여행 예약 받습니다.
- 화개 자연산 녹차(관아 수제차) 생산 판매 합니다.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22
전화 : 055)884-0151~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오거리
- 평수: 50평, 빌딩 3층
- 후원 1동, 방 2개, 화장실, 엘리베이터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6-787-9409

사찰 터 최적지

- 위치 : 국도 7호선과 위덕대학교(진각종) 캠퍼스 사이에 위치
-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43번지)
- 자연 녹지 9,000평
- 가액 : 평당 10만원(절충 가능)

011)9366-0210

좋은인연을 찾습니다

1. 백두대간 남단 산넘어 남해바다가 보이는 곳
2. 앞산 천왕봉, 장군봉, 천황산 자락 봉황이 알을 품은 300만평 가운데 여의주 명당
3. 겨울에 하늘의 왕자가 머물며 아침 노을이 좋은 남향터
4. 대지 300여평(종교부지) 도로전답 1000여평
5. 태백산 적송으로 지은 대웅전 30평 요사채 30여평 기타
6. 참선 수행처 내지 휴양지로 최적
7. 가액: 자신 있는분 (10) 절충가능
8. 연락처: 055-674-2202
   010-8019-4862 / 010-3913-486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대청호 유원지 접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 130평, 건평 126평 (심야전기2기)
- 법당 : 20평, 방11개

042-822-3686
018-232-3820

사찰터안내

- 위치: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 부지: 1500평(대지 600평, 전 200평, 임야 550평, 도로 150평)
- 현재 건물 3동(창고1, 주택1, 근린생활시설사용1)
- 모든시설 완벽히 되어 있음
- 좌청룡, 우백호로 배면입수의 전형적인 명당자리 ● 가액 5억

055)573-7525/011-858-8747
직접 오셔서 보시고 결정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안 법수
- 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3천
- ※제실 개조한 시골촌절
- 위치 : 부산
- 부지 : 1000평
- 법당 : 36평
- 요사 : 80평
- 가액 : 10억
- ※잘 지은 도심사찰임
- 위치 : 부산 수정동
- 평수 : 25평(포교당)
- 전세 : 300만
- 월세 : 30만
- 시설비: 약간
- ※ 동부경찰서 뒤 시장통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아파트 밀집지역
- 대로변. 주차시설 최고
- 30평. 1층.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시설 A급
- 왕쑥뜸시설. 닥트완비. 마당도 있음

053)784-779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848-3178

긴급 처분합니다

- 법당 24평 목재 완성 제품
- 한국산 육송, 품질보증함 원가로 처분합니다

011-246-2210
016-768-4324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근교 토굴, 대단위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법당 1동, 요사채 1동 (도심속 전통 한옥기와)
- 대지: 165평(등기필) 사용평수는 200평 임
- 특징: 고속도로 및 시내버스 노선 편리
- 가액 : 1억 9천만원(절충가능)
- 넓은 정원과 주차장 완비

011-245-5467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내현마을
- 대지 135평
- 시골집 방2칸, 불때는 부엌
- 가액: 1200만원

054)437-0150

토굴안내 (사찰로도 가능)

- 위치: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옥계계곡 상류
- 대지 : 400평 ● 건평 : 30평
- 전 : 1400평
- 가액: 1억원(절충가능)

054)734-5190
011-9581-9608

사찰 안내

- 위치: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시설완비 (상담 후 결정)

031)826-0376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 평수 : 약29,000평(전답 및 대지)
- 납골터 및 사찰요지
- 가액: 3억5000만원 (절충가능)

054)276-3851
011-415-565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4km 산속 2층건물
- 2층 법당 23평, 종무실 7평,
- 요사채 1층 큰방1, 방2개 식당1, 황토방 1동 2칸짜리 사용가능
- 가액: 1억2천5백만원

053)616-0004
011-9394-1215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식물원 입구
- 평수 : 40평, 방2개,
- 주방, 화장실
- 전세 :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598-867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 중심가
- 대지: 203평
- 현거래 시가: 250만원(5억 7백만원)
- 사정상(급) 평당 195만원 3억9천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 5층, 7층탑 백년이상된 고목 2구루 ● 포교적합지
- 화장실 수세식 4칸, 주차 7~8대 가능
- 주인직접

010-3133-001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 대지 907평
- 법당 15평
- 지장전 50평
- 삼성각 5평
- 요사채 33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21-567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재전철역 부근
- 평수: 약 40평 1층
- 전세금 시설비 포함 6200만원

02)3216-1118
016-499-1232

포교당안내

- 위치 : 포항시내(우체국 뒤)
- 법당 21평, 삼존불, 탱화, 사리탑 (몸만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전세 500만원에 월 40만원 (권리금 300만원)

011-9207-5296(스님)
016-520-7623(카관리)

사찰터안내

- 충북 단양에서 영월사이 소백산 및 산좋고 물좋은곳
- 대지: 780평, 전답: 1600평
- 평당가: 25000원
- 주인 보살 직접
- 절충가능 급매

011-9408-6422
043)648-6422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작전동 대로변 버스정류소앞 상가건물2층
- 평수: 35평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32)549-8634

토 굴 안 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봉화 현동
- 대지: 300평, 밭 3300평
- 자동차 진입가능
- 해발 700고지 터닦기 완료, 방2개, 부엌1개
- 가액: 7000만원 (절충가능)

011-9759-504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서울과 춘천 지하철 공사중 사찰과 700m 떨어진곳에서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중
- 산세수려하고 경치 좋음
- 대지 : 1860평(임야포함)
- 지장전 : 10평, 산신각 : 5평
- 평당 : 20만원

011-823-356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
- 대지 907평
- 법당 15평
- 지장전 50평
- 삼성각 5평
- 요사채 33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21-567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재전철역 부근
- 평수: 약 40평 1층
- 전세금 시설비 포함 6200만원

02)3216-1118
016-499-1232

포교당안내

- 위치 : 포항시내(우체국 뒤)
- 법당 21평, 삼존불, 탱화, 사리탑 (몸만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전세 500만원에 월 40만원 (권리금 300만원)

011-9207-5296(스님)
016-520-7623(카관리)

사찰터안내

- 충북 단양에서 영월사이 소백산 및 산좋고 물좋은곳
- 대지: 780평, 전답: 1600평
- 평당가: 25000원
- 주인 보살 직접
- 절충가능 급매

011-9408-6422
043)648-6422

포교당안내

- 위치 : 인천 작전동 대로변 버스정류소앞 상가건물2층
- 평수: 35평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32)549-8634

토 굴 안 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봉화 현동
- 대지: 300평, 밭 3300평
- 자동차 진입가능
- 해발 700고지 터닦기 완료, 방2개, 부엌1개
- 가액: 7000만원 (절충가능)

011-9759-504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서울과 춘천 지하철 공사중 사찰과 700m 떨어진곳에서 4차선 준고속도로 공사중
- 산세수려하고 경치 좋음
- 대지 : 1860평(임야포함)
- 지장전 : 10평, 산신각 : 5평
- 평당 : 20만원

011-823-3562

포교당안내

- 30평(3,4층): 방3개,
- 부엌1, 법당, 욕실1
- 1500만원, 월세 60만원
- 4호선 한성대입구역 도보5분

011-732-6933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약30평
- 전세금: 2천3백, 월세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위치양호, 시설깨끗, 즉시법회가능 (시설비는 대폭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011-597-6700
051-524-810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대로변 앞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23평, 법당, 방1, 시설A급
- 3층건물에 3층
- 철학관으로도 적합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1천7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포교당 최적합지

- 위치 : 철원 향교 철원 읍내
- 목조건물 20평
- 요사채 2동(20평, 25평)
- 약수터 있음
- 부지 820평
- 가액 2억3천만원

011-804-03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명덕시장앞 영대병원전철입구
- 법당(40평) 후불, 신중, 시왕탱화
- 현재 기존신도 150평 수행공부중
- 가액: 시설비 25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2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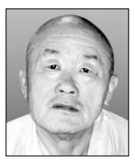
011-9850-2946
053-653-0287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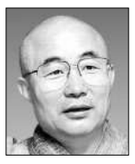
성북서 경승실장에 취임

서울 내원사 주지 정수 스님은 3월 25일 성북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추대돼 오는 4월 15일 오후 6시 경찰서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02)922-0112



와불 봉안 1주년 기념법회

포천 성광미륵사 주지 성광 스님은 4월 11일 미륵사 대웅전에서 세계 최대 단일석상 열반 와불 봉안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31)544-0048



충청도 등 한국불교성지순례

일본 오오사카시 관음사 주지 원연 스님은 3월 17~22일 교포불자 7명과 함께 충청 · 경상 · 전라도 일대로 한국불교성지순례를 가졌다.



법당이전 기념법회

성남 해원사 주지 해원 스님은 최근 법당 이전을 마무리하고 3월 28일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을 초청, 법문을 들었다.



수필집 출판 기념회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은 4월 6일 오후 6시 30분 보령시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수필집 출판기념회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천성산으로 생태기행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법 스님은 4월 11일 고속철 관통위기에 처한 천성산으로 생태기행을 떠난다. (062)263-4742



서귀포 칠십리 국제 걷기 대회

동국대 건학100주년기념사업 선상규 본부장은 3월27~28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 등 1만2천여명이 참가한 '서귀포 칠십리국제걷기대회'를 열었다.



간호사관생도 입교 환영법회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재순 준장은 최근 교내 약천사 법당에서 48기 불자 간호사관생도 입교 환영 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총동문회장에

서예가 윤상민 씨가 3월 21일 안양시 한마음선원 본원 대법당에서 열린 청년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조홍인 회장은 3월 29~30일 김제 금산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복지 건강사업 등 전개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

위덕대학교 제3대 한재숙 총장



"개교 8년 만에 외형적으로 장엄한 골격을 갖춘 위덕대학교가 여성을 신임총장으로 맞이한 것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미처 손닿지 않은 부분을 닦고 가꾸라는 데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월 23일 위덕대학교 URIS관(Uiduk Region Innovation System, 위덕지역혁신센터)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가진 위덕대학교 제3대 한재숙 총장(사진)은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학경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장은 취임식에서 △책임경영의 기풍확립을 통한 경쟁력있는 대학 조성 △취업관련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취업에 강한 대학 이미지 확립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민의 사랑받는 대학 조성을 대학경영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URIS관은 지역복지 발전에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위덕대학교의 센터가 될 것"이라고 밝힌 한 총장은 대외 중점사업으로 영천, 포항, 영덕, 울진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농어촌 고령자 복지사업과 체육관 건립을 통한 사회체육 활성화를 꼽았다. 또 외식산업학부를 신설하고 학교 브랜드의 건강 · 자연식품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총장은 "체육관 건립과 학교브랜드의 식품개발 생산은 수익창출로 연결되면서 학교재정자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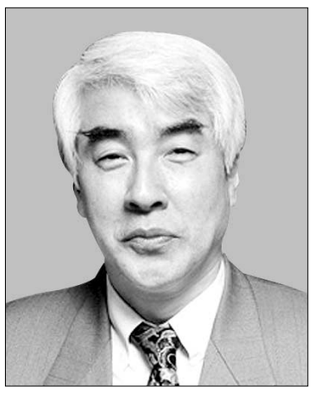
한 총장은 "학생수와 예산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홍보를 통한 학생유치가 될 것"이라며 내년 입시에서의 학생유치를 큰 과제로 꼽았다. 또 우수신입생 유치계획으로 학교의 대표 운동종목을 선정하여 4년 장학금의 운동 특기자 선발과 장학금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한 총장은 "위덕대학교가 외부적으로 볼 때 진각종 종립학교로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투명한 재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제교류를 통해 종립학교로서 불교문화의 강점을 전달하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환경 · 생명과학 관련 연구에 중점

창립 30주년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



"30주년을 기점으로 응용불교 연구에 주력하고 학문과 신행을 겸비한 한국불교연구원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4월 5일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정병조(동국대 윤리문화학과 • 사진) 교수는 "1974년 연구원이 창립되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불교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할 시점"이라며 "불교역사나 철학연구에서 환경, 생명과학 문제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연구로 내적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 외에도 4월 중순경에는 연구원을 서울 종로로 이전하고, 5월 18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창립 기념식에서는 연구원 산하 보현장학회의 제1회 보현학술상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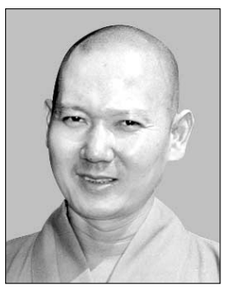
정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 가족들은 재가불자들이 쉽게 신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도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는 "기도문을 한글화해 기도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화두선 위주에서 벗어나 명상이나 위빠사나 등 재가불자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신행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립 취지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불교의 해외선양'을 위해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영문서적을 빠르면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정 교수는 "해외선양 방법 가운데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문 서적을 만들고 있다"며 "기본적인 한국불교 약사(略史), 한국불교 위인 열전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불교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출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신진학자 발굴 연구 여건 마련할 터"

한국선학회 새회장 현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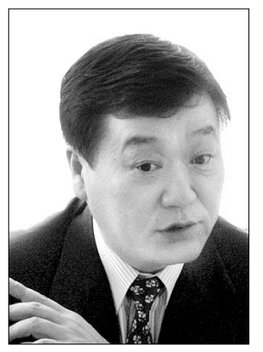
"'한국선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의 선학(禪學)을 대표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진학자들을 발굴, 이들이 활발히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20일 한국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추대된 현각 스님(사진). 초대 회장도 역임한바 있는 스님은 4월부터 시작되는 2년의 임기동안 매월 정기학술발표를 통해 회원들의 꾸준한 연구를 독려하고, 신진학자 등용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오유진 기자

"양 · 한방 협진 체제로 특성화"

배성한 일산불교병원 개원추진단장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개원추진단장 배성한 교수(의과대학 • 사진)는 3월 24일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의료 장비 구입대금 250억원을 포함해 총 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자로 개원추진단장에 임명된 배 교수는 일산 불교병원에서 가진 교계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료기자재 리스 100억 원을 포함 380억 원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120억 원 정도는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개원 일정은 어떻게 되나?

"병원장 선임과 경영방침 확정 등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적인 실무 집행에 들어간다. 12월까지 장비와 각 분야별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2월 시운전과 함께 시험 진료를 한 후 3월 1일 정식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에 종합병원이 3개나 있는데….

"최고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진료 부분에서도 전문화 · 특성화와 함께 양 · 한방 협진 체제로 승부를 걸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컨설팅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주민들의 양 · 한방 협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주변 택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2010년이면 핵심진료권 내의 예상 고객 규모도 작게 잡아도 38만 명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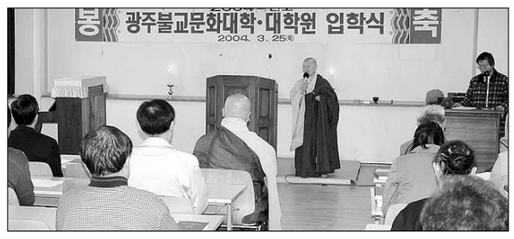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화재 피해 형제에 헌혈증 등 전달



경기도 분당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당동의 준호 · 상호 형제를 위해 조계종 통도사 분당포교원 장안사 신도 및 복지관 직원들이 모금한 헌혈증서 104장, 성금 150여 만원을 3월 23일에 전달했다. 성화 스님은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불교문화대 · 대학원 입학식



광주불교교육원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행법)과 문화대학원(원장 이순규) 입학식이 3월 25일 불교문화대학 강의실에서 열렸다.

90여명의 신입학인이 참석한 이날 입학식에서 행법 스님은 "배움과 실천을 겸비한 불제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한글에너지 전문점 및 사원모집

한글에너지를 만난 당신은 건강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게 생각하면 살충제, 중금속 등 유해성분과 공해로 인한 유해공간에서 간단하게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등 야외, 가정에서 영원히 휴대해야 할 현대인의 필수품, 가정에서 살충제 해방!! 간편하게 카드 한장으로 발 냄새 제거, 벌레퇴치

21C 새로운 에너지
color neutralize wave(중화파장)
color dry wave(건조파장)
수맥방어, 혈압, 혈당, 체중조절

특명1 : 발 냄새를 잡아라
특명2 : 수맥파장을 잡아라
특명3 : 음식 유해성분을 잡아라
특명4 : 피부(아토피성) 당뇨, 고혈압을 잡아라
특명5 : 바퀴, 개미를 몰아내라



(발 냄새 제거 카드)
(곤충퇴치, 수맥방어)
의장출원 : 30-2003-15116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환영(매일11시, 14시 사업설명) 주부사원, 공사직 퇴직자 환영 기본급 + 수당

약국, 미용실, 피부관리실, 24시 매점, 화장품코너, 지물포, 문방구, 식당, 카페, 호텔매점, 등 특약점 모집

공해로 긴장된 공기입자를 부드럽게.....
음식영양성분(입자)중금속 - 유해파장 중화, 수맥파장방어 띠벽지, 인테리어용품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4층
지방은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특약점 및 사원모집 상담 02)924-5380, 924-5382

한글음파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한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책자 - "한글은 하늘소리 불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병을 검검할 수 있는....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음파 성명의학
혈당, 혈압조절, 탈모, 피부 아토피성, 환경개선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니...

공개강좌 매일 오전 11시
제 3기 전수자 및 전국 지회 수련원장 모집

전국 시도 총판모집 한글에너지 본사 상담 02)927-3372


저자 황성현 직장
Color wave 개발자

전수내용
한글기초에너지, 한글음파 성명의학
한글음파 대체의학, 한글 성명학
한를 자음과 모음을 연구한 이름소리의 비밀!!

● 위치 : 신설동 전철역 1,2번 출구 수도학원옆 수성빌딩 3층

한글에너지 대한운공연구회 www.smile77.wo.to 상담 02)927-3372~3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
50.000원

전화 : 02)732-1522 (直)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포함)
010-6633-567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부지 : 약 600평
건물 : 90평(1층70평
법당 20평 포함, 2층 20평)
● 가액: 2억3천만원(절충가능)
덕산온천 옆 포교요지
교통편리
041)337-634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460평
● 건물: 법당11평,
요사40평, 삼성각
● 가액: 2억5천만원
011-477-7746

사찰안내
● 위치: 강북구 우이동 소재
● 평수: 100여평
● 삼존불, 지장보살,
약사여래, 108부처
● 보증금 5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6천만원
011-9119-7784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바닷가옆 버스종점
● 대지: 511평
● 2층건물(1층: 방2개, 2층: 법당 28평)
● 요사채: 41평
● 가액: 1억 3천만원
5천만원 융자가능
062)222-5587
011-609-110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교통요지
마을인접 포교당으로 최적
● 대지: 약 100평
사용부지 200평이상
● 목조 임법당, 방2개, 입실주방,
욕실, 창고
● 불사가능도량, 집기일체포함
● 가액 8500만원
011-879-479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노포동
10분거리
● 평수: 170평
● 가액: 1억2천만원
은행 융자 안고 3억
010-3012-4404

선릉역 주변 역학 강의
사무실 필요하신분 연락요망
● 사용요일(금, 토, 일)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016-828-0713
02-3453-0106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75평 방3개, 법당,
● 부엌, 화장실, 집기 일체
●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시설 일체 완비)
011-308-42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영
● 대지: 150평
● 법당: 12평
● 요사채: 25평
● 가액: 9천5백만원
016-652-7547

암자안내
● 경북 칠곡 왜관
구미시 중간지점
임법당 연꽃연못
● 정원 합 320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7-813-9126



불자 세상보기

윤 세 원
인천전문대 교수

이라크 전쟁의 '후폭풍'

요즈음 국내 · 외적으로 '역풍' 혹은 '후폭풍'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론을 무시하고 야당연합이 수적 우세로 밀어 붙여 호기롭게 단행한 대통령탄핵의 후유증으로 이 말이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계적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세계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어거지 명분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일년에 가까운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고, 공간적으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뛰는 거리를 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기묘하게도 두 사건의 배면에는 사고의 일맥상통 혹은 인간의 공통적 약점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강자 혹은 다수는 합리와 설득보다는 그들이 가진 배타적인 힘의 사용이라는 유혹 앞에 언제나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갖는다. 이 두 사건은 그 주역들이 이 유혹의 올가미에 현혹되어 일어난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후폭풍은 헌재를 통한 법리적인 측면과 4 · 15 총선을 통한 정치적 측면에서 매듭이 풀어지겠지만, 이라크 전쟁의 역풍은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 그 위력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가공할 수준의 화력을 동원하면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다. 지난 3월 20일로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개시한 지 일년이 지나갔고, 한 달 조금 후인 5월 1일이면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벌인 종전 선언쇼를 연출한 일년이 되는 시점이다.

종전이 선언되고 부시 대통령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미국인의 지지에 환호작약하였다. 그러나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9 · 11사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밝혀지고, 이라크 주둔 미군들이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매었지만,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또한 부시의 공언대로 전쟁 덕분에 세계는 테러로부터 안전해지기는커녕 상시적인 테러 공포에 시달리면서 반전 여론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열차테러의 여파로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의 집권 국민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승리한 사회노동당의 사파테로 총리 내정자는 스페인군을 6월 30일 안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일 초강대국의 오만방자함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부시 행정부를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종교적 원리주의와 도덕적 결백주의 그리고 외교적 일방주의로 세계를 재단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시의 이러한 독단은 상호 의존되어 있는 세계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 기인된 것이다. 때문에 그의 정책결정은 월남전의 교훈을 너무 쉽게 내팽개친 것이었고, 걸프전의 경험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가는 것 같다.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그는 CNN를 통하여 전세계의 안방으로 생중계 된 막강한 화력과 장비 덕분에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정당성의 뒷받침 없이 행사되는 강자의 힘은 어떠한 명분과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그것은 폭력이요, 횡포다. 그것은 정글의 법칙이고, 야만의 극치이지 문명사회의 관행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 부시의 실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4년 4월'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그것은 '여성에 의한' 정치적 혁명이 될 것이다. 대표적 보수정당인 한나라 당에서 여성 당수가 뽑히고 내각 안에서도 여성각료 발언의 영향이 돋보인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어느 정당에서나 여성 정치인의 약진과 활약이 어색하지 않다. 무엇보다 4월 총선에서 40~50여명의 여성이 의회에 진출할 것이란 예상이고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양성 평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불교계 현실은 어떤가. 불교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1만2천여 스님 가운데 비구 비구니 스님의 비율은 반반이다. 그럼에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비구니스님 몫은 10명.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각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에 비구니 스님은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조차도 비구니 스님들에겐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신도단체나 포교단체에도 여성 임원의 수는 극히 적다. 조

'우먼파워'에 주목하자

계종 중앙 신도회 대의원 중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5.5%다. 한국불교계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양성평등은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다. 그것이 지난 시대 역사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왜곡되고 굳혀진 것이 전통과 관습이란 이름을 붙인 오늘날 불교계의 구태다. 불교가 미래종교를 자임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평등사상 뿌리 때문이다. 그런 교단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의 차별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7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 비구니 스님 가운데 학문적 성취도나 수행의 깊이를 널리 인정받고 세계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분들도 많다. 올해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여성 불자대회도 이 땅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 역시 이들의 능력과 활동에 의해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교 종단들은 이제 부처님 근본가르침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교단 내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식의 구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차별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징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불타는 집

"삼계에 편안함 없음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三界無安猶如火宅)"〈법화경 방편품〉

이 세상은 참으로 불타는 집과도 같다. 마음들이 이분법적으로 확실하게 갈라져버린 혼란스런 현 시국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소위 국가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정파의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자식들이 불에 타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은 미혹의 바다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법문했다.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대문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만도 수백명이나 됐다. 어느 날 부자가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 그대로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놀라서 "얘들아, 빨리 밖으로 뛰어나와!"라고 고함쳤지만, 아이들은 그 고함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소리쳤다. "얘들아, 여기 좋은 장난감이 있다. 어서 나와서 받아라." 아이들은 장난감이란 말에 뛰어나와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

현상황에서 과연 어떤 '장난감'이 필요한가. 종교계가 정치인들의 정략에 휩쓸려 함께 부화뇌동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장난감을 줄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장난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툼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는 정법의 가르침이다. 또 분열되고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아 주고, 국민들을 편가르는 정치인들에는 따끔한 질책의 장난감도 주어야 한다.

지금도 뜨거운 번뇌가 세상을 불태우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가.

■김원우(취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조계종 개혁을 위한 주문

'현대불교' 1면에 실린 조계종 개혁 10년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1994년 조계종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발빠르게 진단하고 전달해 줘 좋은 시도였다고 본다. 또한 조계종이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까지 제시되어 많은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어 재가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조계종에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얘기하고 싶다.

우선 청정한 승단의 모습을 견지해 주길 바란다. 94년 서울 조계사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후 98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교를 믿는 내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었다. 수행자는 수행자다울 때 불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불교로 거듭나는데 스님들이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한다. 현재 사찰재정을 공개하는 사찰은 극소수다. 사찰의 재산은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은 스님들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길 기대한다. 불교의 힘이 스님의 수와 비례한 것은 아니다. 나는 진정한 불교의 힘은 우리 사회에 참스승을 많이 배출할때 생긴다고 믿고 있다. 수행을 제대로 해야 참스승도 많이 나올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심 종단이다. 조계종이 바르게 서야 한국불교도 바르게 설 수 있다. 조계종이 불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서지현(이천시 관고동)

사찰에 장애인 시설을

2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지체장애인이다. 사고 전에는 나름대로 신심을 갖고 사찰에 다녔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법당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졌다. 법당에서 절이라도 하고 싶지만 들어갈 수 있는 법당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사찰이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법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법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당도 흔치 않다.

요즘 공공기관에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사찰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 450만에 달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부처님께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주어지길 바란다.

김유근(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간 방생 나서주길

나는 공주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소자다. 오래전부터 이 곳 교도소의 법회 현실을 보면서 '인간 방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보다 많은 재소자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법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수차례 이같은 뜻을 인근 사찰과 스님, 청년회에 호소했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해마다 많은 사찰에서 연례적으로 방생법회를 열고 있지만, 진정한 방생인 인간방생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인 이타행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야말로 다이아몬드 광산보다도 빛나고 꽃보다 아름다운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불사일 것이다.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전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많은 사찰과 스님들이 '인간 방생'에 나서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김진형(공주교도소 재소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2201-3333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오롯하게 되살아나는 영명사의 삼천(三千)지장보살상. 영명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장기도 도량이며 수행처로서 전국 불자들의 참배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달 품은 도량에 지장보살 원력 가득

지장기도도량 구미 영명사



지장전에서 통유리를 통해 삼천불을 보며 기도할수 있다.



삼천지장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는 불자들.



안온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흐르는 월류산 영명사 전경.

"지옥과 삼악도의 죄로 고통받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여 지옥 축생 아귀 등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의 업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월류산(月流山) 자락에 위치한 구미 영명사(永明寺). 노천에 모셔진 삼천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 앞에 서면, 지장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이 귓전에 맴도는 듯 하다.

삼천(三千)의 지장보살이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발하고 있는 영명사에는 스스로의 성불을 포기하고 중생제도를 서원한 지장보살의 지극한 자비심과 원력이 이 시대에 오롯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통도사 구미 포교당 영명사는 지장보살님을 본존으로 모신 지장기도 도량으로 지장의 본원을 믿고 스스로 지장이 되어 보살행을 행하려는 불자들의 기도처로 각광받고 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절박한 서원이 시공을 초월해 불자들의 마음에 다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영명사는 1989년 기림사에서 6년동안의 묵언정진을 마친 주광 스님이 폐사지에 터를 잡고 10여 년 동안 불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의 면모를 갖추었다.

묵언 정진 동안 주광스님은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앙세계를 깊이 체험하였고, 지장도량 건립을 서원하게 되었다. 그 원력에 의해 옥외에 삼천(三千) 지장보살상을 조성했고 지장 보궁에는 육지장, 지장왕 보살상을 봉안하며 근대 지장 신앙의 필요성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다녀가면 마음 편안" 전국불자들 참배
매일기도 생활화…매월 1·3주 토요선방
"전국 제일의 지장기도 도량 서원"

근대에 들어 지장신앙의 활성화를 부르짖은 시초 도량이라는 자부심으로 철원의 심원사와 선운사 도솔암에 버금가는 지장 도량을 발원하기에 이르렀다. 남다른 원력으로 지장 신앙을 제창해오던 주광 스님의 입적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 영명사는, 선방에서 오랫동안 수행정진해 온 지범 스님이 최근 주지로 부임하면서 재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영명사를 품은 월류산은 깨달음으로 상징되는 '달'을 품었다는 뜻으로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품은 듯 안온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흐른다. 월류산의 기운이 닿아 있는 산자락에 위치한 영명사는 산사(山寺)의 고요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산 IC에서 6㎞ 지점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마산, 울산, 포항 등지에서 불자들이 기도처로 삼기에 불편함이 없어 전국 불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8년 전부터 지장재일마다 영명사를 찾아 기도 정진하고 있다는 곽정순(73), 순조(68), 궁자(64) 세 자매 보살들은 "대구에서 이곳까지 일부러 오고 있다. 다녀가면 또 금방 오고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도량"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매주 일요일마다 삼천지장보살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현미옥 불자는 "지장전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연꽃 모양의 불빛이 나타나 빨갛게 사방으로 번지다 사라지는 묘한 현상을 경험한다"며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기도 후 마음과 몸이 너무 맑아진다"고 기도 경험을 털어놨다.

맹목적으로 지장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타력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와 선정을 닦아 해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들고 있어 영명사는 기도처로서 뿐 아니라 수행처로도 손색이 없다. 신도 포교와 사회복지사업에 남다른 원력을 세웠던 창건주 주광 스님의 뜻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있는 지범 스님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토요선방을 개설, 불자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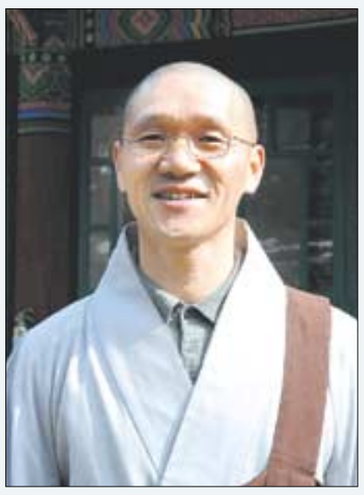
또한 매월 지장재일 정기법회 봉행과 매일 삼분기도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백일간의 백중기도와 21일간의 수자령 기도 등은 영가 천도와 조상 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기도 하다.

전국 제일의 지장 기도 도량을 서원하는 구미 영명사는 적멸보궁 통도사 말사답게 지장보궁(地藏寶宮)을 향한 서원을 키워가고 있다.

4월 6일 회향 예정인 산신각 불사를 비롯 16나한전 신축과 종각 불사를 계획하는 등 전국 제일의 지장기도 도량 조성에 영명사 사부대중의 힘이 결집되고 있다.

인 터 뷰

영명사 주지 지범 스님



"갈등의 시절에는 지장신앙이 답입니다"

"지장 신앙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인연법과 윤회를 바탕으로 참된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지장 기도는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하고 중생의 처지에서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이 시대에 되살려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바른 수행을 하도록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영명사 주지 지범 스님은 요즘과 같이 갈등이 많고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사회에서는 지장 신앙이 꼭 필요하고 그 중요성도 한층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므로 지금의 수행과 정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스님은 그래서 불자들 스스로가 지혜를 닦고 체득하는 참선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참선 지도와 요가 지도에 헌신하고 있다.

영명사는 삼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고 도량이 맑아 신심과 환희심이 절로 난다는 불자들이 많다고 전하는 스님은 "지장 기도도량하면 곧바로 영명사가 떠오를 정도로 전국 제일의 지장 기도도량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영명사 홈페이지
youngmyungsa.or.kr

산신각 건립 회향법회
4월6일 현문스님 증명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일시 : 4월 6일(음 윤2월 17일) 화, 오전 10시
증명 법사 : 통도사 선원장 천진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영명사 가는 길

※ 선산 터미널에서 영명사까지 택시 이용 약 5㎞
※ 구미역 앞 202번 노선 버스 선산터미널 하차
※ 대구 북부터미널 선산행 정기버스 매 10분 간격 선산 터미널 하차
※ 고속도로 경부선 구미 김천 중간지점 상주 방향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산 IC에서 김천 방향 약 6㎞

정기법회(지장재일) 버스운행

※ 대구시민회관 오전 8:00 출발 / 울산태화호텔 앞 7:30 출발
※ 선산버스터미널에서 사찰봉고 운행
※ 부산 교대앞 새벽 6:30 출발 / 온천장 · 양산 통도사 경유
※ 서울 버스 운행도 준비 중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내고1리 715번지
전화 (054) 482-1390
팩스 (054) 482-3492

영명사 아동복지시설 '해뜨는 집'

13명의 형제들 "언제나 밝은 마음"

영명사에는 아동복지시설인 '해뜨는 집'이 있다. 이름처럼 낮엔 해가 환히 비추고 밤엔 달빛이 스미는 그 집엔 남자아이 13명이 '엄마' 능인행(52) 보살과 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 모두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다.

영명사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85년부터다. 사회복지에 남다른 원력을 세웠던 창건주 주광 스님의 뜻에 따른 것. 97년에 '해뜨는 집'을 준공하면서 본격화된 사회복지 실천은 현 주지 지범 스님이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보듬는 보살행이 강조되는 지장 기도 도량으로서 사회복지를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 올 수 있는 집과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대학 교육이나 사회 생활 뒷바라지까지 형편이 닿는 대로 해줄 겁니다."

그만큼 지범 스님은 '해뜨는 집' 가족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아이들과의 인연을 지장보살님이 맺어줬다고 믿고 있는 능인행 보살은 자상하고 세심한 손길로 13명 아들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다.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는 영명사 '해뜨는 집'의 아이들.

예일대 입학을 목표로 책에 파묻혀 사는 성민이와 막내 민수, 직업훈련소에서 자동차정비를 배우는 유벽이까지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대견하다.

주지 스님은 빠듯한 사찰의 살림살이에도, 학습지, 교재, 학용품 등 '해 뜨는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면 가장 먼저 해결해주는 배려를 하고 있다.

매콤한 떡볶이에 부처님 가르침 가득



때로는 엄마처럼 자상하게, 때로는 상관보다 엄격하게 군인들에게 자비의 떡볶이를 전하는 이청자 보살.



군포교에 앞장서는

강노식 · 이청자 부부



한달에 한번 떡볶이 봉사 5년째

유연, 강직함 심어주는 법문 전달

자녀 모두 불교 일 든든한 후원자



강노식 포교사는 언제나 참나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강조한다.

"아저씨! 그릇들은 이쪽으로 옮겨야지…. 아이구, 저 아저씨 좀 보게. 고추장을 그만큼 넣으면 어떡혀?

3월 21일 종교활동이 진행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75사단 철마부대 군법당. 여장군 못지않은 기세로 군인들을 호령하는 이청자(62 · 보현경) 보살과 함께 한 쪽에 쌓인 떡볶이 7말, 어묵 5상자, 각종 간식거리가 눈에 띈다. 오늘은 철마부대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떡볶이 법회'가 있는 날이다. 이 보살을 비롯한 4~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꼬박꼬박 불자군인들의 떡볶이 간식을 챙긴 지도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다.

떡볶이 법회는 이 보살의 남편 강노식(66 · 법명 지수) 포교사로 인해 시작됐다. 군에서 보기 드물게 신심 있는 불자였던 강 포교사는 중령으로 예편한 뒤 1997년 조계종 포교사가 됐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교에 뛰어들었다. 남양주 봉선사 사무장을 맡으면서 근처 철마부대, 연천 28사단 신병교육대, 청학 호국사 등에서 군법회를 지도하게 됐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철마부대에서 이 보살이 떡볶이를 만드는 동안 강 포교사는 '참 나를 찾는 행복'을 주제로 법문한다.

"군법당에서는 '수마(睡魔)'가 가장 큰 적입니다. 처음에는 불교입문서 위주로 법회를 진행하다가 오랜 고민 끝에 장병들에게 유연함과 강직함을 심어주는 메시지 전달에 중심을 두기로 했지요. 법문과 함께 장병들의 복창을 유도하면서 잠도 쫓고, 참여율도 높이고 있습니다."(강 포교사)

두 부부의 노력의 결실은 법회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보통 법회 때는 100여명 안팎의 장병들이 모이지만 떡볶이 법회가 있는 일요일에는 2배가 넘는 250명 정도가 모인다. 단지 떡볶이 때문만은 아니다. 떡볶이 속에 담긴 두 사람의 열정과 포교철학 때문이다.

"군불교의 신행활동은 이웃종교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숫자도 적을뿐더러 비교적 혜택도 적기 때문이지요. 민간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초코파이 하나, 볼펜 한 자루가 군인들에게는 종교활동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질로 그들을 유혹하는게 아니라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단 한번의 향내음, 한 구절의 부처님 말씀으로 평생 불법에 귀의하기를 바라는 서원 뿐 입니다."(이 보살)

지금까지 든든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들 부부의 자녀들이다. 강순영(34 · 법명 선재행), 수한(32 · 법명 장심), 희수(31 · 법명 광명) 씨는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 보살의 떡볶이 봉사에 동참한다. 모두 서울 원교사 일요법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는 등 신행활동에도 열심인 청년불자들이다. 또 재료준비, 차량지원 등 여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 자원봉사자들도 떡볶이 봉사를 가능케 한 주역이다.

이런 힘을 모아 군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돈보다도 떡볶이를 만들 쌀이나 사찰에서 49재를 지내고 남은 사탕, 약과 등 군인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하나가 더 절실하다. 척박한 군포교의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족의 정을 듬뿍 담은 강 포교사 부부의 떡볶이 한 그릇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글=한상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갑신년 윤달엔 천년고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투어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예수재를 행하기 전에 방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봄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 ⇒ 예천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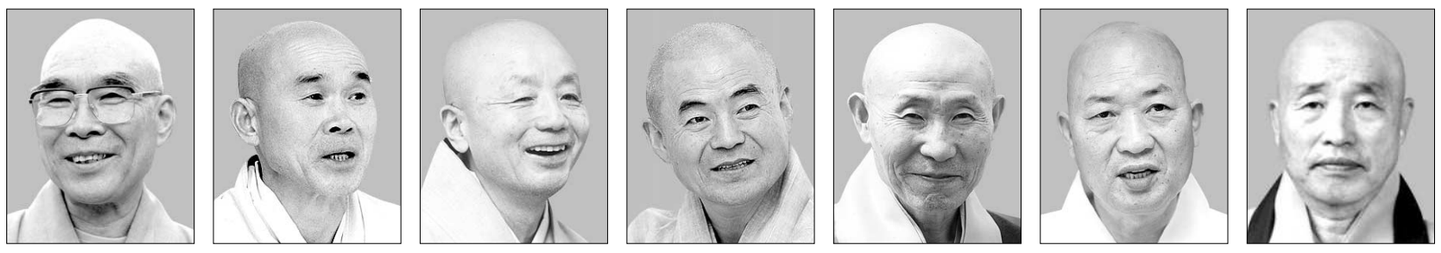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보문사 일주일간의 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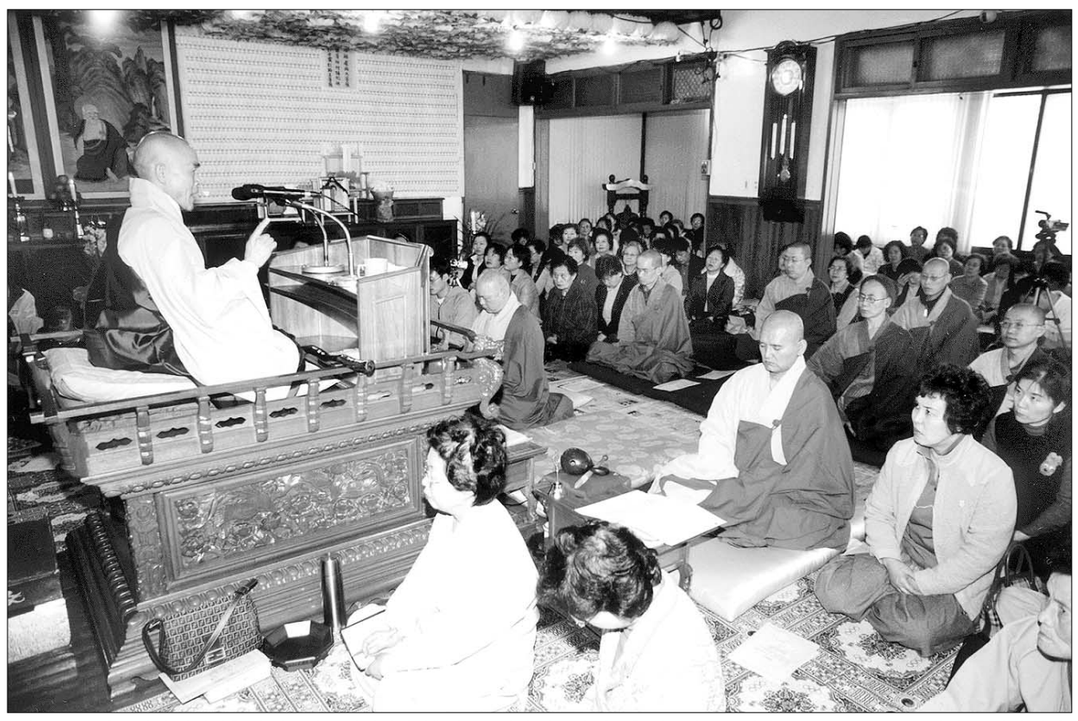
무학대사가 사자암을 세우고 선풍을 떨쳤던 서울 상도동 국사봉. 지금은 하늘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높아 '하늘 마을'이라 불리는 달동네가 들어서 있지만 이곳에는 선방 수좌들에게 만행처로 유명한 조그마한 사찰이 있다. 일반 가옥을 개조한 보문사가 바로 그 도량. 선방에서 입승 소임만 10년 넘게 살았던 선객 지범 스님이 은사 정진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일반 선원처럼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있다.

3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이곳 보문사에는 특별한 참선법회가 열렸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으로 널리 존경받고 있는 고우 각화사 태백선원장, 일오 월명암 사성선원장, 현산 화엄사 선등선원장, 혜국 제주 남국선원장, 무여 축서사 주지, 대원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혜정 법주사 총지선원 회주 스님이 매일 법석을 펼친 것이다. 특히 수좌스님 10여명이 매일 법석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 법문 경책삼아 더욱 정진할래요"



고우 스님 | 일오 스님 | 현산 스님 | 혜국 스님 | 무여 스님 | 대원 스님 | 혜정 스님



"법문 듣는 이 순간이 현재심을 잘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일오스님의 법문에 이목을 집중하는 수행자들. 사진=고영배 기자

3월 21일 첫 번째 법사로 등단한 고우 스님은 오온이 공한 이치가 바로 연기라며 올바른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시작했다. 사부대중 500여명이 도량을 가득 메워 선수행의 열기가 하늘을 치솟았다.

"최근 명상, 단전호흡 등이 유행하는데 그것이 불교의 수행법과 무엇이 다릅니까?"(강사자월 보살)

"단전호흡은 호흡에 집착하기에 올바른 수행법이 아닙니다. 다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호흡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참선 수행과 같은 성성적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에 바른 수행법이라 하겠습니다"(고우 스님)

이날 법회에서는 수행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고우 스님은 선어록과 자신의 수행 경험을 예로 들며 질문자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을 해 수행에 목말라 하는 중생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전국서 매일 500여명 동참

평생 선방에서 수행에만 전념해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오 스님이 법석을 펼친 둘째날인 22일 일오 스님의 법문만 장장 2시간 30분동안 이어졌지만 법회 동참자들은 마치 삼매에 든 수행자처럼 미동도 없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잠시 귀국해 법회에 참석한 김보장화(67 · 미국 뉴욕 거주) 보살은 "젊은이들도 2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데 60이 넘은 노장이 허리 한 번 안 굽히고 법문 하는 모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날 일오 스님은 자신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화두가 가장 잘 잡히는 그 순간이 현재심을 가장 잘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현재심에 집중하게 되면 과거심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때 지혜가 열립니다. 현재심이 새롭게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 화두법으로서 수행법 가운데 가장 수승합니다."라며 선기를 드러내 보였다.

23일 세 번째 법사로 초청된 화엄사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은 특유의 게송을 읊으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현산 스님은 "중국의 방거사는 오직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해야지 비운 것을 채우지 말라고 했다"며 "살아가면서 현상에 허망함을 느낀다면 비우고 살라"는 내용의 생활 법문을 했다. 설법이 끝나자 한 보살이 스님의 게송이 너무 좋다며 제일 좋아하는 게송을 하나 부탁하자 스님이 즉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경구를 염불로 표현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24일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 스님은 네번째 법사로 법석에 올라 "우리 참 주인공, 참나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라며 사부대중을 경책한 뒤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 법문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공과 자문자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침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못다한 것이 있다면 '내일 또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잡으세요. 이 시간이 바로 내 마음의 업장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수좌들도 지대한 관심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하나가득 웃음이 가득했고 발걸음이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당부를 했다.

평소 법문을 듣기 힘든 스님들이 이렇게 도심에 나와 법문을 한다기에 한숨에 달려왔다는 이원력행(68 · 경북 울진) 보살은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매진하라는 스님의 법문이 하나의 화두가 되어 마음속에 맴돈다"며 "먼길을 달려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6일 법상에 오른 대원 스님은 주장자를 들어 보이며 중생이 원래 부처임을 일깨워 주었다. 보살계 수계법회와 함께 열린 3월27일 회향법회에서 혜정 스님도 계 · 정 · 혜 3학을 바탕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대중설법을 했다.

일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법회에 참석한 임자성화(57 · 충남 예천) 보살은 "수행을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큰 스님들을 찾아 다녔지만 그 모두가 나의 아상이었다"며 "선사의 법문이 경책이 되어 보다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자신 다스리는 법' 배워

조실 · 선원장급 선사를 초청해 펼쳐졌던 7일간의 야단법석. 전국의 운수납자 수천명이 모여 수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3월 27일 '선사 7인 초청대법회'는 회향을 했지만 산문을 나온 선사들의 대중법문은 마치 오아시스에서 마신 물처럼 수행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그 해갈의 기쁨을 남겼다.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전국 선방을 일일이 찾아가 수좌들에게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냐며 직접 추천을 받아 7분의 큰스님을 모시게 됐다"며 "이번 법회는 선사와의 만남으로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이모저모

해제한 수좌들 매일 참석

○…법회 기간 내내 10여명의 선방 수좌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던 수좌 스님들이 대중과 함께 법문을 듣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 당시의 법회 장면을 보는 듯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수좌 스님은 "해제하면 한 스님의 법문 밖에 들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여러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찾아왔다"며 "재가 불자의 수행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더 많은 경책이 됐다"고 말했다

요사채 머물며 일주일 법문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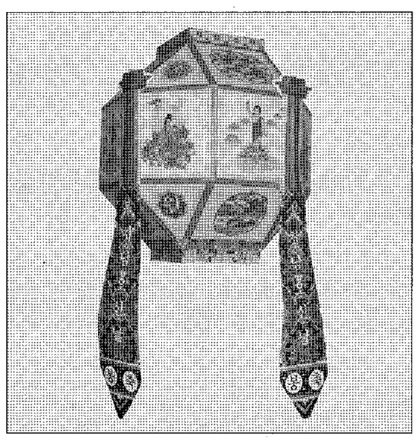
○…보문사 요사채에는 10여명의 보살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숙식을 하며 일주일간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 수행했다. 경북 울진, 대구, 충남 예산, 경기도 의정부 등에서 모인 보살들은 매일 오전 함께 기도를 함께 했고 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법회 이후에는 모두 모여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은 소감을 나누며 참선했다.

동참자 수준 높아

○…일주일간 동참한 불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2월 15일부터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는 선원장 초청법회와 봉은사 등 전국 사찰에서 열리는 큰 스님 초청 법회에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자들이 많다. 특히 공무원, 기업체 임원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인텔리 불자들이 실참 수행 중 의심이 되는 것을 법회에 동참해 큰 스님들에게 질문을 해 법회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작은 사찰의 큰 힘

○…법회 동참을 위해 처음으로 보문사를 찾은 많은 불자들은 사찰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반 가옥을 개조한데다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그마한 사찰에서 어떻게 큰 야단법석을 마련했는지 모두 궁금해 했다. 그러나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과 창건주 정진 스님이 모두 선객이라는 점과 아직도 포교를 하지만 선원에서처럼 청규를 지키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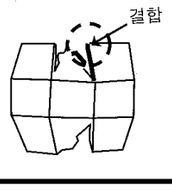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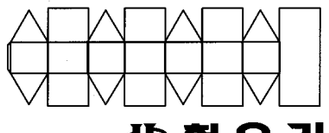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전주 군산 간 벚꽃길따라 100리, 윤달 삼사순례 오십시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주말 집중명상 했더니 생활이 가뿐하네



폐교를 보수해 수련장으로 사용하는 샨띠와남 요가수련원에서 '가족요가수련'에 한창인 사람들.

주말 프로그램 돋보이는 명상센터

어느덧 계절은 완연한 봄, 겨우내 쌓였던 몸과 마음의 근심을 털고 새롭게 발심할 때다. 자기 변화의 계기를 명상센터에서 찾는 것은 어떨까? 아침 저녁으로 짬을 내서 시도하는 자기만의 고요한 명상도 좋지만, 여유있는 주말에 명상센터를 찾아 도반들과 일념으로 수행 정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해법. 주말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명상센터들을 소개한다.

개인 근기맞는 화두·명상법 처방

◇내면 다스리는 마음수련 '밝은세상 명상아카데미'(대표 혜봉, 02-598-7180)에서는 매주말(혹은 격주말)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매번 10명 이상의 수련생들이 참여하지만, 프로그램의 시간과 커리큘럼은 정형화 되어있지 않다. 혜봉법사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근기에 맞는 화두와 명상법을 처방한다. 관법명상, 진언명상, 절명상을 비롯해 가족과 화해하는 명상이나 보리심을 고양시키는 명상 등 실제적인 삶과 관련되는 명상법까지 두루 배울 수 있다. 또한 마하리쉬 마헤기 요기가 창시한 초월명상(TM)의 정기수련회(4월 3일~4월 5일, 02-566-3152)에서도 명상과 요가를 겸한 마음닦는 수련이 진행된다.

요가·흙집 짓기 등 다양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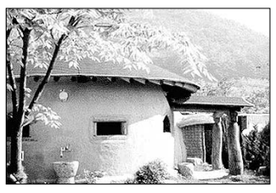
◇움직임이 있는 요가명상 고요한 참선수행이 갑갑하다면 활기찬 움직임이 있는 요가수행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폐교된 2층짜리 학교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충북 보은군 샨띠와남 요가수련원(원장 해루, 043-544-4406)에서는 매주말 1박 2일, 2박 3일 코스의 가족요가수련회를 마련하고 있다. 요가아사나와 호흡명상을 포함, 별자리여행과 생태흙집짓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 02-888-5087)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고수려한 경기도 양평 석산수련장에서 1박 2일 코스로 친목과 정진을 위한 특별주말수련회를 연다.

오쇼 마니아들 이색적인 만남

◇이벤트가 있는 명상 색다른 명상수련을 원한다면 오쇼 라즈니쉬 명상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오쇼명상클럽은 격주에 한번씩 신사동의 명상센터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02-3444-7582)'에서 토요명상모임을 갖는다. 국내외 산야신(오쇼 라즈니쉬 제자)을 비롯한 오쇼 마니아들이 대거 참석하는 토요모임에서는 쿤달리니 명상, 만달라 명상, 나다브라나 명상, 데바바니 명상 등 온몸을 움직여 정화와 이완을 이끌어내는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미니 댄스명상 등 매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쏠쏠한 재미도 더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 경기도 광주 '나시브의 집(031-765-9774)'에서 열리는 오쇼명상 모임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오쇼축제현장(맨위)과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의 삿상현장(가운데). 크리슈나나스 아쉬람의 아루나찰라홀(왼쪽)

토굴에서 인도식 수행을

◇자연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명상 경남 창원의 한 촌락에 가면 국내 최초의 인도식 수행공동체인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055-299-6379)'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의 제자 '슈리푼자'에게 사사받은 김병채(창원대) 교수가 운영하는 아쉬람으로, 매주 토요일 8시부터 삿상(법회)을 통해 '스스로가 깨달은 존재(참나)'임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모양의 토굴들이 어우러진 이곳 아쉬람에서는 누구든지 편안히 묵으면서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명상음악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청소년 명상수업 심신 건강에 한몫

명상이 10대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벤(The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school) 박사는 지난 3월 10일 '초월명상 수업 도입을 위한 교육회담'에서 "하루 두 번 초월명상(TM) 시행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순화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디트로이트 중학교에서 초월명상을 시행하는 학생들이 타학생들보다 정서적으로 더 양호할 뿐만 아니라 적응력도 높았다"며 "다섯 중 한 학생 꼴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명상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바네스(Medical college of Georgia) 교수는 4월 2일 발행될 <American Journal of Hypertension>을 통해 "초월명상의 시행은 10대들에게 고혈압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56명의 고혈압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하루 두 번 15분간 초월명상을 실시하도록 하게 한 결과 혈압의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上)

생태운동 통해 자비심 세계로

"사방이 산이고 황갈색에서 연초록까지 다양하면서도 따뜻한 색조를 띤 거대한 산정들의 고원 '작은 티베트' 라다크. 황량한 모래와 먼지구름이 자욱한 이곳을 '정토(淨土)'라고 부르기엔 왠지 어색하지만 무욕, 무소유로 사는 웃음띤 얼굴들을 보게 된다면 생각은 이내 바뀐다. 공(空)의 철학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미술과 음악, 문화와 농업에 불교는 뗄 수 없이 스며들어 있다."

서구식 근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로, 한국을 비롯해 32개 국어로 번역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의 저자이자 생태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55). 그녀는 천년이 넘게 티베트 불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자급자족의 삶을 꾸려 온 히말라야 고원 라다크의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찾는다. 스웨덴 출신의 여성학자인 호지는 16년간의 현지체험에서 목격한 '근대화 과정'에 따른 유서깊은 공동체의 생명력과 불교적 삶의 상실을 우려하면서 그 해답을 화엄의 연기사상에서 찾고 있다.



라다크에서 空 깨닫고 脫중심화·反개발 앞장

호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라는 공의 자비심을 타고난듯이 보였다. 마을사람 타시의 입을 빌려서 호지는 이렇게 말했을 정도다. "비와 바람과 땅이 나무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속의 모든 것이 나무를 나무로 만들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성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사물은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호지는 지식과 이해는 그것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며, 자비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라다크인들처럼 자비심은 이른바 깨달음의 방법이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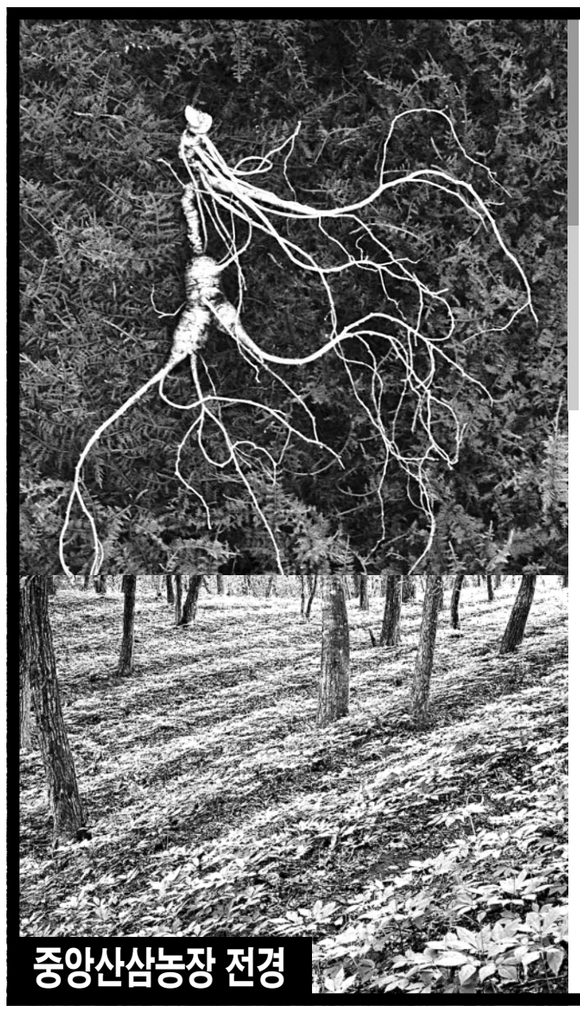
호지는 1974년 인도정부가 관광객들에게 라다크를 개방하면서부터 자비심으로 뭉쳐진 불교적 삶이 파괴돼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가고 있는 이들을 염려한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오늘날 세계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인간의 본성, 미래에 대해 불만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나약하게 하지요. 하지만 '대안운동'에 참여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안운동이 계속 커가는 이유입니다. 대안운동은 자아를 다시 존중하는 방법이며, 공동체와 삶의 기쁨을 되찾는 방법이니까요. 이러한 자각은 라다크에서 그렇듯 전세계 다른 곳에서도 바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다크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었다. 서구문명의 개발위주 논리는 결과적으로 환경과 인간심성의 파괴를 가져왔으니, 어찌 라다크 뿐이겠는가. 호지는 <오래된 미래-라다크에서 배운다>에서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75년 북인도 라다크에 언어연구를 위해 왔다가 개방과 함께 산업화로 붕괴되는 라다크를 16년간 지켜보면서 '폴리티칼 에콜로지스트(실천적 생태주의자)'로 변신한 호지. 영국과 독일, 미국에 사무실을 둔 '에콜로지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 책임자인 그녀는 반세계화와 탈중심화, 반개발을 위한 국제연대운동과 함께 라다크에서 '환경개발그룹'과 '여성연맹' 일에 참여하고 있다. (계속)

김재경 기자


중앙산삼농장 전경

산삼을 싼 임야에 심어 부자된다!

누구나 손쉽게 야산이나 악산에 산삼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윤택한 노후생활 설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명예퇴직 하신 분이나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안전한 작물, 경제성 1위인 산양산삼 사업을 적극 권장합니다. 성공을 체험 하십시오.

현재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고 있는 분이나 확실한 곳에 투자할 분께 최적입니다. (1평에서 500만원 이상 수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산 산양산삼의 효능이 뛰어나 고가로 판매되고 현재 선도금을 받고 출하되므로 판로가 확실합니다.

산양산삼 한뿌리에 30~50만원선에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자금회수가 빠릅니다.

경사도가 심한 악산이나 야산 및 전답에도 한번 식재 후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재배관리가 손쉬운 작물입니다.

종자나 종근은 현재 출고중이며 농장 방문시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산에서 직접 자라는 광경도 보시고 종자 종근이 필요한 희망자는 속히 내원 바랍니다.

중앙산삼농장은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에서 산삼 재배 기술 및 육종을 연구, 생산하는 농장이며 영농조합법인 고려산삼연구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산양산삼 재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 지금 투자 하시면 적기입니다.
KBS 3월3일 오후 7시 '뉴스네트워크' MBC 3월 21일 '고향은 지금' 방영

중앙대학교
인삼산업연구센터부설
중앙산삼농장 중앙산삼박물관

고려산삼연구원 영농조합법인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2 삼영B/D 901
TEL : (02)562-3379 FAX : (02)564-3405
농장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215번지
TEL : (033)462-3489 FAX : (033)462-3483

주장자따라…

⑬ 금오 스님의 '출국증명서'

조태호



금오 스님(1896~1968): 전남 강진 生. 16세에 월정사서 득도. 직지사 · 쌍계사 등서 조실을 지냈으며 1955년 조계종 부종정에 추대됐다. 1954년 이후 '정화'에 주력했다.

네티즌 교리문답

'일체유심조'란?

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무슨 뜻인가요? 본래 마음 뿐이란 것인지? 아니면 인식상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ID '학인')

답1: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인식이라는 관념도, 마음뿐이라는 관념도 모두가 부질없는 달그림자 같은 것. (ID '아메중생')

답2: 원효 스님은 "심생즉 종종법생(心生則 種種法生)이요, 심멸즉 종종법멸(心滅則 種種法滅)이라. 일체(一切)는 유심조(唯心造)요, 만법(萬法)은 유식(唯識)이로다"라고 했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고 마음에 따라생긴다는 것이다. (ID '원효제자')

답2: '일체유심조란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사적(事的)으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쓰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니 자유를 누릴 것이며, 이적(理的)으로 보면 일체는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자기'라고 내세울 실체가 아닌 것이니 끄달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마음만 벗어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ID '성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㊲

불립문자(不立文字)-10



의사소통 주제 · 환경 따라 변수
분별 넘어선 체험 전달 불가능

우리는 의사전달을 위해서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각종 소리와 기호, 몸짓 등 온갖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한다. 인류가 갖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 크다. 경험과 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대대손손 전달하며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개체, 한 세대가 각자 직접 체험으로 학습하여 얻는 지식만으로 환경에 근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축적된, 그리고 다른 개체와의 의사소통으로 얻게 되는 간접 경험, 간접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뛰어나고 정교한 의사소통 수단은 역시 말과 글이다. 그러나 말과 글조차 완벽한 의사소통을 이루어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였다.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될 것이다. 의사소통의 원천적인 한계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한계는 대화의 주제, 환경,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정도로 나타난다. 가령 내가 가구점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어떤 의자를 가리키며 "이건 나무네!"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점원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때 "나무"라는 말은 목재라는 뜻이지 산이나 정원에 자라는 소나무, 참나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대화 당사자들이 굳이 해명을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이 같은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옆방에서 누군가가 "이건 나무네!"라고 내게 말을 걸어오면, 그 말만으로는 그가 목재로 된 어떤 물건을 보고 그러는 것인지, 다른 무엇을 보고 그러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그나마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과 지식, 언어 습관을 많이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물건을 놓고 얘기할 때이다. 그런 현장에서 멀어질 수록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말 그 자체, 글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제와 환경, 맥락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대개 말과 글의 그러한 한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도 그럭저럭 넘어간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말과 글을 적절한 정도보다 훨씬 지나치게 신뢰하고 그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언어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말과 글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의식에 틀을 지우는 힘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일 터이다.

주제가 추상적인 것이나 내면의 체험으로 갈수록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기가 어렵다. 특히 세상의 통합성에 대한 내면의 체험, 즉 불이적(不二的)인 체험을 온전히 말에 담아 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어법의 틀 자체가 이미 분별적이기 때문이다. 분별을 바탕으로 해서 작동하는 어법을 구사하여 분별을 넘어서는 체험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주제이다. 언어도단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쓰지만, 원낙은 말의 길이 끊겼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문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말의 길이 끊겼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함은 곧 분별의 틀을 가지고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3>



현승우바이의 법문

경계 없는 청정함으로 덕(德) 나타내
육근 지혜롭게 다스려 깨달음 실현

선재동자는 선지중예동자로부터 마가다국의 한 부락에 있는 바다나라고 하는 성(城)에 살고 있는 현승(賢勝)우바이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현승우바이를 찾아가 예배하고 나서 가르침을 청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다. 이미 스스로 깨우쳐 알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한다. 또 다함이 없는 삼매를 얻었으니 저 삼매의 법이 다함이 있고 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눈을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귀를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코를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혀를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몸을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뜻을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공덕파도(功德波濤)를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지혜 광명을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며, 또 능히 온갖 지혜 성품의 빠른 신통을 냄이 다함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의지할 곳 없는 도량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의 모든 것에 집착이 없는 공덕의 행이야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하겠는가."

현승우바이가 설하고 있는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無依處道場)'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에 관한 법문은 보살의 깨달음의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떠한 것에도 물들거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청정한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켜 훌륭한 덕(德)을 무량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설하고 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인 '바다나'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 '둥글다(圓)'고 하는 의미인데, 그녀가 덕을 원만하게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익케 하고 기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현승(賢勝)'인 것 또한 이러한 의미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밝은 지혜로써 여러가지 훌륭한 덕을 실현해 보이는 것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라고 하는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법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고, 몸도 또한 의지하는 곳이 없어서 보살행을 행함에 특정한 근본적인 바탕의 모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모습으로 일체의 보살 만행(萬行)을 두루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의 법문은 항상 공(空)에 머무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량은 진실한 법이 행하여 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선지식의 깨달음의 심경(心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무상한 현실의 경계 속에서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체의 보살 만행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모든 상황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이다. 경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지하는 곳이 없는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승우바이가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라고 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다고 하면서, 또한 '다함이 없는 삼매(無盡三昧)'를 얻었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함이 없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지하는 곳이 없는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함이 없는 삼매는 다함이 없는 변화에 응하는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다함이 없는 삼매는 공(空)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없는 변화에 응하여, 한없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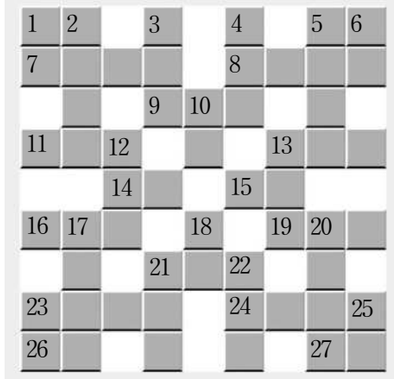
경문에서 '다함이 없는 삼매'를 얻는 법이 온갖 지혜의 성품(一切智性)의 눈 · 귀 · 코 · 혀 · 몸 · 뜻 · 공덕파도 · 지혜 · 광명 · 빠른 신통 등을 다함이 없이 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삼매의 경지로부터 여러가지 신통을 나타내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여러가지 공덕의 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승우바이의 법문을 통해서 청정한 마음의 작용을 끊임없이 일으켜 어떠한 경계에도 구애됨이 없이 항상 깨달음의 세계를 실현해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눈 · 귀 · 코 · 혀 · 몸 · 마음의 육근(六根)을 잘 다스려서 항상 지혜롭게 보고 들으며 마음을 가짐으로써, 또한 여러가지 공덕을 지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육근으로 온갖 경계에 취하여 재미와 단맛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들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여러 경계에 대한 애욕(愛慾)의 마음을 떨치고 육근을 청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림으로써 의지하는 곳이 없는 도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암자나 교당을 감찰하는 스님을 일컫는 말 5. 물건을 사고파는 일 7. 전기시설을 갖추는 일 8. 어떤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큰 규모의 모임 9.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그래프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낸 그림 11. 성(姓)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 13. 도로와 도로, 또는 도로와 선로가 서로 엇갈린 길 14. '뜰'의 방언 15. 주고받음 16. 어린이의 시기 19. 불법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보시 21. 석유를 연료로 하는 서양식 등잔 23.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24. 단체에 처음으로 가입한 회원 26. 논과 밭 27. 불교에서 생물을 그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것.

세로

1. 전기가 통하고 있는 도체(導體)에 몸의 일부가 닿아 충격을 느끼는 일 2. 왕성한 원기 3. 스스로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 4. 학문에 힘쓰는 사람 5. 두개의 차량을 하나로 만든 새마을호 열차를 지칭하는 말 6.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 10. 전하여 줌 13. 아동이나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 17.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딴판인 엉뚱한 대답 18. 한겨레, 같은 민족 20.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21. 남한과 북한 22. 사람의 키만 한 불상 23. 구리나 구리의 합금으로 만든 주화(鑄貨)를 두루 이르는 말 25. 유치원 등 '원(院)'에 수용되거나 소속되어 있는 사람.

박치기 명수 거북선의 비밀 '단단한 참나무'에 있었네

나무문화재 연구가가 30년동안 손톱만한 나무조각에서 밝혀낸 옛나무들의 사연 · 숨겨진 역사





나무로 만들어진 무석사 부량수전(위)과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

박상진 지음
김영사/1만3900원

나무는 선조들의 삶을 지켜온 '현장목격자'다. 5천 년 우리민족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나무가 빠지지 않았다. 집짓고, 음식 해먹고 살림살이를 만드는 인간생활 모두에 나무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조들과 삶을 같이했던 옛 나무의 사연들은, 바로 역사의 편린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의 저자인 박상진 교수(경북대 임상공학과)는 이러한 나무 조각을 통해 역사의 베일을 벗겨내는 나무문화재 연구가다. 그는 손톱크기 남짓한 나무문화재 조각을 붙잡고 현미경과 씨름하며 30년을 보냈다. 이 책에는 그 세월동안 그가 밝혀낸 나무 안팎의 사연들에 관한 연구 결실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 첫 결실은 1981년 일명 '신안보물선'이라 불리는 배의 재질을 분석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배의 조각 일부를 뜯어 연구한 결과 일본에서만 자라는 삼나무가 배의 재료 중에 일부 섞여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목재조직학'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계기가 됐다.

이후 그의 명성을 고고학계에 확실히 인식시킨 사건이 있었다. 백제 최대의 고분으로 알려진 무령왕릉 발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1991년, 저자는 우연히 이 무덤에서 출토된 나무관의 아주 작은 조각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모두 이 관의 재질이 밤나무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무 조각을 현미경 접안렌즈로 들여다본 그는 잠시 후 소스라치게 놀랐다. 작은 조각은 밤나무가 아니라 일본의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금송(金松)이었던 것이다. 그의 발표로 학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이 관이 일본에만 있는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 그는 평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지나쳤을 오래된 나무조각 하나에 얼마나 유장한 역사의 흐름과 사연이 담겨 있는지를 담담한 어조로 깨우쳐 준다.

그가 30여년동안 나무문화재와 씨름하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단일 나무문화재로는 최대라고 할 수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그는 팔만대장경의 전설과 진실, 그 간극을 파고든다. 그리고 마침내 팔만대장경은 자작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보는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로 만든 것이며, 제작 장소 또한 강화도가 아니라 해인사 근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책에서 이런 나무 분석 이야기들과 함께 나무에 얽힌 다양한 상식들을 구수한 옛이야기 들려주듯 쏟아낸다. 나이테란 나무가 자랄 당시의 환경을 켠켠이 기록한 '자연의 하드디스크'이며, 거북선이 박치기 명수로 일본 함선들을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참나무로 만드는 조선 군선의 특징 덕분이었다는 이야기 등도 이어진다. 또 신라 천년의 신비인 천마도의 캔버스가 된 백화 수피(흰 나무껍질)는 방부와 방수 성분을 가지고 있어 수천 년 땅속에 묻혔어도 거뜬히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를 망하게 한 것이 나무, 즉 숯이었다는 그의 주장 또한 흥미롭다. 신라 후대의 주 연료였던 숯의 대량 소비로 인해 경주 부근의 참나무숲이 파괴돼 자원이 고갈됐고, 가뭄과 기아가 뒤따라 국가의 기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은 멀리 석장리 구석기시대의 나무 유물에서부터 안압지의 나무배, 목포 달리도배 등 고선박, 무량수전 · 봉정사 극락전 등의 건축재, 글자가 새겨진 목판 등 나무문화재에 얽힌 사연과 세월의 흔적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숲속의 나무들은 좁은 공간을 나눠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나눔의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자연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조금의 빈자리라도 생겼다 하면 주위의 나무들은 우선 가지부터 들이밀고 본다. 처음에는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면 함께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아예 몸을 합쳐 한 나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흔히 죽는 것이 낫다고 한다. 나무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숲 속에서 한세상 살다가 나이를 먹어 썩어 넘어지거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베어진다. 어린 싹이 새로 자라지만 자기 죽음의 자리를 다시 메우는 냉엄한 자연법칙을 나무라고 모를 리 없으니 흔쾌히 받아들인다."

전문가 서평



바다의 도시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지음/정도영 옮김
한길사/1만5천원

오늘날 베네치아는 영화제, 비엔날레, 그리고 곤돌라를 타고 돌아다니는 낭만적인 도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바다지향 도시국가 베네치아는 한때 '지중해의 여왕'으로 불리며 근대유럽 문명을 선도했다.

이 책은 로마제국 말기 훈족의 침입으로 이탈리아인들이 '라구나'라고 부르는 석호의 갯벌 위에서 출발한 베네치아가 지중해의 대국으로 성장하여 열강과의 갈등 속에서도 번영을 누리면서 수백 년을 버티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해 놓았다.

이탈리아에서 30년이 넘게 독학으로 로마사를 연구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눈을 통해 그려지는 이 책을 읽다보면, 독자로 하여금 마치 베네치아라는 살아 숨쉬는 주인공의 탄생과 흥망성쇠의 1000년간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한정된 영토, 인구, 자원의 '유전적' 제한을 안고 있던 이 작은 나라가 중세 1000년 동안 부국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줄 아는 사고방식과 철저히 실리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한 베네치아인 들의 합리성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합리적이고 융통

베네치아에서 배우자

1000년 富의 비결, 합리적인 사회시스템

적인 면은 사회시스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가령 현대 은행의 시원지던가, 민주정도 군주정도 아닌 과도기적 정치체제인 원수정이 그것이다. 원수 정치체제는 원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남용이 방지된 견제장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귀족은 시민들을 선도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면제받는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이 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전쟁에 대한 피해보상도 일개의 무명 선원은 받으나 귀족들은 받지 못했다. 그것이 귀족의 당연한 의무라고 베네치아의 귀족들은 생각했다. 스스로가 앞장서서 정의를 구현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화국을 위함으로써 귀족과 시민이 함께 단결할 수 있었다.

그러한 안정적인 정치기반은 경제의 풍요를 가져왔고 베네치아가 대부호들의 본거지로 화려함, 유연함으로 중세유럽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 기반위에서 절정을 누렸고 그럼에도 자유를 방종하지 않았다. 비록 도시형 국가에서 국가형 국가로 탈바꿈하는 근대로의 흐름에는 편승하지 못해 천년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나폴레옹의 군대에 항복하고 말았지만 마지막까지 베네치아다운 자세를 잃지 않았다.

저자는 베네치아공화국이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천년을 버텼으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성자(盛者)는 필쇠(必衰)'라 하였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돌고 돌며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이상적인 공화정체제로 무역과 예술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진흥시킨 베네치아 1천년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와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 임형석(FX디지털 마케팅팀장)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日 국보 1호 불상' 조성

신라일까 백제일까

미궁 속 백제 역사 20년간 추적
의문점 15가지 사실 근거로 풀어

정말 거기에 백제가 있었을까
엄기표 지음
고래실 / 1만4천원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사진 왼쪽)과 너무나 흡사한 일본 국보 1호 목조반가사유상은 그 조각기법과 적송(赤松)이라는 재질특성 때문에 제작국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원전 고구려 유민에 의해 세워져 700여 년 동안 격조 높은 문화를 꽃피웠으나 660년 신라에 의해 멸망한 '비운의 왕국' 백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료부족과 패망한 국가에 대한 승자의 역사왜곡 등으로 그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설(異說)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역사가들은 아직 백제의 건국시조는 누구이고 왕성(王城)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고미술사학자 엄기표(37 · 매장문화연구소 연구원) 씨는 '백제는 마구잡이 근대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한다. 백제에 관련한 자료로는 <삼국사기>와 중국 역사서 <구당서> 등 손에 꼽을 정도라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백제 유적지는 근대화 과정에서 마구 개발됐다는 것이다. 1971년 발견 돼 불과 11시간 만에 유물이 수습된 무령왕릉의 발굴 과정이 그 단적인 예다.

"아직도 옛 백제 영역이었던 땅 속에는 못다 한 역사 이야기들이 묻혀 있다"는 지은이는 20년 남짓 국내 유적지는 물론 일본 오사카와 교토 등 백제의 숨결이 서린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녔다. 이렇게 건져 올린 연구 성과와 관련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진정한 백제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지은이는 한국 불교미술이라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주로 불교미술사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예컨대 '미륵사지 석탑이 먼저일까 정림사지 석탑이 먼저일까' '백제는 중국 요서 지방에 식민지를 두었나', '태안과 서산 마애삼존불의 부처 이름을 무엇일까' 등 '백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 꼭 밝혀야 할 의문점과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1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던진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밝혀진 사실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국보 1호 불상은 신라가 만들었을까, 백제가 만들었을까'에서는 독일의 실존철학자 카를 야스퍼스(1883~1969)가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원만하고 영원한 자태의 상징"이라 극찬한 일본 국보 1호 목조반가사유상과 우리나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83호)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불상의 제작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일본 법륭사 몽전(夢殿)의 구세관음상이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백제사의 최대 미궁(迷宮)이라 할 수 있는 초기 왕성의 위치 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일반인들의 백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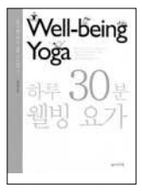
■ **<만해학보>**(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부설 만해학회 엮음, 화남, 1만원)=통권 7호.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신용하 백범학술원장과의 대담, 법타 스님의 '북한불교와 평화통일', 종명 스님의 '한국불교근현대기의 승려 노동주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



■ **<돌과의 대화>**(이소림 지음, 한누리미디어, 1만원)=광양 서산사 주지를 맡고 있는 소림 스님의 수상집. 책에 실린 20여 편의 글은 동두천 문인협회지에 실렸던 것으로, 일반인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란 무엇인가', '나의 유식론' 등을 주제로 생활 속의 이야기를 풀고 있다.



■ **<하루 30분 웰빙 요가>**(윤두병 지음, 인디북, 1만5천원)=요가를 배우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 요가교실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자신의 몸에 맞는 자세 고르기와 생명을 마시는 호흡법, 자신을 비우고 바라보는 명상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요가도 그림을 알기 쉽게 풀어썼다.



■ **<메이드인 아세안>**(김종찬 지음, 새로운사람들, 1만2천원)=불교방송 '아침저널'을 진행했던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 씨의 34번째 저서. 경제 블록화와 안보 협력 간의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고대 印 힌두이즘에 빚진 서양

동양종교와 서양사상
라다크리슈난 지음 / 김형준 옮김
무우수 / 1만5천원



동양인 최초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를 역임하고 제3대 인도 대통령을 지낸 정치가이자 현대 인도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 라다크리슈난(1888~1975). 그는 인도철학을 세계무대에 올려놓은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저서 중 인도철학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동양종교와 서양사상>은 둘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추적하는 일종의 비교종교학 또는 비교철학 책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동양종교'란 중국의 종교 사상인 유교와 도교가 아니라 인도의 종교 즉 힌두이즘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는 불교의 사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그가 1936년 10월 20일 옥스퍼드대 교수에 취임하면서 행한 첫 공개강의를 비롯해 1938년까지의 강의를 모은 것으로 1939년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서문에서 "전문적인 철학도보다 인간 문화와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높은 정신을 추구하려는 많은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라고 밝힌 그는 동양이 서양의 사상에 미친 영향은 신비주의적인 요소이며, 그것은 태초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가 훗날 과학에 그 영역을 내줬을 뿐이라고 말한다.

324 페이지를 펼쳐보자.

"서양에게 동양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험의 고향이며 마술의 근거지, 갈망의 땅이고 결국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에 확신을 주는 영원히 로맨틱한 수수께끼였다."

라다크리슈난의 저서 <인도철학사>를 번역했던 이거룡 교수는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인도철학이 삶을 부정하는 현실 도피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과 서양철학이 고대 인도의 영적인 문화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고 말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日 뿌리는…



한 · 일 전통문화 비교론
홍윤식 지음
지원미디어 / 2만원

홍윤식 서울국악예술중고교 교장(동국대 명예교수)이 우리 전통문화의 구조적 성격을 일본과 비교한 <한일전통문화비교론>을 펴냈다.

책에는 홍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과 일본 대학에서의 교수생활 등을 통해 느낀 한일 양국의 문화와 비교방법, 입장차이 등을 서술한 40여 편의 글이 담겨 있다.

1장 '한국전통문화론'에서는 한국 불교문화와 국악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구조를 살피는 '한국의 불교민속놀이', '국악교육 달라져야 한다' 등을 실었다. 2장 '일본전통문화론'에서는 일본인들의 다양한 불교종파를 한국과 비교하고 3장 '한일 전통문화의 비교와 전망'에서는 두 나라의 역사관과 문화구조의 차이 등을 비교 분석했다.

신문사 생활 20년간 맺은 인연



정말 봄은 오는가?
김상희 지음
여시아문 / 9천원

"시간에 떠밀려 잊혀지고, 망각의 늪으로 사라져가는 기록과 사람들. 나는 그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남기고 간 미련을 찾기 위해, 오늘도 이 밤에 촛불을 밝혀 이 글을 쓴다."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갤럽 등에 근무했던 지은이 김상희 씨가 막내딸에게 보낸 편지를 자신의 글과 함께 묶었다. 수술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편지를 통해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부성(父性)을 느낄 수 있다. 책에는 20여 년 동안의 직장생활과 그 사이 인연을 맺게 된 지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2	아! 붓다	틱 낫 한	반디미디어
3	불교의 이해와 신행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5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6	화엄의 바다	관응 스님	밀알
7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8	영가천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9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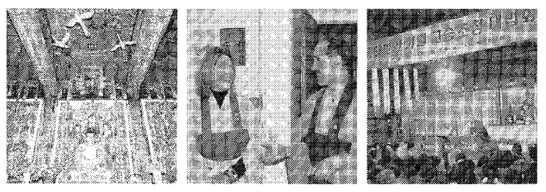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 3 · 4월호 주요 내용

특집 | 한국 불교의 선맥(禪脈), 어떻게 살려야 할까
세대 교체기 다시쓰는 한국 선종사, 한국 선불교의 맥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이를 다각도로 점검해 본다.

한국 불교의 법맥(法脈)과 선맥은 근본부터 다르다
현단계 한국선의 문제점과 과제
지금 왜 논강법회인가 – 세대 교체기 한국 선불교가 나아갈 길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을 위한 경전 읽기
『유마경』 (2) 유마힐이란 누구인가
지상중계 | 불교경전강좌
흑백논리를 비판하고 중도를 논한, 용수 보살의 『중론(中論)』

수행 –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참선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
서양인의 참선수행 체험기
승산 스님의 제자 제인 도비츠가 말하는 "나의 스승, 나의 禪 수행"

문화 속으로

마음을 맑혀주는 세계 음악여행 | 티베트 음악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 주실의 돌 지붕 ①
공연리뷰(뮤지컬 '맘마미아') 연기설에 의한 자아찾기
성보박물관을 찾아서 | 수덕사 근역성보관(槿域聖寶館)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 불전의 하늘궁전, 닫집(논산 쌍계사 · 완주 화암사)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 은행나무
내가 만난 불교문화 | 불교 건축학자 김정기
등잔 밑을 밝히는 사람들
– 뮤지컬 연출가 이광열('오세암') · 박근형('나부상화')
서양 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 '로터스' 프로그램 개발자, 미첼 카포

불교 정보창고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연암 박지원의 '규공탑명(槐公塔銘)'
한국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2003, 2004 단행본 · 학위논문)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서로 도움 주며 더불어 살거예요



1급 시각장애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함께 사는 슬비네.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지수와 5촌 뻘인 외할아버지 장애인 외할머니.

슬비네-쌀 떨어져 며칠째 라면
할아버지 낙상 생계 극도로 어려워
손혜숙씨 "엄마의 정 전하겠다"

'나눔의 손잡기' 소녀가장 결연

김성권씨, 손혜숙씨네

지수네-후원자 끊겨 어려운 삶
5평방에 조부모, 동생과 기거
김성권씨 "밝게 자라도록 돕겠다"

"엄마 아빠가 새로 생겼어요"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전개해온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결연신청한 경기도 고양시 김성권 거사와 손혜숙 보살이 3월 22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으로 후원가족을 만났다.

강북구 번동초등학교 4학년 이슬비의 집을 방문한 손혜숙 보살은 주방을 둘러본 뒤 가장 먼저 40㎏들이 쌀 한포대를 주문해야 했다. 슬비네는 쌀이 떨어져 며칠간 라면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1급 외할아버지 이영치씨, 외할머니 전정자씨와 번동 임대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슬비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출해버렸지만 밝고 착하게 성장했다. 남들처럼 학원에는 못가지만 매일 인근 복지관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에 꾸준히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지난해 9월까지 외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껌을 팔아 월 10~15만원, 외할머니가 취로사업으로 월 16만원정도를 벌어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1급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해 3층높이에서 떨어진 후 거동을 못하게 되고, 병원비마저 빌려서 갚다보니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가 밀려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됐다.

이날 슬비집을 방문한 손혜숙 보살은 "매달 후원을 조금씩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찾아와 엄마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번동의 2층건물 허름한 5평짜리 옥탑방에서 동생 홍은지와 외가쪽으로 5촌뻘 되는 할아버지 박해룡, 장애인 할머니 김옥자씨와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가장 홍지수(정의중 2)네를 방문한 김성권 거사.

지수의 외할아버지 박해룡씨가 "지난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월 5만원씩 후원해주던 후원자가 끊겨 어렵게 살아왔다"며 "아이들을 위해 큰마음을 내줘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먼저 감사함을 표했다.

김 거사는 손사레를 치며 "작년까지 사회에서 잘나갈 때만 해도 이웃을 어려움을 잘 몰랐다"며 "지난해 병을 얻어 어려운 지경에 놓이다보니 불교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거사는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를 줄여 지수 자매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나눠주겠다"며 "가족과 함께 자주 찾아와 오래도록 인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막자씨 4남매 생각에 하루하루 걱정

발목다쳐 벌이 못해 양육비 부족

부산에서 어린 4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이와 7살인 둘째, 5살인 셋째 아이, 두 살배기 어린 막내를 키우고 있는 김막자(35 ·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씨의 이야기다.

2년전 남편과 이혼한 김 씨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집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발목을 다쳤다. 돈을 벌어야 했기에 다친 발목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오랜 시간 걷거나 서있기도 힘든 지경이 됐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건만 마음 뿐, 대신 맡아줄 곳 없는 두 살배기 막내아이는 김 씨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는다.

지금 김씨의 다섯 식구에게 주어지는 돈은 정부지원금 62만원. 초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이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 셋째 아이의 교육비, 막내 아이의 양육비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기에도 형편없이 적다. 게다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출도 점점 늘어 김 씨는 하루



발목을 다쳐 거동도 어려운 김막자씨가 아이들을 안고있다.

하루 걱정과 긴 한숨 뿐이다. (051)973-0279

박봉영 기자

생명나눔 실천회, 장기기증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참여단체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3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고, 총 22명의 장기 기증 신청을 받았다(사진). 신청자는 신장기증 4명, 사후각막기증 5명, 사후 시신기증 4명, 뇌사장기기증 5명, 생전 골수기증 2명, 화장문화동참 2명 등이다. 문의 (02) 734-8050

김철우 기자

안성 수암정사, 경로잔치

안성 수암정사(주지 진공)가 3월 31일 오전 11시 독립문 소공원에서 어른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연다. 500여 노인을 초청하는 이날 잔치는 오후 3시까지 공양과 능인 스님(강동 백운사)의 찬불가요, 각설이 타령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의 (031) 653-8077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도와주세요

'사랑의 수호천사를 찾습니다.'

서울 성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 결연' 사업을 전개한다. 후원 방식은 결연 및 기금 후원. 결연은 매월 5천원 기탁, 기금은 경로잔치 • 약품 구입, 김장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물품은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후원계좌 : 048-162860-13-204(예금주 성북노인복지관)

'나누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은 장애인들의 교육비, 생계비, 보장구 등을 후원하는 '나눔의 있어 세상은 행복합니다'라는 운동을 벌인다. 후원계좌 : 서울은행 34601-2660021(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나눔의 손잡기 동참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스님)이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각 지역 한마음선원 2차 동참내역이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광명선원(주지 청백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제주도 제주시 한마음선원 제주지원(혜묘 스님) 저금통-20개 스티커-100장

강원도 강릉시 한마음선원 강릉지원(주지 혜인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주지 혜보 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경남 통영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주지 혜연 스님) 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전남 목포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주지 혜제 스님) 저금통 30개 스티커- 50장

대전광역시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주지 혜능 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청주시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주지 청봉 스님) 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 나눔의 가게

부산 진시장 여성양장지 전문도매상
대양상회 051-646-5757

강릉 금학동 골프의류 도소매
임페리얼 강릉점 033-646-7098

광주 방림동 여성전문 병의원
그린산부인과 062-650-7700

천안 백석동 구두,도장,열쇠전문
백석주공열쇠 011-9820-6160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살립니다

나눔저금통 5월15일 1차 수거
현재 전국 3천여개 배포

현대불교신문사가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일환으로 전국에 배포한 나눔저금통이 3천개를 넘어섰습니다. 본사에서는 상반기에 분양된 나눔저금통을 5월 15일 1차로 수거합니다. 채우지 못한 저금통은 10월 10일까지 본사로 전달하거나 기부자 명의로 입금해 주십시오. 지역 사찰의 경우 신도들이 채워온 저금통을 함께 분해하여 기부자 명의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또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됩니다. 상호와 업태, 주소, 전화번호를 본사에 꼭 알려주세요.

문의 (02) 722-4162~3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ARS 060-700-1080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지상중계 ⑥

주제 :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욕심버리고 분별 놓으면 곧 부처

지상 백고좌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윤 2월 초하루인 3월 21일, 봄기운이 완연한 조계사 대웅전과 마당에는 3천 2백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법문을 경청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한겨울 날씨가 풀리듯 마음의 번민과 고민, 짜증을 모두 풀어놓고 가라"고 당부했다.

세여청산하자시(世與靑山何者是)
춘광무처불개화(春光無處不開花)
방인약문성우사(傍人若問惺牛事)
석녀심중겁외가(石女心中劫外歌)로다.

화창한 봄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날씨가 풀리듯 마음의 번민과 고민, 짜증, 슬프고 괴로운 일 모두 법당에 풀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나는 삶, 자유스러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문을 하기 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선원장 초청 법회가 아니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의 법사로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국에 계신 선원장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읊은 게송은 경허 스님이 읊은 시로, '세상과 다뭇 청산이 어느 것이 옳은가? 봄빛 있으니 꽃피지 않는 곳이 없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경허의 가풍을 묻는다면 돌계집 마음 밖의 노래라 하리라'는 뜻입니다.

'돌계집 밖의 노래' 이것이 무엇인가를 참구한다면 이 법회와 더불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참뜻을 알게 됩니다.

불법이 쇠해서 어려운 시절 경허 · 만공 선사께서 혜성처럼 나타나 근역선림(槿域禪林)을 중흥케 하고 불법을 크게 떨쳤으니 이분들이 석가세존과 다르지 않고 가섭존자와 다르지 않고 달마대사와 혜가대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굴 속에 다른 짐승이 살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경허 · 만공 스님이야말로 무소유의 가풍을 선양하신 분들입니다. 격렬한 조사선 가풍과 표리일체의 가풍을 선양하고 걸림 없는 무애의 삶으로 일관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원장 초청법회 또한 제2의 경허와 만공을 길러내는 선불장이라 할 것입니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법문을 들을 때는 엷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라"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눈으로 다른 경계에 대해 관여치 말고 잘 생겼다느니 말을 잘 한다느니 옳으니 그르니 법문이 어려우니 쉬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조각 밝음의 진실한 신심으로써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이전에 부처 참뜻 알아야

원래 불법(佛法)은 입을 열면 그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움직여도 곧 어긋나는 것이어서 개구즉착(開口卽錯), 동념즉괴(動念卽乖)라 하였으니 종일 설할지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 다 마군의 업인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 이전에 부처님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시고 나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설법을 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학사 만화 스님을 찾아가라 이르셨습니다. 경허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탐독해 불경을 남에게 가르치는 강백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강의를 하던 중 경허 스님은 문득 환속한 은사 계허 스님이 뵙고 싶어 찾아가던 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천안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스님은 인생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고 다시 동학사에 와서 모든 대중에게 "그동안 내가 설한 소리는 모두 허튼소리다. 대중들은 모두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찾아가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앉아 정진했습니다.

남의 지식 저울질 말라

'여사미래(驢事未來) 마사도래(馬事到來)', 즉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공안을 참구하며 밥과 물을 먹지 않고 심지어 졸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뾰족한 송곳을 턱 밑에 두고 깜빡 잠이 들면 거기에 찔려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하던 어느 날 한 사미가 올라와 "스님 마을에 내려가니 어느 거사가 '고삐 달 구멍이 없는 소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확연대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도송을 읊으니, '사고무인(四顧無人)이니 의발수전(衣鉢誰傳)이리오'.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네.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오. 이 의미가 누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다가설 수 있어야 진실한 신심과 원력, 자기 삶에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는 밥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허 스님은 다시 걸망을 지고 주장자를 짚고 서

경허 스님, '악~' 소리 하나로 가르침 전해
만공 스님, 주저함 없이 日 총독 크게 꾸짖어

양이가 쥐를 잡듯 일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공장경>에도 "명상(名相)도 마업(魔業)이요, 문자도 마업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이를지라도 마업이니라"하셨습니다. 이제 신심과 원력으로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듣고 내가 가진 마음을 뒤집어 생사의 문제를 풀고 아무 걸림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허 스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잃고 형은 입산하여 아홉 살에 어머니를 따라 청계사에 들어가 계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한 유학자로부터 유학을 배워 통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은사인 계허 스님이 환속하게 되자 경허 스님에게 계룡산 동산 천장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형님이신 태허 스님이 주지로 계셨고 어머니가 공양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직접 탁발을 나갔습니다.

스님이 어느 집에서 목탁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경허 스님에게 "내가 시주를 하면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떤 공덕이 돌아옵니까"하고 묻자 스님은 "대가를 바라고 시주한 공덕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대가가 없다면 누가 시주를 하겠습니까. 썩 물러가십시오"라고 하자 경허 스님은 "시주를 못 받을망정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 이 진사라는 선비가 쌀 한 가마니를 일꾼에게 짊어지게 하고 찾아왔습니다.

■법회 현장에서 생명나눔실천회 홍보대사 이은경 씨(前 국가대표 양궁선수)

양궁도 생활도 마음 다스려야 기록 나오고 행복



3월 21일 열린 선원장 초청 법회에는 최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 국가대표 양궁선수 이은경(33)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가 법장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국가대표 시절 태릉선수촌 내 '한마음불자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면서부터.

이후 힘들 때 마다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이 씨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스포츠 중에서도 양궁은 정신적인 면에 크게 좌우됩니다. 활 쏘는 동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마음을 다스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참선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법장 스님이 주식하던 수덕사를 찾아가 자주 가르침을 청했지만 많은 대중들과 함께 법문을 듣기는 처음이라는 이 씨는 "오늘 스님 말씀 중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는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KBS 양궁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려대와 안성 한경대, 청주 교원대에 강의를 나가는 등 선수시절 못지않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씨는 생명나눔실천회 헌혈부문 홍보대사 역할도 자처했다.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생명나눔실천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만큼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6기 참나찾기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지도자 모집

◆선 심리치료 명상호흡아카데미 개설의 목적은?
현대인은 물질과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참나를 잊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선과 명상호흡, 정신분석, 선 심리학, 자연대체의학을 활용한 정신심리치유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 양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정신심리 치유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담아서 '선 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교과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저녁 7시 ~ 9시	4월 8일 ~ 6월 24일(3개월)
특 수	수시모집(15명 선착순, 3박 4일, 수련원)		

◆특 전
❶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가입 자격
❷ 선 심리치료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 제공
❸ 참나 찾기 클관재 큰 모임(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수강료
20만원(3개월분, 교재비 등 포함. 단, 통신은 3만원 추가됨)
우리은행 달마선원 019-258104-12-501
하나은행 달마선원 379-810048-78107

◆문의 및 수강신청
2004년 3월 20일 ~ 4월 1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12-8248 / 9(F)
H.P : 016-301-4080
※ 수강신청과 관계없이 선 심리치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 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명상호흡아카데미

특별강좌
전기기공요법

너무나 쉬운 이 시대 최고의 대체의학. 電通으로 경락을 소통시켜 만병을 치유하는 中國 특효의술 강의.

적응증 구안와사, 반신불수,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오십견, 협심증, 위장병, 두통,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당뇨, 중풍, 간질환.

일 시 2004년 3월 28일(일)
▶12시 - 맛보기 무료강의
▶ 1시 - 본 강의(약 3시간)

장 소 상봉역 7호선 6번출구 새서울 극장옆 무량선원

전 화 02)491-7358
017-750-9900

대 상 의료계 종사자, 피부미용 맛사지사, 스님, 일반인, 목회자

매주 일요일 강의 예정

※ 철저한 실기위주 완벽마스터 1일 완성

노천에 모셔진 약사여래 불상 앞
다기에 거꾸로 치솟아 맺힌 고드름



약사여래기도도량인 대구 동구 안심 태고종 관음사(주지 벽파스님)에서 지난달 2월 9일 새벽 3시경 예불을 올리고 난 다기물에 위로 10Cm쯤 치솟은 모양으로 고드름이 형성된 기현상이 부처님의 가피력이라 생각하면서 뒤늦게 알려져 화제에 오르고 있다.
(한국불교 제406호)

▶찾아 오시는길
대구시 동구 안심지하철역에서 하양쪽으로 약300m전방 대림육교 좌측 철길앞 이정표 표시
<버스노선 대림육교하차>
좌석 : 708, 508, 518, 555번
입석 : 55, 818, 808, 814-1, 814번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29-2번지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
주지 벽파 합장
▶문의
053)963-4028

법안명상기공강좌

법안명상기공을 수련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진화됩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초급 · 중급 · 상급 · 고급 각 3개월과정
● 명상 · 사범과정 각 1년
● 지도 : 보덕현호선사
● 수강료 : 3만원(월1만원)
● 개 강 : 4월 7일(水) 오후 4시
● 접 수 : 마포문화원 문화학교
서울 마포구 아현동 600-2
● 전 화 : 02)312-1100
● 위 치 : 아현고가도로 마포쪽
아현중학 앞 지하보도 內

법안명상기공회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3월21일-조계사 초하루 특별법회)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생각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법장 스님.

아침에 찾아갔던 집 주인이 바로 서산 지역에서 유명한 원님이자 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진사는 경허 스님의 범상치 않은 품격과 언동을 보고 그 학문의 깊이와 덕의 경중을 알아보고 싶어 찾아 온 것입니다. 이에 스님은 "그래 그렇다면 저울과 잣대는 가지고 왔느냐"고 묻자 이 진사가 "그것은 저울과 잣대로 재보지 않고도 머리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 경허 스님이 '악(喝)' 하며 고함을 벽력같이 치고 "방금 내가 지른 소리는 몇 근이나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진사는 그 자리에서 깊이 사죄하고 단 하루 만에 경허 스님과 십년지기가 되었습니다.

고민 있으면 마음은 무간지옥

이것이야말로 글과 말이 아닌 선의 가풍입니다. 여러분은 경허 스님이 이 진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소리 지른 것을 참구해야 합니다. 그 일갈(一喝)에 우주의 만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다 그 속에 있고 극락과 지옥, 옳고 그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일체 만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허 스님의 일화는 석가세존이 생사를 초월한 그 일이나 달마가 생사를 초월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말을 떠나 일체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듯 분별심이 끊어질 때 진실한 불교를 알 수 있고 참선하는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글과 말로 알려고 하지 말고 사량이나 분별심을 놓아야 합니다. 남의 지식을 저울과 잣대로 재려는 이런 생각이 끊어질 때 진실한 불교를 알 수 있고 참선하는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공 스님에 관한 일화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뜻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다만 진실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중 만공 스님이 일본인 미나미 총독을 꾸짖은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만공 스님께서 마곡사 주지로 계실 때 미나미 총독이 31본산 주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때 미나미 총독이 "한국 불교는 일본에서 온 것이다. 일본 불교와 조선의 불교를 합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라우치 총독의 힘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청정본연(淸淨本然)이거늘 운하홀생산하대지(云何忽生山何大地). 청정히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나왔는고"라고 크게 일갈을 내지르셨습니다.

이처럼 말과 글이 아니요, 사무치는 일갈로 유생을 대한 경허 스님이나 칼과 총이 난무하던 일제치하에서 총독에게 일갈할 수 있었던 만공 스님의 안목이 곧 생사가 없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모두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사가 없는 것이요, 저울질 잣대질 하는 마음은 생사윤회를 거듭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평생 병신 노릇을 하고 살 것이라 단언합니다.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걸 펴지 않으면 병신입니다. 주먹이 펴지지 않으면 병신노릇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먹을 펴 보이며)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오므려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병신입니다.

이 손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사 없는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컵을 들며) 물을 마실 때는 손을 오므려야 합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이 때는 손을 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모두 저에게 주시고, 대신 '만족'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은 무간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법장(法長)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92~2003년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경허-만공-원담 스님으로 이어지는 덕숭가풍의 제자로서 이판과 사판에 두루 막힘없이 전법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4선), 동국학원 이사, 총무원 사회 · 재무부장 등 종단 요직을 거쳤다. 현재 (사)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문, 테이프로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아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3>



"나는 정지해 있노라"

한 때 텔레비전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모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를 본적이 있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신용카드 광고였다. 그러나 막상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되면 고민이다. 휴일이 되면 어느 곳이나 붐비기 때문에 나서기가 무섭다. 목적지까지 거리에서 낭비해야 하는 시간, 도착하고 나면 수 많은 인파에 밀려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지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일만 할 수 없다. 쉬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조금도 쉴 새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외국에 살다가 귀국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급한 생활 방식은 여기 저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한 음식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야단이 난다. 음식이 나오면 재빨리 먹어 치운다. 이런 음식 습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 푸드의 인기는 현대인이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서구의 어떤 철학자가 느림을 찬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 아닌 것임에 틀림없다.

<불설앙굴계경>에 전하고 있는 붓다와 앙굴리말라와의 대화는 휴식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붓다가 사위성에 있을 때의 일이다. 많은 비구들이 사위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각기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나라에는 아주 흉악한 도적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는 각각 그 손가락을 하나씩 끊고 묶어 꽃다발을 만들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앙굴리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흉악한 도적에 관한 이야기를 비구들로부터 들은 붓다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붓다가 오는 것을 보고 즉시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 들고, 붓다를 향하여 달려 갔다. 그 때 붓다는 멀리서 앙굴리말라가 오는 것을 보고는, 곧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앙굴리말라는 붓다를 쫓아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달렸으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앙굴리말라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달음질은 말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은 뛰지도 않고 걷고 있는데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앙굴리말라는 지친 나머지 멈추어 서서 앞서가는 붓다에게 "멈추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 붓다는 발길을 멈추지 않은 채 "나는 언제나 정지해 있노라.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앙굴리말라는 순간 기이한 느낌이 든다. 자기는 서 있고 저 붓다는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붓다는 설명했다. "앙굴리말라여! 내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움직임이 없다. 왜냐하면 여래(如來)에게는 남을 해칠 생각, 미워하는 마음 등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네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죽이려는 생각, 뺏으려는 생각으로,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달리고 있다." 비록 앙굴리말라는 발걸음은 멈추었지만 마음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발걸음은 비록 달리고 있지만 마음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쉬어야 육신이 쉴 수 있다.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타오르고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보내기도 한다.

우리 마음은 여러가지 욕망으로 분주
욕심의 뿌리 뽑아야 참된 평화 찾아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칼날 앞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큰 바위와 같이 동요함이 없다.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는 사람을 여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도 마음을 정지시키기란 힘든 일이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다. 여하튼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여러가지 욕망으로 분주하다는 것이다. 욕망의 정지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휴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휴식은 일상적인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심신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에 의하면 심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평화는 없다. 먼 곳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욕망의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과(경주)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 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8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함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 정 : 인천-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4월 22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틱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4월 20일, 6월 6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사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밝이 월등이 밝고 멀면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윤달 삼사순례 색다르게 떠나보자

테마별 1일 코스 여행지


삼사순례 일환으로 화순 운주사를 참배하고 있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는 윤달이 시작됐다. 최근 윤달에는 삼사순례로써 새롭게 발심하고, 불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풍습이 보편화 되고 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나, 자연 속 운치를 느껴볼 수 있는 봄꽃 만발한 고찰순례, 성보박물관이 있는 문화재사찰순례 등 테마별 삼사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상원사, 법흥사, 정암사 등 인근에 위치한 적멸보궁이나 선암사, 금둔사, 향일암 등의 사찰들은 하루면 충분한 삼사순례 코스. 테마별 코스를 다 돌아보는 것도 좋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사찰 1곳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사찰과 작음 암자들을 묶어 오래 기억될 삼사순례를 떠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1 적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 영축산 통도사(055-382-7182)와 오대산 상원사(033-332-6666), 설악산 봉정암(011-361-2828), 사자산 법흥사(033-374-9177), 태백산 정암사(033-591-2469) 등을 5대 적멸보궁으로 부른다. 이들 적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오래된 산사에는 그 역사만큼 오래된 꽃나무들이 많다. 산사특유의 고즈넉한 풍광에 어울리는 꽃구경도 순례시 빼놓을 수 없다.

#2 꽃향기 따라

순천 선암사(061-749-3578)와 금둔사(061-754-2954) 등은 매화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로 사시사철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고, 하동 쌍계사(055-883-1901), 강진 백련사(061-432-0837), 익산 숭림사(063-862-6394), 공주 갑사(041-857-8981) 등은 벚꽃으로 유명한 사찰들이다.

또 고창 선운사(063-561-1422)와 여수 향일암(061-644-4742) 등은 동백꽃뿐만 아니라 매화, 개나리, 진달래 등의 알록달록한 봄꽃으로도 유명하다.

갓바위에서 동화사(053-982-0101) 파계사(053-984-4550)로 이어지는 팔공산 순환도로에는 전국 최대규모의 '야생화 거리'가 조성돼 있어 참나리, 원추리, 꽃창포, 옥잠화, 맥문동 등 30여만본의 야생화를 구경할 수 있다.

#3 성보박물관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성보박물관을 들르는 재미도 각별하다.

통도사(055-382-1001), 해인사(055-934-3150), 수덕사(041-337-2902), 월정사(033-334-1817), 쌍계사(055-883-1901), 도갑사(061-473-5122), 표충사(055-352-1150), 범어사(051-508-6139) 등의 성보박물관은 관련 유물을 상설전시하고, 학술세미나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한국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박물관들은 유물보존 및 관리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삼보사찰

삼보는 불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삼보사찰은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이다. 통도사(055-382-7182)는 부처님의 법신을 상징하는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보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보궁과 가사를 안치한 금강계단 등을 볼 수 있다. 해인사(055-931-1001)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고려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로 경을 안치한 해인사장경판전은 국보 제52호로 지정돼 있다. 송광사(061-755-0107)는 조선 초기까지 16명의 고승을 배출한 승보종찰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극장가



어린신부 / 로맨스, 코미디 / 115분
개봉예정일: 4월 2일
감독: 김호준
출연: 김래원, 문근영, 안선영 등
남자 대학생과 여고생의 거짓말 같은 결혼 이야기. 잘나가던 대학생 상민은 병세가 악화된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으로 16살 여고생 보은과 결혼식을 올린다. 이왕 한 결혼, 어린 신부 뒷바라지라도 해주고자 결심했건만 정작 새 신부는 짝사랑하던 학교 선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프리키 프라이데이 / 코미디 / 93분
개봉예정일: 4월 2일
감독: 마크 S. 워터스
출연: 제이미 리 커티스, 린드세이 로한 등 헐리우드 판 '비밀', 엄마와 딸의 몸이 뒤바뀌다. 각기 다른 취향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치는 엄마 테스와 딸 애나. 엄마의 재혼을 앞둔 두 사람은 어느 날 중국식당에서 행운의 메시지를 읽고 몸이 갑작스레 뒤바뀐다. 모녀는 신체가 바뀐 뒤에야 서로를 점차 이해해가기 시작한다.



폴리와 함께 / 로맨스, 코미디/89분
개봉예정일: 4월 2일
감독: 존 햄버그
출연: 벤 스틸러, 제니퍼 애니스톤, 알렉 볼드윈 등
한국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된 바 있는 TV 시트콤 '프렌즈'의 제니퍼 애니스톤이 로맨틱 코미디로 스크린에 도전한다. 매사에 꼼꼼하고 지나칠 만큼 조심하는 소심남 루벤은 모험심이 강한 중학교 동창 폴리를 만나면서 갖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전시

삼국지 영웅들 부활하다

롯데월드 '살아있는 전설-삼국지 체험전'



중국의 대표적인 고전 <삼국지>의 배경인 위·촉·오 삼국의 진품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이 6월 26일까지 진행하는 '살아있는 전설-삼국지 체험전'이 바로 그것. 이번 전시회는 조승의 '은루옥의'를 비롯해 조조의 딸이 사용했다는 청동 사자모양 도장 '조헌인신(사진)' 등 삼국시대의 1급 문화재 16점 등 유물 총 222점이 전시된다. (02)411-4779

할머니 품처럼 넉넉한 대지

영광도서갤러리 최현주展



할머니와의 정겨운 추억과 잊혀짐의 아쉬움을 표현한 작품.

최현주 씨의 회화 전시회 '할머니의 땅'(사진)이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영광도서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대구예술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최 씨는 할머니를 통해 이 땅의 어머니에 대한 고민을 화폭 속에 거친 느낌의 혼합재료를 사용해 표현했다. 최현주 씨는 "모든 사물은 땅에서 태어나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할머니의 죽음으로부터 배웠다"며 "할머니를 기억하며 그 사실을 화폭 속에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051)816-9500

중앙도서관 문화학교 4월부터 매주 토요일

토요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찾아보면 어떨까?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이 한국도서관협회와 공동으로 '봄의 향기-도서관에서 읽는 문화 이야기'를 주제로 2004년도 '도서관문화학교'를 진행한다.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2개월간 매일 2시간씩 진행될 이번 문화학교는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읽는 어린이책 이야기, 고전이야기, 저자와의 만남, 말 통하는 가정 만들기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 인터넷과 전화접수를 통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수강료 1일 2시간 기준 5천원. (02)535-4868

20면 상식 퍼즐 정답

강	원		자		면		장	사
전	기	설	비		학	술	대	회
	왕		심	전	도		열	
집	성	촌		수		교	차	로
		뜨	락		수	수		
아	동	기		동		법	보	시
	문		남	포	등		험	
동	서	남	북		신	입	회	원
전	답		한		불		사	생

춘천박물관 무료문화 강좌

도깨비·고분벽화 등 주제로 진행

국립춘천박물관(http://chuncheon.museum.go.kr)이 매월 한차례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토요문화강좌'를 무료로 진행한다.

첫 강좌는 3월 27일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 김종대 선생과 함께 '한국의 도깨비'에 관해 알아보게 된다. 또 4월 24일에는 한신대 사학과 권오영 교수의 '백제의 성립과 발전' 5월 22일에는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전호태 교수와 함께하는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등이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사전에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33)260-150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06:25 신행 365일
11:10 행복 스트디오
14:05 전국은 오늘
16:45 룸비니 동산
19:00 BBS 저녁종합뉴스
21:05 경전공부
23:25 명상음악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Btn 불교TV <ch 32>

31일 21:00 천상천하 가요독존
1일 08:30 생활 속의 아함경 강의
2일 09:10 차문화 산책
3일 12:00 향토음식 기행
4일 11:30 충성 성불하십시오
5일 12:50 TV 법회
6일 14:25 특별법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명상음악(3월 31일 23:25~24:00)-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명상과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명상음악을 통해 자신의 잠재의식을 관찰하고 마음의 정화를 이끌어낸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어 이전의 말들'이라는 코너가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 천상천하 가요독존(3월 31일 21:00~21:40)- 불교를 어렵고 멀게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 최신 뮤직비디오와 함께 알기 쉬운 불교상식과 경전 등을 소개하는 시간. 이날 방송에서는 가수 거북이, 원타임, 로스트 프로펫츠 등의 뮤직비디오가 방영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백련정차



연꽃과 연의 입, 뿌리, 열매 등을 법제해 만든 차. 특히 연의 열매는 2천년이 지나도 싹을 틔우며, 그 열매 또한 금강(金剛)이라 불릴 정도로 단단해 한 치 흐트러짐 없는 불성(佛性)과 비유되기도 한다. 백련의 향은 홍련, 수련 등 다른 연들보다 더 향긋하며, 은은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선물로는 더 없이 좋은 상품. 가격 50g 1만 8천 원, 100g 3만 5천 원, 정차세트(50g+100g) 4만 7천 7백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박물관대학 과정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www.landmuseum.co.kr)이 4월 13일부터 10주동안 박물관대학 '제9기 일반과정'과 '제7기 전문가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일반과정(120명)은 '한국문화와 세계문화'라는 주제로, 전문가과정(40명)은 '문화재조사의 이론과 방법'을 주제로 진행되며, 신청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031)738-7784

아동문학 강좌 민족문학작가회의가 4월 31일 아동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황선미, 류재수, 노경실, 김제곤 등 동화작가들과 함께하는 문학강좌를 6월까지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신청은 이메일(paranmaum61@hanmail.net)로만 받는다.

생명나눔 강좌 생명나눔실천본부가 4월 1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관에서 '생명존중'을 주제로 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첫 강의는 구병수 한의학 박사가 진행한다. (02)734-8050

함께 해요

천연비누 만들어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가정에서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천연제품 만들기 강좌'를 3월 31일과 4월 2일 이틀간 진행한다. 수강생은 재료비 5천원만 내면 자신이 만든 천연 허브투명비누 2개와 로션을 가져갈 수 있다. (02)3462-5704



무료영화상영(사진)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이 4월 3일, 17일 무료영화상영회를 7층 소강당에서 갖는다. 3일에는 김남진, 배두나 주연의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가 17일에는 이범수, 이은주 주연의 '안녕! 유에프오'가 상영된다. (051)868-1258

흥국사, 주말수련법회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가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주말수련법회를 진행한다. 참나를 찾기 위한 이번 수련법회는 발우공양과 절수행 등의 기본습의 과정과 자아 기도법, 자연과 하나되는 명상 '새벽 숲길 걷기' 참선수행 및 선체조 등으로 진행된다. (02)381-7970

자연의 소중함 일깨워요 녹색생명학교가 4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상설반을 운영한다. 상설반은 자연생태반과 녹색환경교실, 농사체험교실, 곤충생태연구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 22만원~24만원선. (02)737-3717

소자본 성공창업 서울산업지원센터(www.sisc.seoul.kr)가 창업을 위한 '소자본 성공창업 입문' 강좌 및 현장상권분석컨설팅을 4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창업e닷컴 대표 이인호 소장이 강사로 나서 생생한 창업전략을 전한다. (02)2657-5712

서울사랑시민상 공모 서울시가 시민, 단체, 기업체에게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 환경부문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및 응모접수를 4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수상자는 대상 1명, 본상 5명, 장려상 15명이며 대상에게는 상금 1천만원, 본상에게는 상금 5백만원, 장려상에게는 상금 3백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02)6321-4084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 집단 미술치료교실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을 매주 월, 화요일 양일간 진행한다.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고 창의적인 표현력 및 집단간의 의사소통 등을 강화 할 수 있는 이번 미술치료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중학생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 1회당 2만 5천원. (02)571-2988



'세계천식의 날' 그림대회(사진) 천식 및 알레르기 예방운동본부(www.wadpo.or.Kr)가 4월 11일 세계천식의 날을 맞아 천식, 알레르기 예방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응모자격은 15세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로 4월 2일까지 일반 스케치북에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대기오염, 집먼지 진드기 등 유발원인이나 환경관리, 운동 등 천식, 알레르기와 관계된 그림을 그려 운동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수상작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세계천식의 날 기념행사에 전시된다. (02)486-7012

체육특별활동 부천시가 4월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체육 분야 특별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종합운동장 및 부천체육관, 소사테니스장, 부천시청사 광장 등에 갖춰진 체육시설에 가능한 스포츠 레저분야로 농구, 탁구, 축구, 테니스 등이다. (032)666-0361

즐겁게 떠나요

석불친견순례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석불순례법회를 떠난다. 4월 10일에는 운문사, 사리암 등지로 석불순례겸 온천여행을 떠난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 016-267-7945

경주문화유적답사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이 4월 4일 오전 8시30분에 신라천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주로 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경주 남산 삼릉에서 용장사지까지 신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여행. 참가비 1만 3천원. (053)753-8883



시간속으로 떠나는 추억여행(사진) 웹투어(www.webtour.com)가 4월 매주 일요일 안성 '시간 속으로 떠나는 추억여행과 신나는 체험'과 화성 '천상의 노을과 허브향 그윽한 선상 유람선 여행'을 선보인다. 안성에서 펼치는 체험은 된장농원인 서일농원에서 진행되며, 화성여행은 용주사와 허브나라를 비롯, 서해안 일대에서 진행된다. 성인 3만 8천원, 어린이 3만 5천원. (02)1588-8526

남도 답사여행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www.teolove.com)이 4월 3일부터 이틀간 진도 벽파진을 시작으로 용장산성, 남도석성, 강진 다산초당, 백련사, 무위사 등지로 남도 답사여행을 떠난다. 옛 선인들의 풍류와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남도의 봄 향취를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성인 9만 5천원, 어린이 8만 5천원. (02)725-1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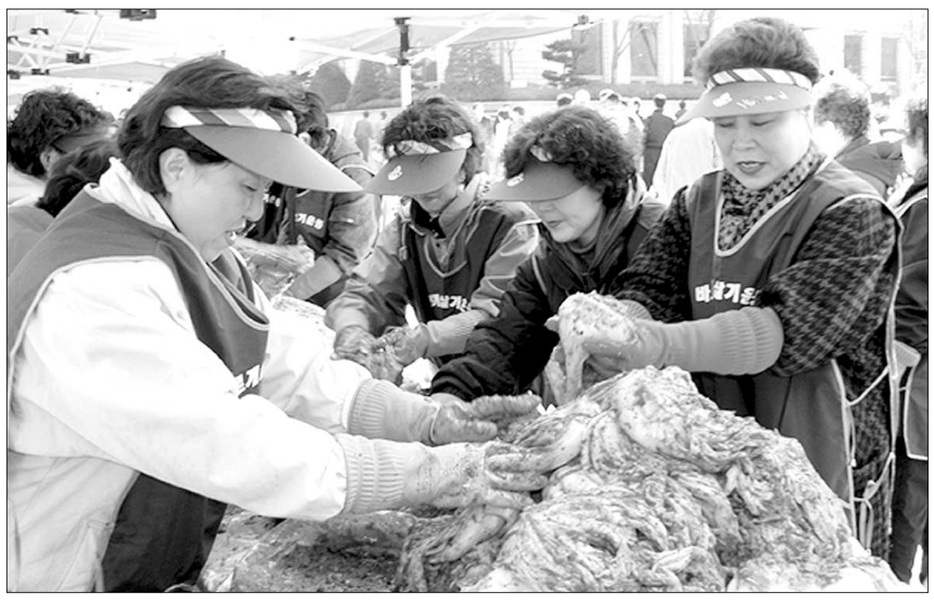
남도기행·봉사활동 인터넷 동호회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altlovebuddha)이 3월 27일부터 이틀간 해남 미황사, 대흥사, 백련사, 우위사 등지로 남도기행을 진행한다. 또한 28일에는 대부도 둥지 어린이집으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팔공산 문화재 탐사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가 4월 4일 팔공산으로 문화재와 생태계 탐사를 떠난다. 이날 참석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수팀 시상은 물론 봉사활동증을 발급한다. (053)982-0101



값 싸고
농약 걱정없고
맛도 일품

봄 김장 아삭아삭 신선해!



지난 3월 18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겨울배추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한마당'에서 주부들이 봄 김장을 하고 있다.

김장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겨울. 하지만 김장을 봄에 한다면? 최근 서울 서초구청에서는 '겨울배추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행사를 통해 겨울배추로 담근 봄김치를 선보여 많은 주부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봄 김장이 겨울김장보다 좋은 점은 무엇일까?

봄 김장이 겨울김장보다 좋은 이유

봄에 담그는 김장이 좋은 이유는 일단 겨울김장보다 저렴하다는 것. 겨울 김장철 배추는 보통 3천~5천원 정도인데 비해 3, 4월에 출하되는 겨울배추는 1천원 선이다. 배추값이 반 이상 절약되니 김장 비용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하다.

보통 8~9월에 파종해 1~2월에 수확하는 겨울배추는 겨울에도 비교적 기온이 높은 해남, 제주도 등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80~90%가 생산된다. 따뜻한 기온 때문에 하우스에서 재배할 필요가 없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여름보다 병해충 발생이 적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겨울에 공기가 맑은 시골에서 내린 눈은 배추에 영향을 주는 각종 유해성분을 자연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추운 날씨를 이겨낸 겨울배추는 활발한 당대사로 인해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 하다. 배추 조직이 치밀해 김치를 담그게 되면 쉽게 물러지지 않아 신선한 맛이 오래 유지된다.

배추의 푸른 잎에는 철분, 칼슘, 엽록소, 비타민C가 많고 노란 고갱이에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봄김치는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을 섭취하고, 춘곤증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도움말 및 자료제공: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 지역농업네트워크

좋은 배추 고르는 법

⊙배추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것을 고른다.
⊙배추의 흰 줄기를 눌렀을 때 단단하면 수분이 많고 싱싱하다.
⊙배추를 들었을 때 묵직해야 속이 꽉 찬 배추이다.
⊙뿌리를 자른 밑동 부분이 흰 색을 띄면 수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배추다.
⊙속잎을 떼어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나면 잘 익은 것이다.
⊙겉잎에 검은 반점은 병충해 때문이며, 대부분 속까지 벌레를 먹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입하지 않는다.

외조·내조 필요없는 도반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6>

박철원 포교사 가족



외조, 내조가 따로 필요없는 박철원 포교사 부부.

남편은 교리 강의하고 아내는 불화 공부
세 아들 매일 아침 기도하며 봉사 앞장

불자로서 실천해야하는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정진이 아닐까. 서로에게 좋은 도반으로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각자 수행정진에 열심인 가족이 있다. 박철원(59 · 법명 상락) 포교사 가족이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정진의 모범을 보이는 박 포교사가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은 군복무 시절부터다.

이후 1983년 전역과 동시에 순천대학 교양학과 교수, 국방부 정신교육원 교수,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강의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틈틈이 노인대학, 교도소, 기업체 등에서도 강의하며 봉사도 했다. 또 1999년 무렵부터는 대학 제자들, 군 후배들을 대상으로 주례를 서기 시작해 지금까지 주례해 준 부부만도 1천 쌍이 넘는다.

"흔히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 하는 것을 권위적인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의야 말로 봉사정신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배경지식,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 내고 교훈을 주려면 자신을 먼저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박철원 포교사)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박 포교사는 특히 불교교리 뿐 아니라 불교의 식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배우고자 몇 년 전부터 동산불교대학 등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해 말에는 포교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부인 김오복(57 · 법명 대각행) 씨 역시 남편을 내조하면서도 스스로의 정진에 게으름이 없다. 젊은 시절부터 서예와 그림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김 씨는 요즘 불화공부에 한창이다. 불화그리기는 지난 2000년 서울 사당동의 원각사에서 3년 동안 화장실 청소, 경내청소 등 궂은일을 도맡으며 천일기도할 때 세운 김 씨의 오랜 서원이었다.

"바깥양반이 경전으로, 불법설파로 수행한다면 저는 부처님 모습을 그리며 불법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환희심을 느껴 포교효과도 거뒀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아들 삼형제 원명(32), 원오(31), 원묵(28) 씨도 각자 출근하기 전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등 불심이 각별하다. 또 교계 내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적극적이다.

앞으로 포교사로서 오랜 동안의 군생활과 교육경험을 살려 군포교에 매진하고 싶다는 박 포교사. 또 가족과 함께 위빠사나, 간화선 등 수행법을 배워가며 계속해서 불법 공부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한상희 기자

나무 심는 법 배워요

산림조합, 식목일 맞아 나무시장 운영
4월말까지 전국 148곳서 가꾸는 법 안내

4월 5일은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이지만 제대로 된 묘목을 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나무시장에서 싸고 품종이 좋은 나무도 고르고, 심는 법도 배워보자.

산림조합은 4월 30일까지 전국 각 시, 군 148개소에서 나무시장을 운영한다. 조합원들이 직접 가꾼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야생화, 잔디 등을 시중가 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나무의 가격은 수령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부분 감나무 3천원, 대추나무 3천 5백원, 밤나무 2천원, 사과나무 4천원, 단풍나무 2천원, 목련 2천원, 철쭉 1천원 선에서 판매된다.

나무시장에서는 임업기술지도원을 통해 나무 선택 방법 및 심는 방법, 기르는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가족이 함께 방문해도 좋다.

전국 주요 나무시장 표

기관명	판매장주소	전화번호
임산사업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	(02)3461-0211~4
서울조합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02)426-4436
서울조합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02)359-1160
부산조합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545-1	(051)528-9148
인천조합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394-62외	(032)462-8494
충남지회	대전 서구 갈마동 361-4	(042)537-8814,5
대전조합	대전시 동구 용전동 22-2	(042)638-0536,7
경북지회	대구시 동구 신암4동 348-7	(053)957-7990~2
대구조합	대구시 수성구 파동 581-48	(053)764-0141
달성조합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42-4	(053)656-0652
달성조합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108-1	(053)614-8044
전남지회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267-15	(062)954-0072
광주조합	광주시 서구 농성동 482-9	(062)368-7711
울산조합	울산시 남구 무거동 464-7	(052)277-5409
임산사업소	수원시 권선구 구은동 농산물유통센타 내 야외공연장	(02)416-9700
경기지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031)222-7419
강원지회	춘천시 사농동 748	(033)256-5427
충북지회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78-1	(043)276-4602
전북지회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368	(063)243-7208
경남지회	창원시 천선동 도지회 직영양묘장	(055)266-3431
제주출장소	제주 아라1동 362-24	(064)753-3465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째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주지스님 초빙공고

본 사에서는 가람수호와 불법 홍포 발전에 기여할 덕높으신 주지소임스님을 아래와 같이 초빙코져합니다.

아 래

1. 자격 및 년령
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및 3안거 성만 이상
40세 이상의 비구, 비구니스님
2. 초빙인원 : 0명
3. 구비서류
가. 수행이력서(사진부착) 1통
나. 주민등록 등본 1통
다. 승려증 사본 1통
라. 강원 졸업 및 안거 성만 확인서 1통
마.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통
4. 접수방법 : 우편접수
5. 접 수 처
우 770-872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충효사
6.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후 개별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기도영험도량 충효사
주말 용맹정진 기도도량 무학사
천일지장경 독송회 근본도량 염불원
사회복지법인 충효자비원
회주 석해공 합장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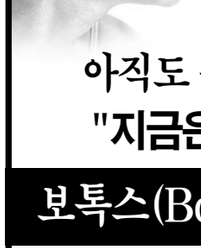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복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주 름



성형... 했니?
아직도 수술을 하세요?
"지금은 바르는 시대"

보톡스(Botox) 대안 화장품

미국 UCLA 피부과 피부테스트 완료
- 20대 ~ 70대 까지(남.여 공용)
- 눈가, 입가, 이마, 미간, 주름진 부위

※1994년 노밸의학상을 수상한 Dr.Martn Rodbell이 제시한 과학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발된 고품격 피부관리 제품

메디덤(주) 02)969-8080

수확 앞둔 하동 차재배 현장

해마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섬진강변은 요즘 골짜기마다 매화와 산수유 꽃망울을 터트리며 잿빛 옷을 갈아입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차산지인 경남 하동의 차밭에도 새순이 조금씩 돋아나 차 향기를 퍼트리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차 재배 농가를 찾았다.

새순이 움틀움틀 "바쁘다 바빠"



본격적인 차 수확을 보름여 앞둔 요즘, 농가마다 차밭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화개면 운수리의 효월수제차(대표 이기영 · 아래 사진 오른쪽).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 대표와 직원들은 차 수확을 준비에 분주했다. 겨우내 묵혀뒀던 찻잎 덖는 무쇠솥 손질을 비롯해 산비탈마다 자리 잡고 있는 차밭의 잡초를 뽑고 거름도 뿌린다. 4월 초면 차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수십 명의 제자들을 위해 숙소도 미리 치워둔다.

보통 찻잎을 따는 시기는 곡우(4월 20일) 약 5일 전부터. 하지만 "올해 차 수확은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라질 것 같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올 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워 차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는 이 대표는 "찻잎은 날씨가 조금만 풀려도 하루가 다르게 쑥 쑥 커버려 정신없이 바빠진다"며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이다가도 우리 차의 미래에 대해 묻자 표정이 어두워진다.

찻잎 채취 예년 보다 보름 빨라
"변덕스런 날씨에 차맛 어떨지"
중국 차시장 개방에 걱정 커

"요즘 차 마시는 분들 사이에 중국차 바람이 지나치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차 시장 개방으로 값싼 차들이 밀려와 우리 차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제다인들이 양질의 차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차를 마시는 분들도 우리 차를 더욱 사랑해 달라"고 당부한다. (055)882-6247

요즘 티백녹차 철 하루가 짧아
차 덖는 일 모든 농가 매달려
가업이어 재배 30~40대 주축

다음으로 화개장터 입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화개제다(대표 홍소술)로 발걸음을 옮겼다. 5년 전부터 무료 차시음장을 운영하며 차문화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개제다는 하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한다. 물론 그만큼 준비해 둬야할 것도 많다. 요즘은 티백 녹차 생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차밭을 일일이 둘러보고 거름을 뿌려두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시음장에서 만난 화개제다 배희정 기획실장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차 수확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지금이 차 농사꾼에겐 가장 설레면서도 바쁜 시깁니다. 이제 곧 차 수확이 시작되면 화개지역의 모든 농가들이 차를 따고 덖는 일에만 매달려 시장과 가게는 물론 목욕탕마저도 텅텅 빌 정도거든요."

배 실장은 최근 들어 화개지역의 차 재배 농가가 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1960년대부터 차 농사를 시작한 1세대의 뒤를 이어 30~40대의 2세대들이 가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화개제다 역시 1950년대 중반부터 차밭을 일구어 온 홍소술 대표의 뒤를 이어 넷째 아들인 홍창노 씨가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 차, 하동 차 알리기에 힘을 합치자는 움직임이 차를 재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차가 밀려들어온다 할지라도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우리 차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055)883-2233

주말에 가족과 함께 향긋한 차 향기가 넘치는 하동의 차 농가를 찾아보자. 시골 인심이 더해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까지 푸근해질 것이다.

하동=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진



3월19일 개관한 '아름다운 차 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 1번지에 문연 '차 박물관'

'아름다운 차 박물관'

동양 다구 200여점 전시
티베트 코너 눈여겨 볼만
신 관장, 북촌에도 열 예정

동양의 차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차 박물관이 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열었다.

3월 19일 개관한 '아름다운 차 박물관(관장 신영수)'은 한옥을 개조한 건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티벳 등 동양의 다양한 다구 2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과 다실(茶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티베트 차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19일 열린 개관식에는 불교텔레비전 사장 성우 스님과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마음고요선방 정목 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차 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지원 스님은 "인사동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벳박물관과 성(性)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영수(49 · 위 사진 안) 관장은 "외국의 차문화를 접하고 다구들을 하나둘씩 모으다보니 차 전문박물관을 개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시실이 넓진 않지만 많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차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서울 북촌(北村)에도 차 박물관을 열 예정이다. '아름다운 차 박물관'이 소박하고 단아한 다구들 위주로 전시한다면, 북촌에 문을 열 박물관에서는 천목다완이나 칠보자사 등 화려한 색상의 다구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박물관측은 앞으로 국악과 티벳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관 없음. 관람료 5천원. (02)735-6678 www.teamuseum.net

여수령 기자



문경시, 한국전통찻사발축전

문경시와 문경새재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문경도자기전시관에서 '2004 한국전통찻사발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도자기 전시를 비롯해 전통도자기 학술대회, 한 · 일도자기 교류전, 도자기 제작 체험, 가족다례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이에 앞서 문경시는 찻사발축전에 전시할 찻사발 및 다기 공모전을 열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작품과 출품료(작품당 3만원)를 4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054)550-6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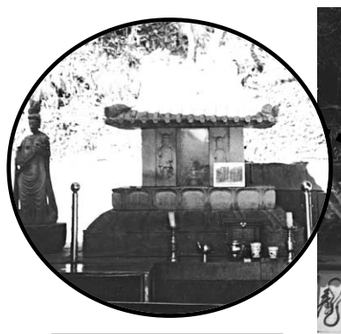
보성다향제, 5월 1~9일

올해로 30회를 맞는 보성다향제(www.boseong.jeonnam.kr)가 5월 1일부터 9일까지 '차와 사람, 자연이 함께 하는 열린 만남'을 주제로 전라남도 보성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보성체육공원과 대원사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차문화행사, 녹차밭 푸른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차의 풍작을 기원하는 다신제와 국제 차요리축제, 국제명차선정, 차예절 경연대회, 한 · 중 · 일 차문화교류전 등도 마련된다. 지난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보성다향제는 지난해 2004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됐다. (061)850-5223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법비가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감로법비의 성지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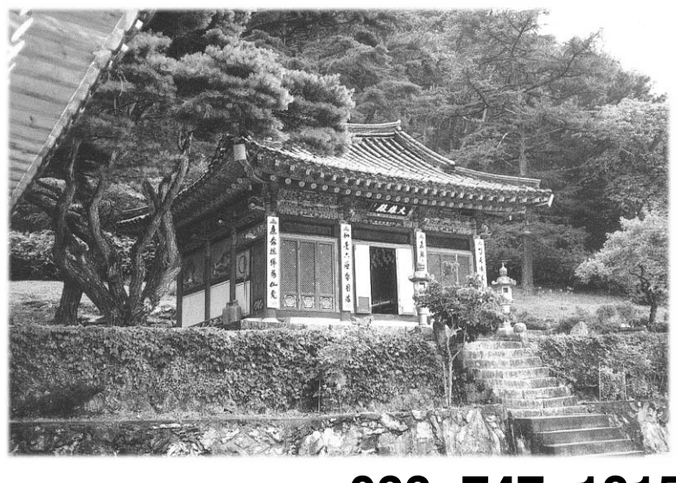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밤,낮 없이 법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한 무지개 발현.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삼사순례도 하시고 10분기도로 한가지소원을 몸소 채험해 보세요.

동 해 사 주지 **혜명** 합장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 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착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서 국태민안과 우순풍조를 기원드린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꿩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꿩 방생 장소**로 최적지 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형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무심 속의 심지에 불을 당겨라!

우리가 대의적으로 따져볼 때는 항상 한마음 도리로서 돌아가지만, 너 나가 있듯이 여기 오늘 처음 오셔서 듣지 못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기초적인 문제, 자기 자신을 먼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그래도 오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사성제(四聖諦)를 설했습니다. 고집멸도 사제법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 자기가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만이 가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자유자재권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똑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여러분 속에 든 의식, 모습, 생명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苦)덩어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고라는 얘깁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 하다못해 지렁이도 어떠한 생명이든 다 고입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면서 울며 쓰라림을 당하면서 짓밟히고 일어서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첫째, 고(苦)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를 어떻게 해야만이 멸(滅)하게끔 할 수 있고 또는 착(着)이 없게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고 하나를 없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고를 없애는 도리를 일러드린 겁니다. 고만 없애면 집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도라는 언어도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했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신통이 있다, 오신통 가운데 숙명통이 컴퓨터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거기에서 다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재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인과, 유전 또는 영계, 세균 업보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입력된 게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니까 팔자운명 타령 하지 말고 거기에다 놔라 이랬습니다. 거기에다 입력을 다시 시키는 반면에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니까 모두 무너집니다. 지옥고도 무너지고 업보, 유전, 영계에 끄달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반면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군데다 놓고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가 없어집니까? 그러니 이론으로 달달달달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백 번을 외우는 것보다도 한 번 실천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날더러 모든 것을 체계 있고 일관성 있게 설법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죽은 설법과 같습니다. 체계가 없으면서도 체계가 역력하게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과거에서 나오는 거든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든 둘이 아니게 나오는 그 자체는 본래 공(空)이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둘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색으로 보이는 여러분 마음이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두가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고정된 게 없으니 색과 공이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밝은 심안의 심지에 불을 당길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니까, 그것은 내가 면할 수가 없지.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거는 진짜 부모한테서 자기는 물러서서 다른 부모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은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신통을 비유한 팩시밀리나 천체 무전통신기나 또는 탐지기나 망원경이나 숙명통 컴퓨터나 레이다망에서 지금 오고 가는 걸 다 책정하듯이 그렇게 모두 하고 있는 누진통까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거를 몽땅 한데 합쳐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잘못된 거는 거기서 다시금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자기라는 게 없이, 공해서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를 몽땅 거기다 놓고 작업을 한다면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기,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바로 그게 고를 녹이는 작업입니다.

고를 녹이다보니깐 착도 없어져 '그것이 누구 탓이냐? 내 탓이지.' 그것이 바로 좌선이고,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지 어찌 몸이 편안하게 앉았다고 해서 좌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놓을 때, 모든 착도 다 없어지고 욕심도 다 없어지고 할 말만 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법전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딛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평발이죠. 무겁게 평등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 말 한 마디가 온 천하 법계에 두루하니 그게 법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 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강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백지부터 갖다놔야, 종이부터 갖다놔야 연필을 들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바탕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바탕이 지수화풍의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광력 전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재료로 갖추어져 있으니 그 오신통은 바로 법바퀴를 굴려서 불바퀴도 되고, 물바퀴도 되니 그거를 굴려서 자유인이 돼라 이 소리죠.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항상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야심경이든지 뭐든지 달달달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아뇩다라샴먁삼보리의 그 법(法)도 없느니라. 그 법 안에 그 뜻도 없느니라." 이랬을 때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금강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그렇게 말씀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보살은 이름해서 보살이니라. 그런데 내가 건졌다, 내가 건질 수 있다, 내가 건지겠다, 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살 될 자격이,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달달달 외워서 강의를 해주는 것도, 이름해서 보살이라는 그 자체의 이름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제일 첫머리의 고만 없앤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저절로 도라는 언어도 불지 않는 그 도를, 그대로 자유스럽게 대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세상에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도저히…. 그러면 또 이 몸을 벗고서 공부를 할래도 그 타령이 그 타령이에요. 도루묵이죠. 그러니 몸이 떨어지기 전에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다음에 나와도 뚜껑만 열면 나오게끔요. 어떠십니까? 트릿하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는데요. 이 공부는 틀림없이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죽을 때에 같이 가줄 수도 없고, 똥 눠줄 수도 없듯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원히 같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되겠기에 사성제의 첫머리의 고덩어리를 녹이는 그 작업만 해라 이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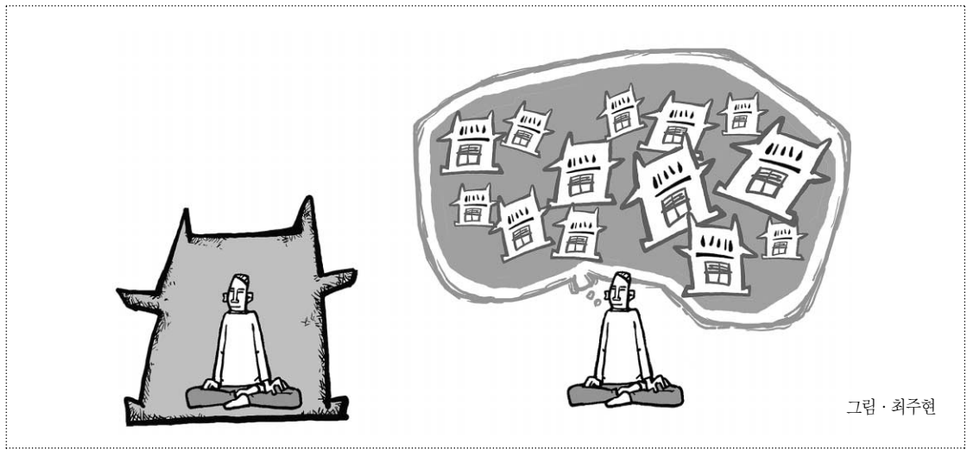
옛날에 무착 대사(無着大師)가, 그것도 저 치악산에 있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꿩 치(雉) 자를 써서 치악산이니 이렇게 말들을 하더군요. 거기로 절터를 보려고 갔다가 꿩이 알을 낳았는데 큰 구렁이가 알을 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니깐 그냥 활로 쏴서 떨어뜨려 죽였거든요. 알은 살렸으나 그 구렁이는 죽였죠. 그런데 저녁 나절이 됐는데 무착 대사가 하룻밤 새겠다고 하니까, 하얗게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들어오십시오." 하더랍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밥상을 차려 왔는데 젓가락 한 짝만 놨더랍니다.

그래서 무착 스님은 물그릇 국그릇에다가 탁 손을 넣어가지곤 밥을 갖다가 그냥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내 낭군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랬는데…. 정히 그렇다면…." 했습니다. 그 젓가락 한 짝 놓은 거하고 손으로 집어먹은 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정히 그렇다면' 했을까요. "정히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감고 있는 동안에 종이 울린다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고, 내가 죽겠으니 나까지 마저 거두어주시고, 만약에 종이 울리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원수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묘한 것이 말입니다, 젓가락 한 짝만 놨는데 그분은 '왜 젓가락 한 짝을 갖다놨느냐. 왜 숟가락은 안 놨느냐. 숟가락 좀 주십시오.' 이게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물을 탁 축여서 그걸 집어 자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 아! 그냥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자기를 탁 감거든요. 그래 감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에 종이 세 번이 울리더랍니다. 울리니깐 풀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나까지 마저 거두어주소서." 하고선 그냥 풀어주면서 아예 가버렸어요. 그 순간에 구렁이는 몸이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꿩이 말입니다, 날아갔다가 와서 땡! 치고선 또 날아갔다 와서 땡! 치고 그러느라고 코가 아주 뭉그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꿩하고 구렁이하고 모두 세 개를 갖다 한 구덩이에다가 막 묻으려고 하니까 웬 스님이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서 알을 살리느라 그랬다지만 어떻게 생명 셋을 다 죽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비일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착 스님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서천의 돌이 동쪽에 꽃이 피었네." 하고요. 그 소릴 듣던 스님은 "아하! 이 요리 맛이 이렇게, 탕 맛이 이렇게 좋은 줄은 난 미처 몰랐네." 하면서 껄껄 웃고 돌아서서 가거든요. 멋진 거 아닐까요? 젓가락 한 짝 놨는데도 손을 담궈 먹었고, 셋을 다 한데 합쳐서 했는데 "그거 알 살리겠다고 세 생명을 다 죽이고 자비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서천의 돌이 동쪽에 꽃이 피네." 하는 소리를 하니, 그쪽 사람 또 멋져요. "탕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하면서 무릎을 치고 껄껄 웃고 돌아서서 가더라 이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고는 이런 도리를 몰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팔만대장경을 외로 꿰고 바로 뀐다 할지라도, 법설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충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광력과 전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구르질 못하기 때문에, 굴리질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말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몸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덕이 안 되죠.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듯이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을 이익하게 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자체도 이익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실험을 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말도 모두가 허사고 아마 그냥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토막의 이치지만은 아주 성성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청정자재천궁(自在天宮), 그 자재 대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유스럽게 살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이 길을 여러분이 등한시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장마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이 끌고 갈 때는 둘이 다 빠지지 않지만 눈을 감은 사람이 눈을 감은 사람을 끌고 갈 때는 둘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역대의 조사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팔자운명 타령 말고 거기다가 놓으세요

인과에 대해서 또 한 토막의 얘기를 하죠. 춘천에서 있었던 얘깁니다. 어느 분이 참 극난히 돈을 벌어서 잘돼가지고 집을 짓게 되어서 집터를 보러 다녔습니다. 집터를 보니까 참 좋은 데가 있어서 터를 닦는데 아, 구덩이 구덩이 그냥 몇 구덩이가 전부 뱀 소굴이더랍니다. 그래 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구덩이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다 치우고선 집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성장해서 장가를 들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병이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도 병이 들고 손주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붓고 배가 부르고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들들이 어디 취직을 할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됩니까? 또 자신은 진급도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딱 죽게 되는데 그냥 뱀 새끼들이 꾸역꾸역 그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또 갖다가 기름을 끼얹고 그거 화장을 시켰지 어떡합니까? 너무 징그러우니까. 화장을 시키고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저 하루 이틀 사이로 그냥 돌아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자기 산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한 이삼 년 갔는데 산소에 가보면 구멍이 송송송 뚫렸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집 마당에도, 울타리에도 뱀이 척 걸쳐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도인이라는 스님을 만날까 해서 아무리 찾아도 도인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던지 그 해 일년을 그렇게 꼭 물을 떠놓고 향을 피워놓고 정성을 들였더니 아, 삿갓 쓴 허름하게 입은 스님이 지나가더랍니다. 그 스님을 불들고 그 사실 얘기를 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산소에도 있고 지금 집터에도 뱀 소굴이 그렇게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뼈 마디마디까지도 전부 뱀이 돼버렸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느냐?" 하시더랍니다. "어찌 안 듣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군데군데 망을 치라고 그러더랍니다. 저 왜 병아리 가두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망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예전에는 겨가 많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겨가 있으니까, 겻불을 피워놓고, 하얀 죽을 큰 함지박에다가 집터에도 세 그릇, 산소에도 세 그릇 갖다놓고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해놓는다면 당신을 살리겠노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 산소 구멍 뚫린 데로 그냥 수없이 뱀들이 나오더니 집에서는 기둥 밑에서 수없이 나오더랍니다. 수없이 나와가지고 그 죽을 잔뜩 먹고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기어서 그리로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냥 타서 그 껍데기는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버지의 영혼을 건졌다고 하시면서, 그러고 나니 그 집안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전부 불자가 되고 그 식구는 전부 승려로서 입산을 하게 됐더랍니다. 그런 얘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라는 것이, 그래서 첫째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한테 묘한 도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부모를 위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떡하면 살생이 되지 않나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일부러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할 때는 그 토끼도 내 몸이요, 토끼의 생명도 내 생명이요, 토끼의 그 마음도 내 마음이니, 바로 그 토끼를 죽이는 순간 죽인 게 아니라 자비라 이겁니다. 토끼는 바로 나로 인도환생이 됐단 말입니다.

토끼를 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으로서 인도환생이 됐기 때문에 탕 요리를 한 거죠. 탕 요리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약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요리도 된 거죠. 영혼을 요리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주고, 토끼라는 껍데기를 벗겨주고서 인도환생을 시킨 거죠.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들여놔도 들여놔도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거를 몽땅 내서 천도를 시켜도 내간 사이가 없다 이거죠.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가 바로 거기에, 여러분이 깨우치는 도리에 거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만법이 전부, 행이 전부 도 아닌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참 광대무변한 도리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한 토막의 인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그런 것도 옛날 전설의 고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인간으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만이 아마 그런 데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지도 말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지도 말고 '죽으면 어쩌나!' 하지도 말고 '살아야 하겠다.' 하지도 말고 몽땅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자기를 믿고 놓고 여기서 해결하라 이거죠. 자기 자신이 없다면 세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없다면 상대도 없고 자기가 나왔으니까, 나쁜 거 좋은 게 내 앞에 닥치니까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겁니다. 좋은 것도 내 탓, 언짢은 것도 내 탓이다 이거예요. 누구의 원망이나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게 그렇게 나간다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자까지 붙어서 여러분한테 공덕이 될 겁니다.

또 한 토막 얘기할까요. 이거는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의 얘깁니다. 어느 수좌가 와서 그 스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돈오(頓悟)와 점수(漸修)가 둘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둘이지."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와서 또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니죠?" 하니까 "그렇지, 둘이 아니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더러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네 둘이 아닌 줄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둘이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둘이 아닌 까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대답해보십시오. 둘이 아닌 까닭이 무

☞30면으로 계속

고(苦)라는 그 자체는 본래 공(空)

☞29면에서 계속

엇입니까? 그러니깐 그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이러더랍니다. "만 가지 물에 젖는 까닭입니다." 하더랍니다. 만 가지 물에 젖는 까닭! 그러니까 큰 스님이 또 묻기를 "젖는 것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 또 묻더랍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깐 아무 대답도 못하고는 삼 배를 올리고 그냥 가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젖는 것마저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돈오 점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전혀 없다 이 소리죠. 내가 그거는 간단히 뒤집으면 될 것이지만 여러분한테 그걸 말해주면 속이 다 드러나게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되니까요. 대신 내가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대답을 멋지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또 '그것마저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바람에 그만 거기에서 헉! 한 거죠.

또 언젠가 한번은 그거는 나도 직접 본 얘깁니다만, 목사인지 신부인지 하여튼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니까 그 큰스님은 "하나님이 왜 될 수 없겠나?" 하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네." 하면서 "자네가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 알고 자네가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아네." 아!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만큼 아네."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워요. 그냥 곱게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네가 요만큼 알면 나도 요만큼 알고 자네가 이만큼 알면 나도 이만큼 아네." 아,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여보게, 그 차나 먹고 가게." 이러거든요.

그때 차를 갖다가, 저 뭡니까? 그 나무 이름도 이제 잊어버려서…. 그냥 베어다가 쪼개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그래 그걸 한 차관씩 끓여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마다 먹는데 나는 그때 불청객처럼 그저 거기 가서 그 스님을 할아버지처럼 그냥 보고 그저 몰래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룽지 한 덩어리가 이 우주를 덮고도 남아, 너무 큰 거죠. 그리고 그 누룽지 하나가 이 세상 부처와 중생이 들이 아니게 다 먹고도 남아요, 그 누룽지 하나가. 그러니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러니 그렇게 멋진 말씀이니 참 더 할 말 없지 않아요? 그러곤 "차나 한 잔 먹고 가게. 자네가 귀신짓을 하면 자네가 귀신이고 자네가 귀신 노릇을 안 하면 귀신은 없어." 아, 이러곤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은 물끄러미 눈을 멀뚱멀뚱 뜨고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자네가 이만큼 크면 나도 이만큼 커!" 하는 소리에 그냥 눈이 멀건이, 거기 한 십오 분 동안 앉았더니 그때에야 정신을 차려서 가는 겨예요. 정신이 아주 그냥 없어져버렸어. 그걸 보고 나는 너무나 우스워서 그냥 웃고 누룽지 한 덩어리 얻어먹곤 조금 또 싸들고 나는 나대로 갔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멋진 양반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지 그저 싸움을 못해서 으르렁으르렁 합니다. 하나도 싸움할 것도 없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것도 없어요. 만 가지가 다 젖는 것에 있고 젖는 거마저도 없는 까닭이 뭐냐고 했는데 아니, 뭘 왈가왈부합니까? 네? 만약에 큰 것, 작은 것이 둘이라면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진리로써 무한하게 영원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군 할아버지도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 한민족의 어버이시다 이겁니다. 그분도 둘이 아니고, 부처도 둘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 아버지도 둘이 아니에요. 왜냐? 마음이 지혜로우냐 아니냐, 넓으냐 작으냐 이것뿐이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그 자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는 팔십일자를 두고 제일 처음과 끝을 보면 우리 염주알, 시발점과 종점이 어디냐 할 때 어딥니까? 시발점 종점이 어딥니까?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예? 거기서 차를 타기도 하지만 거기서 내리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염주알 돌릴 때 몇 번 돌리고 나면 제자리로도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게 둘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팔십종호(八十種好)라 했고, 단군 조상도 팔십일자를 남기셨습니다. 처음에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나중에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어때요? 얼마나 맛있는 소립니까? 세상의 생명들이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이, 보이지 않는 생명 보이는 생명이 이렇게 헤아릴 수도 없는데 무종일(無終一)이 아닐까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데 일시무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두가 어떻게 체계 있게, 체계 있는 거는 여러분이 살다보면 그냥 아주 계율 없이도 계율을 잘 지키고 시간도 잘 지키고,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지 않아요? 시간을 잘 지키고 사회적인 상식과 도의 · 의리 · 사랑 아,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충만히 재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달달 입으로 외우는 것만 하고, 머리로 굴리는 그러한 작업만 하다가 보면 몸도 나빠지고 병들고, 몸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 떨어지면 머리로 신경 쓰고 머리로 외우고 말로 그냥 달달달 외우던 게 다 떨어질 텐데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몸뚱이가 보지 않았어도 '아이고, 나는 오늘 큰스님….' 그건 여러분이 부르시는 큰스님입니다. 내가 커서 큰 게 아니라, 여기 스님네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늙은이를 큰스님이라고 그러고, 조금 젊은이를 총무 스님이라고 그러고, 시자 스님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죠?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냥 정돈해서 살자, 부지런히 뛰자 이런 건데, 그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하나 하니까 일시무시일 하는 것도 그 격이죠. 하나 하니까 하나 해도 하나요, 천 해도 하나요. 둘 해도 하나고, 셋 해도 하나고, 하나 해도 하나입니다. 너무 많으니깐 또 한 그릇 이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도 없다, '무(無)'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 그 무심 속의, 바로 그 무심 속의 심지에다가 불을 당겨라 이겁니다, 불을 당겨. 자가발전소입니다, 여기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져도 꺼지지 않는 자가발전소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용광로에 넣었다가 작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두번째는 자가발전소가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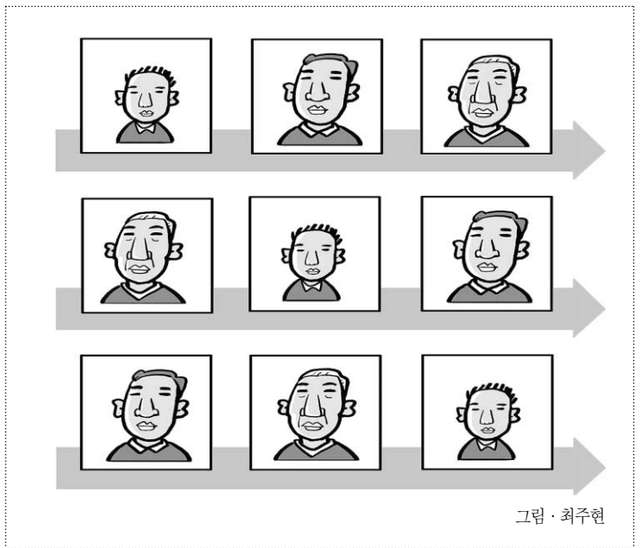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중에는 넣어도 넣어도 정말이지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그런 자유자재의 대권을, 그대로 법자를 마음대로 굴려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불바퀴를 타고 다니면서 법바퀴를 굴리고 말입니다. 불바퀴를 굴리고 용이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수많은 고기들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들락날락하고 꽃이 피고 새 우는데, 앞뒤 없는 펑 뚫린 피리를 불어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를 (양 손으로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감지하고 난 뒤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놓으셨나 하고 뜻을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현상의 진리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역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모르고서 아무리 읽어보세요. 뜻을 모르는 그 글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난 소신껏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 관여 안 해요. 모른다 해도 관여 안 하고 안다 해도 관여 안 하고 또는 비구니 뭐 어쩌고 해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깐요. 아무 상관이 없이 나는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인간 됨됨이가 문제지, 뭐 높고 무슨 장 하고 큰스님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도 눈을 꿈벅꿈벅하고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를 봅니다. 그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에 눈썹은 길게 덮히고 말입니다. 어떤 거든지 눈을 보면 그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연쇄적으로 짐승은 사람들의 손에 죽고 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야!' 하고선 속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소가 '난 가!' 하거든요. 그 소 속에 들어가서 소가 되어본다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금방 돌아가시게 된 분들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분의 살던 그것 다 버리고 가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다 버리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있을 때 좋았고요. 어떤 분은 '아이구, 저거를 두고 죽으면 어쩌나!' 하고 그렇게 가지 못할 분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어지러워요. 그러나 소 속에 들어가도요, 소는 아무 기탄이 없습디다. 그런데 착이 있어요. 무슨 착이냐? 소로 살던 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습을 없애주려면 내가 소가 돼야 돼.

그래서 옛날에도 어느 보살이 돼지 속에 들어갔는데 돼지 속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있으니까, "아이구! 돼지물 들어, 빨리 나와." 이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죠. 보살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니까 "빨리 나와, 그 돼지 습이 물들 테니까."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남의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나툼입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남의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속을 감지할 수도 없다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면서 나를 건지고 남을 건집니까? 그래서 소가 들이 아니어서 눈을 꿈벅꿈벅하니까, 내 눈에도 눈물이 글썽 그 눈에도 눈물이 글썽, 빙긋이 서로 웃고 헤어질 때는 바로 그 몸은 고통이 없이,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 내 주인공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 죽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성신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삼심이 일심이니까, 부처 문수 보현이 바로 일심이자 삼심입니다. 왜냐? 일심이 나오기 이전에 부쳐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벌써 그거는 법입니다.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심이 일심이지 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습은 셋이나 마음은 일심입니다. 그래서 삼심이 여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심조차도, 어떠한 마음을 낼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일심 자체도 없느니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걸로써 마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계종이 주최를 해서 연등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등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물에다가 연등을 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등과 연등이 어떻게 돌이겠느냐 이겁니다. 이 마음 심(心), 즉 말하자면 심지에다 불을 당기면 바로 인등이자 연등입니다. 연등에다 불을 붙이니까 인등이 되죠. 그래서 그 인등에다, 우리가 이를테면 미생물에서부터 나올 때 모두가 우리 고향입니다. 물도 고향이고 불도 고향이고 바람도 고향이고 전부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없어도 못 살고 불 없어도 못 살고, 흙 없어도 못 살고 공기 없어도 못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뿐이 아니죠. 생명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참, 앞산 뒷산이 어우러져서 남한산성 북한산성이 있듯이 말입니다. 북한산 남한산 어우러져서 꽃이 피고 새 울고 또 나비가 날아들고 어우러져서 서로가 합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북통일도 기원할 겸 또 우리 마음 한생각 불을 붙여서 참 우리 한 있는 민족이 한이 없이 앞으로 좀더 계발하고 지혜 있게 우리가 문화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 산 부처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연등 행사 잘들 한마음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행담도 자주 좀 얘기해주시면 저도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면서 좀더 여러분을 생각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끔 해주십시오. 이것도 서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이 공부가 아무 저것도 없이 하면 상당히 외롭고 심심할 테니깐요. 해도 함이 없이, 써도 쓴다는 생각 없이 쓰십시오. 자기가 없는데 쓴다는 생각이 어딨으며 쓰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저것 없는 그 가운데 주먹 하나 불끈 쥐고 내리칠 수 있는 그런 멋쟁이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노력해봅시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37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신후비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3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3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치발란스 Dangchee Balance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월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1시 ~ 3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봄산 약초 가득 건강 캐러 가세

약초도감 지참, 식물보호 중요

최근 건강을 두 배로 챙길 수 있는 '약초산행'이 화제다. 약초요리나 약초목욕 등 약초를 응용한 건강지킴법을 넘어서, 산행으로 힘을 키우고 약초로 병을 다스리는 적극적인 건강 관리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봄맞이 약초여행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약초는 어디에 있을까**= 흔히 약초는 깊은 산속에 숨어있어서 웬만해서는 찾아내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토종약초연구소 최진규 대표는 "가장 흔한 풀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약초는 식물이 자라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험한 약초, 토종 약초가 그득한 산지가 있기 마련. 약초의 천국이라 불리는 파주 감악산은 약초의 가짓수도 많거니와 약효가 특히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다. 원주 치악산도 봉우리마다 영험한 약초가 넘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창 오대산 을수골 역시 다른 산에서는 하루종일 찾아 헤매도 구경도 못하는 당귀, 만삼 같은 귀한 약초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이밖에도 도인과 선각자의 땅 부안 변산, 산삼과 산나물로 사랑받는 화천 용화산, 산수가 빼어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고성군 고원계곡 등은 다양하고 효험있는 약초가 산재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감악산 치악산 등 효능 우수
봄철 열매보다 어린 싹 좋아
나무약재 4~6월 채취해야

■ **어떤 약초를 채취할까**= 약초를 채취하려면 먼저 마땅한 채집시기를 정해야 한다. 같은 약초라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 약초와 유효성분이 달라지기 쉽기 때문이다. 취오동이라 부르는 누리장나무는 꽃이 피고 난 뒤에 채취하면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한 예다.

요즘 같은 이른 봄철에는 꽃이나 열매보다는 어린 싹 등 잎으로 쓰는 약초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초봄에 올라오는 '원추리' 싹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기능 증진에 좋다.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지니고 있는 '곰보배추'도 이른 봄 산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약초다. 해수 · 천식 · 기침 등에 특효약이라 불리는 곰보배추는 푹 삶아 술로 담궈도 좋고 뿌리를 달여먹어도 효능이 탁월하다. 이밖에도 봄에 샛노랗게 피는 생강나무 꽃은 뼈와 근육발달에 도움이 되고, 청미래덩굴 뿌리를 캐어 잔뿌리를 달여 마시면 신경통이나 중금속 해독 등에 좋다.

■ **어떻게 채취할까**= 약초산행을 떠날 때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식물도감이나 약초도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식물이름을 알고 비슷한 식물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식물을 분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식물의 보호다.

잎이나 꽃만을 약초로 취할 때는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지 말아야 하며, 땅속뿌리를 쓰는 식물들도 될 수 있으면 뿌리의 일부분을 남겨둬서 남은 뿌리에서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나무껍질을 쓰는 약재는 4~6월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나무가 한창 물을 빨아올릴 때는 껍질이 잘 벗겨지기 때문이다.

약초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다면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약초산행 모임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 한국토종약초연구소(02-720-4420)는 최진규 약초연구가의 주관 하에 지역별 약초산행을 매월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종야생산야초연구소(051-464-0307)에서는 전동명 약초연구가가 약초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을 이끌고 정기적인 약초산행을 벌인다. 자연치유대학(02-842-0775) 역시 생활약초학회 회원와 산나물 교실회원들을 비롯,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인들과 함께 매월 둘째 주 약초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원추리 어린순(위)과 곰보배추(아래).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⑬

자연그대로의 신선한 음식 섭취

3도샤의 밸런스를 위한 음식들 I



우리 몸에서 카파, 피타, 바타가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3도샤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먹어주어야 한다.

먼저 곡물류로는 쌀, 보리, 기장, 명아주, 콩류로는 녹두, 강낭콩, 팥이 좋다. 과일은 익힌 사과, 배, 파파야, 건포도, 바나나, 망고, 적당량의 오렌지를 먹되 가공한 것보다는 과일 그대로의 성분을 먹도록 한다. 채소류로는 시금치, 호박, 브로컬리, 꽃 양배추,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당근, 고구마 등이 좋다.

무가공 과일 살짝 끓이거나 데친 채소
따뜻한 차 냉장고에 넣지 않은 물 도움
카파-완두콩, 달 좋아 … 과하면 부작용

이밖에 잎이 많은 채소, 살짝 끓이거나 데친 채소, 후라 이 팬 에 기름을 살짝 둘러 볶은 채소도 괜찮다. 샐러드로 먹고자 할 때는 신선하고 푸른 야채에 참기름과 레몬 주스 드레싱을 듬뿍 넣어도 상관없고 기타 원하는 양념을 곁들여 먹어도 된다. 양념류로는 신선한 생강뿌리, 삼황, 호유자나 잎이나 커민 기름(카레에 쓰이는 노란 색이 도는 성분), 감초, 회향 기름, 생강과의 가르다몸, 시나몬, 신선한 바실(차조기과의 나륵풀), 겨자씨 등을 들 수 있다.

소금은 적당량의 미네랄 소금, 검은 소금, 암염(岩鹽)을 섭취하고 감미료는 적당량의 생꿀, 단풍잎에서 추출한 단풍당밀, 마른 사탕수수 주스가 좋다. 견과류는 껍질을 벗긴 적당량의 아몬드, 단맛을 첨가하지 않은 코코넛, 참깨와 호박씨가 도움이 된다. 기름은 참기름, 올리브유, 해바라기, 아마씨, 카놀라유, 기(ghee, 액체 버터) 등이 좋고, 음료로는 따뜻한 허브차나 곡물 음료, 물 등을 많이 마셔주면 좋은데 이때 물은 냉장고에 넣지 않은 물이 좋다. 빵으로는 밀이나 옥수수 빵 등이 좋은데 가급적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은 것을 먹도록 한다.

다음으로 3도샤 각각에 맞는 음식들을 살펴보자.

카파의 곡류로는 보리, 메밀, 조, 귀리, 귀리 왕겨, 뮤즐리, 적당량의 밀을 들 수 있다. 콩류는 대부분 다 좋으나 그중에서도 완두콩, 달(dal: 렌즈 콩과 향료를 사용한 인도 요리)이 특히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공 가공한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콩 성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과일류는 사과나 크랜베리, 석류, 말린 과일(건과일), 작고 수분이 많은 딸기류가 좋은데 이 중 딸기는 적은 양을 섭취토록 한다. 채소류는 아스파라거스, 사탕무(beet), 달지 않은 멜론, 브로컬리, 비트 잎, 양배추, 마늘, 녹색 콩, 회향풀, 당근, 케일, 서양 고추냉이, 잎이 많은 야채, 부추, 양상치, 익힌 양파, 시금치, 콩나물, 호박류, 순무, 그리고 적은 양의 엉겅퀴, 우엉 뿌리와 싹 양배추가 좋다. 양념류로는 후추, 고추, 생강, 시나몬, 정향(clove), 말린 월계수 잎이 도움이 된다. 유제품은 적게 섭취하되 염소 우유와 기(ghee) 중심으로 먹도록 한다. 육류로는 신선한 생선, 새우, 토끼 고기, 사슴 고기와 적은 양의 닭과 칠면조의 흰살 부분, 견과류로는 적은 양의 아몬드, 기름류로는 적은 양의 올리브, 옥수수, 카놀라 유 등이 좋다.

■ 포천중문의대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광원 (자연속에 보금자리)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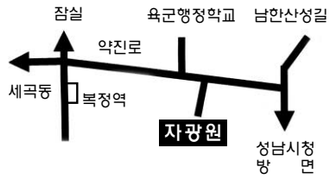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인도그림기행 40

佛光이 온누리 비추니…

그림·글 이호신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제 무사한 순례로 모두 무위법(無爲法)의 만선(滿船)에 올랐습니다. 이 인연의 소중함은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일행 중 가장 연장자이자 순례 단장이시기도 한 조홍식 박사님의 말씀은 모두들 숙연케 했다.

새벽 5시. 이름도 사랑스러운 '사랑코트'.

그 전망대에 오르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가 펼쳐진다는 말의 설레임속에 일행은 캄캄한 산길을 오른다. 어둠속 초행길을 각자 더듬고 올라가는 하늘엔 반달이 내내 따라오며 길섶을 살펴준다. 또한 밤 하늘 뜨락의 총총한 별들을 머리에 이고 굽어보니 산 아래에도 가물거리는 마을의 불빛들. 지상과 우주가 모두 어둠속에 빛을 토하고 있다. 제법 싸늘한 기운이건만 등반의 긴장은 외려 땀을 씻게 하며 오르는 길.

여명 속에 하나 둘씩 깨어나는 히말라야의 산마을. 여인들이 물을 긷기 위해 이마에 띠를 두른 통지게와 물통을 들고 오르내린다. 어깨띠와 이마띠 중 어느 것이 더 신체적으로 합당한 것일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풍습은 몇 해전 아프리카 마사이족들이 이마띠로 나무짐을 나르던 만남에서부터 일어난 의문이다.

히말라야 산지에 제비둥지같이 숨어사는 사람들. 그러나 수공예 기념품과 약초를 파는 이들은 한 자리에서 세계 인종들을 고루 만난다. 즉 히말라야가 품은 하늘 지붕은 지구촌의 이웃을 새벽같이 오늘도 불러들이며 그 위용과 장관을 만끽하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사랑코트 전망대에 이르자 벌써 많은 지구촌 형제들이 카메라를 매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어둔 산을 오르느라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고 외길이니 절대 무리하지 말고 힘이 부친 이는 적당한 지점에서 하산하라는 안내가 있었음에도 전망대에 먼저 오른 분들은 칠순이 넘은 어른들이셨다.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정신적 가피에서 오는 걸까. 인생역정의 고난을 이겨낸 지사(志士)들의 면모 앞에 다만 외경심이 절로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그 같은 감회도 잠시, 온통 운무에 휩싸인 히말라야는 어쩌면 오늘 정상의 자태를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동행들의 말에 아연 허탈해진다.

2000년 여름,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을 보기 위해 아루사 마을을 경유했을 때 함께 한 한국대사 부인이 옆에서 한 마디 했었다.

"이 선생께서 전생에서 얼마나 공덕을 쌓아 두었나 어디 오늘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나 첫길에서는 끝내 구름에 휩싸여 소망이 무너져 내렸던 킬리만자로. 오로지 내 부덕을 탓하며 다음을 기약해야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하지만 오늘은 결코 아니야. 나의 부덕보다는 저 절절한 지구촌 형제들의 염원과 순례의 기도가 또한 있지 아니한가. 따라서 행운을 기대하며 인적 드문 벼랑 끝 돌담아래 화첩을 펼쳐놓고 먹을 갈며 한없이 하늘 지붕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순간은 마치 심신이 허공에 떠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가슴 조리며 기다리는데 히말라야의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전망대로 뛰어 올라가 보니 검푸른 창파같은 구름창을 뚫고 태양이, 붉은 해가 마침내 돋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해가 장엄한 하늘지붕을 비추기 위해 반대쪽에서 솟구치니 히말라야는 태초부터 새날의 햇살로 살아나는 운명을 지녀온 산인 것이다.

사랑코트 전망대에 오른 모두의 사랑이 합쳐져 '하늘 문'을 열게 하는가. 해가 솟아오르자 어느 영상처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맥을 가로막던 구름층들이 하나 둘 꼬리를 달고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행운이다.

오! 안나푸르나(Annapurni).

해발 7555m에 이르는 설산(雪山)의 위용은 산 아래에 걸린 운무로 인하여 더욱 신비롭게 새날 새 세상에 드러난다, 그런데 실상 피라밋처럼 뾰족하게 솟아 오른 정상은 마차푸차레(Machmapuchre, 해발 6993m) 봉우리로 시각상 더 높게 보이는데 '물고기 꼬리'라는 뜻으로 정상에 올라 보면 형상이 꼭 그렇게 보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어쨌든 정상인 안나푸르나 제 3번 봉우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제1, 제2, 제4 봉우리가 양 날개를 펼치듯, 하늘 지붕의 용마루가 되어 끝간데 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 산허리를 맴돌다 내려온 봉우리 아래로 구불거리며 달려오는 한줄기 유장한 강물 띠가 사바세계로 달려오니 비로소 그 주변으로 논밭과 성냥갑 같은 집들이 점점이 살펴진다.

해가 모든 어둠을 뚝뚝 떨치고 올라 사방을 고루 비추기 시작하자 하늘과 땅이 경계없는 천지불이(天地不二)요, 삼천대천 세계의 이치가 만법귀일(萬法歸一)로 승화되는 감동으로 차 오른다.

이 장엄한 인연속에 어느 듯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오늘에 이른 보은(報恩)을 생각하며 돌아가기 위해 떠나온 삶의 뒤안길을 추스린다. 그리고 함께 한 인도 순례의 인연들. 그 모두의 염원은 마침내 히말라야의 불광(佛光)이 되어 온 누리에 번진다.

lhs1957@lycos.co.kr



히말라야 안나푸르나(143×74cm).

밝아오는 하늘 지붕 아래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새날)

전생에 공덕 쌓아야 볼수있다는 히말라야
칠순 어른들의 등반 열정에 외경심 절로
안나푸르나에 펼쳐진 사바세계 감동의 물결



히말라야 산마을(28×40.5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이미 3만명의 불자가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품.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을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 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엠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가능. 예 :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 문의처 032–772–5451
02–733–6141


인간문화재 원광식

인간문화재 원광식선생의 작품을 느껴보세요


용무늬풍경 15,000원


조선의종 180,000원


일반보급형종 100,000원


전자 한국의종 297,000원


전자시계종 160,000원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현대불교

제 467호
부록
구독신청: 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8년(서기 2004년) 3월 31일 수요일(음력2월11일)



선의 황금시대 활짝 열렸다

법회 · 논강 이어져 … 수행불교 새물결 전국 출렁

선원장 초청법회 매주 3천여명 운집 '열기'

온 사회가 수행과 명상 열기로 뜨겁다. 관련 서적이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가 하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대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선, 위빠사나 등 수행 프로그램이 단골로 오른다.

각박해진 도심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들의 자연과 산사에 대한 동경 탓일까. 한국 전통의 간화선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흐름에 호응하듯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도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간화선 수행 지침서' 편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 사찰의 참선 실수(實修) 프로그램을 연달아 개설하고 있다.

바야흐로 이론과 실천을 함께하는 '수행불교'가 개인적 복을 바라는 '기복불교'와 '지식불교'를 넘어서 한국불교의 새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수행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참선법회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사찰에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승 및 선사 초청법회와 논강이 잇따라 열려, 간화선 수행풍토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조계사(2월15일~5월9일), 도선사(3월2일~4월13일), 봉은사(2월21일~4월10일), 보문사(3월21일~27일), 부산 혜원정사(2월24일~3월14일), 감로사(2월29일~3월4일), 소림사(3월5일~11일), 장원 성주사(2월27일~3월5일) 등이 '고승 및 선원장 초청법회'나 '논강'을 펼쳐 출 · 재가 수행자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조계사-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로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에는 매번 3천여 불자들이 대중전과 앞마당, 극락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선원장 초청법회에 대한 엄청난 반응은 조계종 포교원이 올초에 발표한 '신도 수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가장 지도받고 싶은 수행법으로 참선을 든 사실에서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선지식들의 대중 설법은 수행체계 미비와 이끌어 줄 스승의 부재라는 오래된 화두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경허 선사 이후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조계종이 새로운 선풍을 떨치기 위해서는 제방 선지식들의 사자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원장 초청법회를 비롯한 많은 참선법회들이 간화선 중흥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 면 안 내

2면 · · · · · · · · · · · · · · · · · 재가자 참선 붐
3면 · · · · · · · · · · · · · · · · · 문답점검이 뜬다
4면 · · · · · · · · · · · · · · · · · 대효 스님이 말하는 생활선
5면 · · · · · · · · · · · · · · · · · 미산 스님이 말하는 선수행 원리
7면 · · · · · · · · · · · · · · · · · 법문 듣고 단박깨치기
8면 · · · · · · · · · · · · · · · · · 자세 · 호흡법 · 화두참구법
9면 · · · · · · · · · · · · · · · · · 성본 스님이 말하는 좌선법
10 · 11면 · · · · · · · · · · · · · · · · · 읽을만한 선서
12면 · · · · · · · · · · · · · · · · · 무문관 수행
13면 · · · · · · · · · · · · · · · · · 경허 · 만공 · 한암 스님의 공부법
14면 · · · · · · · · · · · · · · · · · 효봉 · 동산 · 경봉 스님의 공부법
15면 · · · · · · · · · · · · · · · · · 금오 · 전강 · 성철 스님의 공부법

■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 안내(조계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 문의: 조계사 (02)732-2115,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4월 11일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선 수행의 요체
4월 18일	혜국 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4월 25일	현응 스님	미 버클리육조사 주지	한국 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5월 2일	도현 스님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선-스스로 만드는 행복
5월 9일	설정 스님	수덕사 수좌	단박 깨침(돈오)이란 무엇인가

특별 취재팀

대표집필 : 김재경 차장
사진 : 박재완 · 고영배 기자

선방마다 구도 열기… 출·재가 따로 없다

간화선에서 조사선 공부법으로

넓은 의미에서 조사선은 선종의 여러 조사들이 전한 선을 가리킨다. 여래선이 혜능선사의 남종 창립 이전 중국에 전래된 인도불교의 선법을 가리킨다면 조사선은 육조혜능 선사가 세운 선법을 가리킨다.

언설과 이론, 사변을 중시하는 여래선과 달리 조사선은 언어 문자를 초월하여,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격외도리를 말하는 특징이 있다.

조계종은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재가 수행자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선방에서 조차 제3수행법을 공공연히 북인하는가하면, 간화선을 버리고 남방수행법을 찾는 스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선의 한 방편으로 확립된 간화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를 가능하게 하는 선문답과 지도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로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勘辨)' 과 '인가(印可)' 등 전통 수행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명선원 회주 대효 스님은 "조사선의 수행법은 화선, 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문답법이라는데 보편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가자 안거 · 용맹정진 붐

매년 여름과 겨울, 3천여 스님이 안거수행에 들어가는 결제를 본받아 재가자들의 참선 수행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여름과 겨울 3개월간 실시되는 안거 때면 3천여 명의 재가자들이 일제히 선방에 방부를 들인다. 매주 또는 매달 정기 철야참선을 하는 재가불자들도 늘어나 스님 못지 않는 용맹정진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시민선원은 재가자 안거수행을 하고 있는 30여 곳을 포함한 50여곳. 매달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불자들은 1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생겨난 20여 사찰수련회 동문회에서 정기 참선을 하고 있는 회원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참선이 스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보림회 전홍근 총무는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과 이로인한 이혼 등 가정붕괴로 정신적인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재가자들의 참선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어록 공부모임도 늘어

선사들의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판단아래, 선어록을 공부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현재 선어록을 강의하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강남포교원, 안국선원, 우곡선원, 무심선원 등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선어록연구소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강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선어록 공부는 선어록 해설과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고, 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 체험을 지도해 주는 특징이 있다. 깨달는 일이야 확인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록 공부는 이제 참선 수행자들의 인기있는 공부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행체계 확립-대중화 과제

이러한 한국 선불교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간화선 수행의 제반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조사선의 수행법과 문답법, 점검체계 등을 바르게 파악,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풍토의 문제점과 관련,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수행자들이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나 실천 수행 방법의 문제, 불법 정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수행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 스님은 "최근 간화선에 대한 잇따른 비판에서 알 수 있듯 부족한 선지식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수행체계의 확립과 대중화의 노력은 한국 간화선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국선원장회의 회장 혜국스님(남국선원장)은 "정작 비판해야 할 것은 간화선이 아니라 발심하지 못하는 수행자들의 자세"라며, "간화선을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스스로 증득해가는 수행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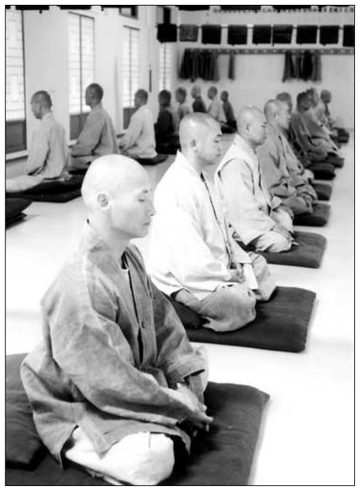
1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탁월한 생활 수행법인 간화선. 중국과 한국에서 수많은 선장(禪匠)들을 배출한 조사선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최상승 수행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시대에 맞는, 오늘의 언어로 체계화시킨 '수행체계'를 만들기만 한다면, 위빠사나와 이른바 '제3 수행법'에 몰리고 있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정통 조사선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말 철야참선으로 즐거운 인생"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전통사찰이나 시민선원, 재가 수행단체에서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쁜 일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가 불자들은 철야 참선을 통해 1주일간 미뤄둔 선정 수행에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활기차게 맞이한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울 화계사, 보림선원, 미타사, 수선회를 비롯해 부산 해운정사, 통도사 극락선원, 대전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부석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철야참선법회를 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해인사 백련암(매월 넷째 토)과 원당암(매월 첫, 셋째 토), 선학원 중앙선원, 서울 법련사, 통도사 분당포교원 장안사, 대구구도회 등이 매달 1, 2회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곡선원, 범어사, 공림사, 대전구도회, 법륜사, 홍련암, 장안사도 매월 1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출 · 재가 수행자들의 정진 열기가 뜨겁다. 사진은 법주사 총지선원(사진 위)과 수선회의 입선 모습.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단 체	시 간	연 락 처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부석사	매월 마지막 토	(054)633-3464
회계사 선우회	매주 토	(02)900-4326
보림회	매주 토	(02)914-6187
수선회	매주 토	(02)517-3108
우곡선원	매월 첫째 토	(02)2055-3111
선학원 선정회	매월 셋째 토	(02)732-3327
통도사 극락암	매주 토	(055)382-7083
학림사 오등선원	매주 토	(042)825-0515
미타사	매주 토	(02)662-4736
법련사	매월 마지막 토	(02)733-5322
공림사	매월 셋째 토	(043)833-1029
대구구도회	매월 마지막 토	(053)654-8533
대전구도회	매월 셋째 토	(042)527-0559
법륜사	매월 둘째 토	(043)878-6122
홍련암	매월 첫 · 셋째 토	(063)263-6072
해인사 백련암	매월 넷째 토	(055)932-7300
해인사 원당암	매월 첫 · 셋째 토	(055)963-9551
범어사	매월 첫째 토	(051)508-3122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주 토	(051)816-2241
장안사	매월 마지막 토	(031)703-7766

마음 깨달으면 마음이 곧 道

금오 스님

유심, 헛된 생각 사회적 병폐
바른 심행이 불도성취 이뤄

시방세계를 꿰뚫어 보고나니(透出十方界)
없고 없다는 것 또한 없구나(無無無亦無)
낱낱이 모두 그러하기에(個個只此爾)
아무리 뿌리를 찾아봐도 없고 없을 뿐이네(覓本亦無無).

마음은 마치 여의주 같아서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만 깨끗하게 한다면 근심 걱정과 일체의 고통을 여읠 수 있다. 천상천하를 찾아보아도 마음은 자취가 없으나 홀연히 깨달으면 보지 못한 한 물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도가 된다.

"마음의 주인공아, 내가 너를 알면 성인이 되지만 너를 알지 못하면 범부가 되어 생사의 바다에 빠져 모든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혼이 흩어지지 않았으되 죽은 사람이요, 눈은 떴으되 눈 뜬 장님인 것이다. 모든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나를 찾았을 때 이러한 죄와 속박이 풀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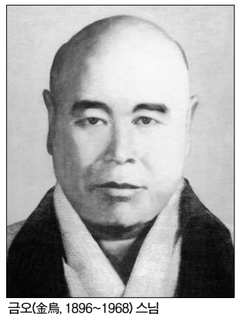
무(無)의 밭에서 자란 무심(無心)은 일체의 어리석은 마음을 앗아간다. 무심은 곧 티끌 한 점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무의 반대편에 유(有)가 서 있다. 유의 밭에서 성장한 유심(有心)은 사사로운 마음, 삿된 마음, 헛된 생각의 뿌리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는 다른데 있지 않다. 유심이라는 전염병에 의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남보다 많이 구하려 하고,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 하는 탐욕과 이기심이 본디 극락인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다.

도(道)를 배우려면 먼저 눈 밝은 스승에게 나아가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도업(道業)을 성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도(佛道)를 성취하려고 뜻을 지닌 이는 발심(發心)과 지혜심(智慧心)과 정진심(精進心)과 진실심(眞實心)과 견고심(堅固心)과 정행심(正行心)과 그밖에 정어(正語) 자리행(自利行) · 이타행(利他行) 등 여러 가지 행도 아울러 닦아야 한다.

이제 도를 배우려는 이들이여! 스승을 찾아 참선(參禪)을 놓지 않으면 결정코 성불할 것이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탐진치(貪嗔癡)나 도둑질을 저지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축생(畜生)과 가난의 죄업(罪業)이 따를 것이니, 살피고 살피라.

육신의 굶주림은 밥으로 면할 수 있지만 지혜의 굶주림은 오직 도덕으로만 채울 수 있다. 탐심(貪心)을 돌려 보시심(布施心)을



금오(金烏, 1896~1968) 스님

발행(發行)하자. 진심(嗔心)을 돌려 인욕심(忍辱心)을 장양(長養)하자. 치심(癡心)을 돌려 지혜심(智慧心)을 조양(照養)하자. 악심(惡心)을 돌려 선심(善心)을 상행(常行)하자.

단박에 깨쳐야 본성 볼 수 있어

전강 스님

정법 잘못 전하면 후세에 허물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불교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하는 법인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등등상속(燈燈相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만일 부처님의 정법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한다면 후세에 끼치는 허물이 많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염화시중(拈花示衆)과 가섭미소(迦葉微笑)도 다 망설이다.

대중들이여! 위음왕불(威音王佛)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친 자는 모두 천연외도(天然外道)라 했으니, 법을 받은 명안종사(明眼宗師)에게 인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제일이라 하며 묘한 언구문자선(言句文字禪)을 활구(活句)라 하고 학자들을 속이고 있다면 이러한 외도들은 부처님도 구하지 못하리라. 금일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닦는 대중들은 명심할 지어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활구참선법인가? 모름지기 조사관(祖師關)을 뚫어야 하나니 오직 화두만 잡드리 하되 이치길도 없고, 말길도 없고, 마음길도 없나니, 이렇게 용맹정진해나가다가 직하에 대오하는 것이다. 즉 한 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야 곧 너의 본성을 보느니라.

"일러라. 너의 본래면목을 일러라. 왜 너의 본래면목을 모르는가. 어서 일러라."

이렇게 다그치고 입만 열면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여는가?" 삼십 방을 막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 주장자를 척 빼앗아 들고, "이 방을 한번 이르시오." "오냐, 그 방을 맞고 나갈테니 너도 또한 일러라."

법이란 이런 것이니 여기서 똑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격외장부(格外丈夫)인데 무슨 걸림이 있겠는가?

내가 나를 깨닫는 누진통(漏盡通)은 본각을 매하는 법이 없느니라.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이렇게 대평등 대원융(大平等 大圓融) 이사무애 사사무애(理事無碍 事事無碍)의 원각대지를 증득하고 이 삼계화택에서 색상경계에 집착하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야 하느니라.

마음은 일만 경계를 따라 구르고(心隨萬境轉) 구르는 곳마다 실로 능히 그윽하다(轉處實能幽) 흐름을 따라 성품을 인득하면(隨流認得性)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느니라(無喜亦無憂).

이 게송은 이십이조 마나라 존자가 이십삼조 학륵나 존자에게 설하여 오백 마리의



전강(田岡, 1898~1975) 스님

학을 제도케 하신 게송이다.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법신이요 화장찰해(華藏刹海)다. 깨친 분상에는 무슨 걸림이 있으리오, 오직 인연있는 중생을 위하여 생사해탈의 정법을 전할 뿐이로다.

'心' 옳게 해결 일체만법 통찰

성철 스님

심혜의 눈 뜰때 자성볼 수 있어
화두, 잠들어서도 일여해야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라고 말합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고도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心'자 한 자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돌돌 뭉치면 '心'자 한자위에서 있어서 이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 눈에 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하여 공부하는 단계를 보면, 첫째 동정일여(動靜一如) 즉 일상 생활에서 가고 오고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변함없이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여부변 하여야 합니다.

동정일여가 되어도 잠이 들어 꿈을 꾸면 공부는 없어지고 꿈속에서 딴 짓하며 놀고 있는데, 꿈에서도 일여한 것을 몽중일여(夢中一如)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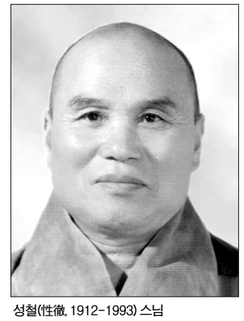
몽중일여가 되어도 앞에서 말했듯이 잠이 깊이 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잠이 꽉 들었을 때에도 여여한 것을 숙면일여(熟眠一如)라 합니다.

숙면일여가 되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백척간두(百千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깨쳐야만 그것이 실제 견성입니다.

그런데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숙면일여는 고사하고, 몽중일여도 고사하고 더구나 동정일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견성했다, 깨쳤다고 인정해 달라고 나한테 온 사람만도 수 백명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이 화두란 것은 잠이 깊이 들어서 일여한 경계에서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크게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무슨 경계가 나서 크게 깨친 것 같아도 실제 동정에 일여 하지 못하고 몽중에 일여하지 못하고 숙면에 일여하지 못하면 화두를 바로 안 것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본표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잠들어서도 일여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부지런히 화두를 하여 잠이 꽉 들어서도 크게 살아나고 크게 깨쳐서 화두를 바로 아는 사람, 마음 눈을



성철(性徹, 1912~1993) 스님

바로 뜬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라도 좋고 반쪽이라도 좋으니 실지로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생겨서 부처님 혜명(慧命)을 바로 잇도록 노력합시다.


효봉(曉峰, 1888~1966) 스님

인연에 두고 옳고 그름 판단 말라

효봉 스님

법계 모든 것이 자기 재량
일념으로 수행하면 대장부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우리 형제가 동서남북에서 모두 여기 모여 왔으니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인고.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곧 부처인데 무엇 때문에 부처가 부처를 구하려는가. 그것은 바로 물로써 물을 씻고 불로써 불을 끄려는 것과 같아 자기의 재량(財糧)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런 경지에 이르면 천불(千佛)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생각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내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니라.

만사를 모두 인연에 맡겨 두고 옳고 그름에 아예 상관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이 갑지기 일어나거든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어 버려라.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들거나 본래 공안에 헛갈리지 말지니 만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그는 세상 뛰어난 대장부이리.

그런데 그 속의 사람은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가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쉬지 않으면 고요한 곳이 곧 시끄러운 곳이 되고, 내 마음이 쉬기만 하면 시끄러운 곳도 고요한 곳이 된다. 그러므로 다만 내 마음이 쉬지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요, 경계를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계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은 경계가 아니니, 마음과 경계가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 걸림 없는 한 생각이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형제들이 삼 년이나 몇 십년 동안에 바른 눈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소견에 집착하기 때문이니, 그럴 때는 선지식을 찾아 공안을 결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 그런 선지식이 없을 때에는 고인(古人)의 어록(語錄)으로 스승을 삼아야 하느니라. 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묵언(默言)하는 일이니,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말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가는 곳마다 걸린다 하였으니 이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그대가 고향에서 왔으니 아마 고향의 일을 알 것이다. 떠나는 날 그 비단창 앞에 매화꽃이 피었던가? 주장자로 선상을 한번 올리고는, "밝은 밤 삼경에 별들이 반짝이고 강성(江城) 오월에 매화꽃 떨어지네." 하고 자리에서 내려 오시다.

자기생각 집착이 깨달음 걸림돌
만사를 인연에 맡겨 두고
옳고 그름에 상관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라.


동산(東山, 1890~1965) 스님

신심으로 법 들으면 지혜문 열려

동산 스님

공부 열심히 하면 三學 원만
사람이 다를 뿐 마음 본래 평등

하루종일 창 앞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盡日窓前滿面睡)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夜來依舊捉老鼠)

공부인은 계행을 깨끗이 가져야 한다. 더러 보면 계를 우습게 여기고 불조의 말씀을 신(信)하지 않는 이가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행한 일이 없고 조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해(解)와 행(行)이 분명해야만 한다. 만일 해와 행이 나누어지고 각각 다를 것 같으면 이것은 온전함이 아니다.

참으로 공부를 여실히 지어 나가면 저절로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원만해 진다. 계(戒)란 별 것이 아니다. 미(迷)해서 잃었던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때가 곧 계이다.

그렇게 알면 곧 정(定)이 있고, 정(定)이 있을 때 계가 나는 것이며, 도(道)가 있을 때 계가 나는 것이며, 도(道)가 있을 때 계가 함께 나는 것이니, 정과 계와 도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은 한 물이나 하나는 독이 되고 하나는 젖이 된다.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들는데 한 사람은 지혜를 이루고 한 사람은 도리어 번뇌망상의 독해(毒害)를 이루니 들는 바 법은 하나인데 한편에는 지혜가 되고 다른 한 편에는 번뇌의 독해가 되니 왜 그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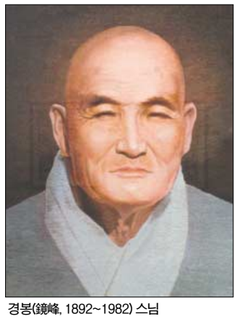
이 마음은 본시 뚜렷하여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어디는 더 생각하고, 어디는 덜 생각하고 하는 치우침이 없고 본래 평등하여 피차(彼此)가 없는 것이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요, 사람이 다른 것이다.

참으로 바르고 철저한 신심으로 마음을 순종하여 법을 듣는 사람은 지혜를 이룰 것이고 그 마음을 거슬려 순종치 않으면 지혜가 변하여 번뇌망상의 독해가 되는 것이다.

본래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닦을 것이 없는 걸 알고 닦아야 바로 닦는 것이지, 닦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닦으면 바로 닦지 못한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니, 한 마음의 가운데 무슨 성쇠가 있겠는가? 천겁을 지나도 예스럽지 않고, 만세에 걸쳤으나 항상 오늘이네. 해마다 해마다 좋은 해, 달이면 달마다 좋은 달.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 때마다 때마다 좋은 때이니, 무슨 간택이 있으리요.

가야산 상봉에는 달이 처음 떴고(伽倻山上初月生)
홍류동 계곡에는 물이 만 리나 흐르네(紅流洞千水萬里).


경봉(鏡峰, 1892~1982) 스님

일상 생활서 每事 깨달으면 부처

경봉 스님

삼독에 밝음 잃어 말 · 행동 장애
애착 버리면 사바세계 삶 원만

부처란 깨닫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나의 심성(心性) 즉 진아(眞我)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일상 생활에서 매사를 깨달아 알면 부처이다. 마음 외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외에 따로 마음이 없으니 부처와 마음이 둘이 아니다.

마음 청정한 게 바로 부처이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본래 맑고 밝은 것이지만 근본 무명인 탐(貪) 진(瞋) 치(痴) 삼독 때문에 밝음을 잃어 버려서 말과 행동이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사바 세계를 무대로 연극을 한바탕 멋들어지게 하다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멋들어지게 하는 것인가 하면, 가령 연극 배우가 비극의 배역을 맡았을 때는 마음에 딴 생각을 다 비우고 자신이 그 극중 배역과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는 연기라야만 관객이 감명 받을 것이다.

사바세계에서 각자가 맡은 배역을 잘 해내려면 물질과 사람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 몸, 빈 손으로 왔는데 공연한 탐욕과 쓸데없는 망상으로 모든 근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선(禪)이란 마음 가운데 모든 망상을 제거하고 진여(眞如)의 본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 가운데 화기(火氣)를 내리고 청정한 물기운(水氣)을 조화시켜 주는 것이니, 망상을 쉬면 물 기운이 오르고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여진다.

그러나 만약 망상을 쉬지 못하면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가 온 몸의 물 기운을 태우고 정신의 광명까지 덮는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몸은 마치 기계와 같아서 사대의 기운이 아니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람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근 기관(六根機關)은 거의 두뇌 쪽에 있으니 자연히 두뇌로 화기가 집중되어 온 몸의 물 기운을 졸이고 태우는 게 마치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노심초사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하거나 자세히 보든지 소리를 높여 발을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지 않는가.

이것이 곧 불기운이 위로 오르는 현상이니 당연 할 일에 육근 기관을 쓰는 것도 조절해 가며 써야 하거늘 하물며 쓸데없는 망상을 끓여서 두뇌에 불을 밥낮으로 켜면 되겠는가.

나라고 하는 그 나를 참으로 아는가 모르는가. 괴롭다. 야반삼경에 발바닥이나 들여다 보거라.

발심에서 인가까지 문답은 계속된다

1:1로 마주 앉아 개인별 지도 "장애해결 지름길"

"집중수행 기간에는 반드시 지도법사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위빠사나 선원들의 수련자 모집 안내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남방 불교에서는 수련회 등 집중수행이 있는 때는 거의 매일 또는 격일로 선원장이나 지도법사가 수행점검 및 지도를 해준다. 정진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어떤 장애에 부딪쳤을때 선지식의 지도점검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간화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조계종에서는 스스로 하는 '자기점검' 이외에 선지식에게 받는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런 가운데 일부 선원이나 참선 공부모임에서 위빠사나의 수행점검 풍토에 자극받아, 선종 고유의 공부과정을 되찾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조사선의 기본적인 공부과정은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로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은 확인이 최종적으로 크게 깨달아 '인가'받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조사선의 전통에 따라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검 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화계사 선우회, 전등사, 선도회가 대표적.

27 년째 주말 참선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선우회는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이 회원들을 상대로 일대일 '공안 인터뷰'로 점검을 해왔다. 최근에는 숭산스님으로부터 인가받은 선우회 회장 권유리심 보살이 대신 점검을 하고 있다.

현대의 선지식이었던 해안 스님의 가풍을 이어온 전등사 전등선림 역시 매달 15일 새벽, 스님과의 독대를 통해 수행점검이 이뤄지며, '경책(警責)'과 '격려'라는 스님의 처방이 주어진다. 신도들은 수행 점검이 단 하루도 수행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는 커다란 힘이라고 말한다.

종달 이희익 거사가 1965년 조직한 선도회 역시 '입실(入室) 지도'라는 일대일 점검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초보자들은 수식관 등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기초수행부터 지도받지만, 구참자들은 무문관(無門關; 남송 무문혜개 스님의 공안집) 48칙(則)을 화두로 들고 체험한 경계를 점검받는다.

다수의 제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통해 수시로 수행을 점검하는 단체들도 늘고 있다.

안국선원 원장 수불 스님은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는 '죽은 문자'(사구)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손가락 등을 통해 '살아 있는 화두'(활구)를 던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문답을 통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도점검을 해준다. 현정선원 원장 대우 거사와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 명상아카데미 설립자 혜봉 거사는 정기법회를 설법과 문답을 통해 진행한다.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이러한 지도점검과 함께 자기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사이버 생활수행 도량인 '목탁소리'(moktak-sori.com)는 봉소 일터에서 정진하다가 3주에 1번씩 모여 '밝은 모임'이라는 수행점검 시간을 갖는 한편 매일 사이버도량에 수행일기를 올리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매일 수행상담을 하는 양평 법왕정사(cafe.daum.net/sorisan) 주지 청견스님은 지난해 5월 12일 입제한 '100만명 매일 108배 만일결사' 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수행점검표를 나눠주고 있다.

선상답연구원장 인경 스님은 "간화선에서는 스승과의 실제적인 '문답과 점검'이 절대적인 생명줄이 된다. 오늘날 간화선 수행풍토가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교수(서강대)가 '입실 지도' 하는 모습.

조사선 이끌 차세대 선지식들

전국 선원서 묵묵히 정진… '선지식 부재' 모르는 소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 불교는 선방에서 묵묵히 수행하는 수좌들로 그 선맥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광복 이후 조계종의 선풍을 드높인 것은 성철, 청담 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 세대였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살아 있는 마지막 세대다. 동시대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황대선원 조실 성수, 화계사 조실 숭산, 용화사 법보선원장 송담, 선학원 이사장 정일,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로 꼽힌다. 그 뒤를 이어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부석사 선원장 근일, 각화사 태백선원장 고우, 은해사 기기암 선덕 적명, 해인사 선원 유나 원융, 축서사 주지 무여, 화엄사 선등선원 현산, 법주사 총지선원장 함주, 쌍계사 선덕 도현,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남국선원장 혜국, 원명선원 회주 대효, 극락암 선원장 명정, 송광사 선원장 현묵스님 등이 선맥(禪脈)을 지키고 있다.

또 미 육조사 주지 현웅, 상원사 선원장 의정, 범어사 선원장 인각, 동화사 선원장 지환, 통도사 선원장 천진, 월명암 선원장 일오, 내소사 선원장 철산, 전 기초선원장 영진 스님도 많은 수좌들로부터 존경받는 중진 스님들이다. 그리고 현기, 대선, 기승, 운경, 청광, 성재, 활성, 정묵, 현전, 상경, 정잔, 지근, 지현, 영선, 일수, 영진, 지범, 석곡, 종우, 황환, 철인, 호성, 영인, 증도, 보철, 중암 스님 등이 수좌들의 전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쟁한 선사와 드러나지 않게 공부하는 수좌들의 면면은 '선지식 부재'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후학들의 사표가 되어 수행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식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시민선원

단체명	연락처
갑사 선방	(041)857-8981/2
정인사	(055)256-5450
공소사	(031)246-1001
광주 자비신행회	(062)222-1165
금강선원	(02)445-8484
길상사	(02)3672-5945
대구구도회	(053)256-8589
대자암	(041)857-5800
대전구도회	(042)524-2157
도선사	(02)993-3161
동화사	(053)982-0101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053)753-8883
망해암	(031)443-5559
묘심선원	(02)523-8005
미타사	(02)662-4736
범어사	(051)508-3122
법련사	(02)733-5322
법왕사	(053)766-3747
보리수선원	(02)928-2844
보현사	(02)254-6966
봉선사	(031)527-7951
봉은사	(02)516-5652
부산 금화사	(051)582-3042
부산불교교육원	(051)466-4080
불광사	(02)413-6060
서울 강남포교원	(02)539-2631
석탄사	(063)538-1268
선학원	(02)732-3327
수선회	(02)732-5960
수원포교당	(031)255-2692
안국선원	(051)892-9877
안성 도피안사	(031)676-8700
여여선원	(051)740-6288
영남불교대학	(053)472-6288
영주 부석사	(054)633-3464
용화사	(041)274-2159
용화선원	(031)872-6061
울산 학성선원	(052)271-5352
임제선원	(02)888-6937
전남 보광사	(063)763-1192
전등사 전등선원	(02)762-0643
전북불교대학	(063)226-7878
정각선원	(031)903-9628
정토수련원	(054)571-6031
제주 남궁선원	(064)733-2278
조계사	(02)732-2183
직지사	(054)436-6606
통도사 부산포교원	(051)816-224
통도사 보살선원	(055)383-8334
학성선원	(054)71-5352
한국불교연구원	(02)3411-6167
한마음선원	(031)470-3100
해운정사	(051)746-2256
해인사 백련암	(055)932-7300
해인사 원당암	(055)932-7308
홍련암	(063)263-6072
홍제사 황령선원	(055)382-1181
화계사	(02)902-2693
황대마을선원	(055)963-9551

수행문답 사이트

단체	인터넷 주소	대표자
현정선원	www.fuoyee.or.kr	대우 법사
무심선원	www.mindfree.net	김태완 법사
아미타파	cafe.daum.net/amitapa	정목 스님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묘원 법사 등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	청견 스님
관수련회	www.kwan.or.kr	구선 스님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벽공 스님
선림도량	www.daedosun.org	운거 스님
여래선원	www.buddhapia.cc	붓다피아 스님
호두마을	www.vmcw.org	혜연 스님 등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수불 스님
축서사	www.chooksersa.org	무여 스님
참나찾기교육원	www.minsoozen.pe.kr	박민수 법사
초기불전연구원	www.chobul.com	대림 스님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박석 법사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혜봉 법사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다”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은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나누는 마음(분별심)입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두 분별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 ‘(이미 일체 중생이 깨달아 있어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한 말씀이 결코 선문답이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순간 이미 분별하는 마음에 떨어진 것이기에 일상 속에서 나와 남, 생각의 대상을 분리하지 않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2월 24일 조계사 극락전. 조계청년회(회장 정우식)의 수행법 대강좌 결제 중 ‘생활인의 참선법’을 주제로 진행된 대효 스님(제주 원명선원 회주)의 참선 법회는 일방적인 설법만이 아닌 문답형식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간단하게 일념으로 사는 참선이 불교다’, ‘참선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마음 다스리는 법’ 등 선에 대한 기본원리를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그때그때 수련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의문점은 바로 풀어주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의 이 설법에는 ‘생활선’이라는 주제아래 하나의 일관된 법문의 요지가 녹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은 본래 깨달아 있는 존재이기에 자성불(自性佛)의 법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다(본래각)’는 인간의 정체를 드러낸 이 한 마디는, 이 말을 뺀 나머지 팔만대장경의 모든 법문보다 더 중요할 만큼 그 뜻이 대단히 큽니다. 이 한 마디를 알려주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시작된 거죠.”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화두 참구는 이미 깨달아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어, 더 구할 것이 없는 원만 구족한 존재를 말한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두려울 것이 없고, 굴할 것 없이 당당하고, 미혹함이 없는 지혜로 자신과 만물을 보기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모든 번뇌의 굴레에서 초연해질 수 있는 게 참선 공부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믿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의 제자나 후대의 인류를 위해 부처님은 많은 비유와 예를 들어가며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무지를 씻어주고자 설법하셨습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면, 내면


29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명선원의 ‘삼매체험 선수련회’.

화두는 주객 대상 초월한 ‘의심’
참선은 분별로 인한 속박 벗는 길


대효 스님

지게 보는 데 핵심이 있다. 그래서 대효 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사량 분별심을 버리고 현실에 처한 자신을 올바로 직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무상한 현실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냉정하게만 볼 수 있다면 본래 깨달음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발동기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조사선의 수행은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본질의 변화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바탕을 바로 보지 못하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수행이라 한다.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의 삶과 활동은 어떠해야 할까. 스님은 깨달음은 누구나 일상의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금도 왜곡하거나 꾸민 것이 아닌,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졸리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먹는 평상심을 진실되게 실천하는 것이다. 스님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평상심을 실천하는 한 방법. “원하는 즐거움이 다가오더라도 좋아서 당기지 마세요.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싫어서 떠밀지 마세요. 즐거움과 고통을 들여다 보고 들여다 보아, 두 가지 마음의 뿌리가 뽑혀서 사라지더라도 또다시 살펴보세요. 좋고 싫은 마음이 끊어진 무심이 될 때까지.”

‘자성불의 법력을 쓰고 살라’는 가르침 역시 스님이 강조하는 생활선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자성불로 삽니다. 자성불의 법력으로 사는 사람은 장애가 없습니다. 법력은 깨달음의 삶이자 자신을 찾은 삶입니다.”

대효 스님은 “참선은 상대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타의 분리에서 오는 상호대립, 자신과 대상(나와 너, 나와 집단, 나와 일, 나와 이 세상)을 나누고, 나뉘는 데서 오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자유 해탈”이라며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깨달은 부처로 살아가자”며 법문을 갈무리 했다.

1976년부터 29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대효 스님은, 일방적인 교육 보다는 문답식 법문으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키는 수련회를 운영해 그동안 1만5천여명의 수련생을 배출했다. 원명선원 (064)755-3322

깨달음의 생활 문답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간단한 것이다.
왜 간단하냐?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불교다
왜 계산을 하지 않느냐?
나와 네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다.
왜 나와 네가 나누어지지 않느냐?
나와 너는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불교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불교다.
간단하므로 저절로 일념이 된다.
일념으로 사는 것이 불교다.
또 참선이다.
참선이 불교다.
일념으로 모든 속박과 제약에서 벗어난다.
일념으로 현실을 초월한다.
현실에 처해서 현실을 초월해서 산다.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일하면서 일념으로 보고 일념으로 듣고 일념으로 느끼면
하루가 일념에 불과하다.
하루가 한 순간에 불과하다.
백년 일평생이 한 순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일념이면 무심이다.
일념이면 해탈이 된다.
일념이 깨달음이다.
내가 부처가 되어 사는 길이다.

나와 네가 갈라져서 둘이 아닌데
왜 계산을 하겠는가?
그러나 나와 너, 나와 가족, 나와 직장, 나와 일, 나와 이 세상이 갈라지면 내 몫을 끊임없이 계산해서 챙겨야 한다.
나와 네가 갈라지는데서 모든 일이 뒤엉켜져서 사바세계가 생기고 법부의 세계가 나타난다.
나니 너니 계산하다 보면 뜻이 어긋나 잘 해주지 못하고
의가 상해서 서로 등진다.
서로 만나면 괴로워서 싫어진다.
원수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수가 되고 애인이 원수가 된다.
서로 좋게 잘살아보자고 애인이 되었는데 원수가 되면 못쓰지.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기보전자산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 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요.


인등용 LED전구


연등용 LED전구

제품특징
• 기존 설비에 전구만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 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인등


기존 필라멘트 전구용 연등

제품특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 방향으로 빛을 조명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증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73(세운상가 가동 가열 특3호)
TEL : 02)2266-9098, 7550 FAX : 02)2266-7557 E-mail : kibosa@kornet.net


경허(鏡虛, 1849~1912) 스님

낮,밤 가리지 말고 평생 참구하라

경허 스님

의심하되 경에서 찾지 말고
이뭣고 들면 화두에 힘 생겨

출세 대장부가 마음을 내고 결정하는 뜻을 세웠으면, 평생에 깨달아 얻은 것, 풀어 알아 얻은 것, 일체 불법, 네 귀절 여섯 귀절의 문장, 말로 말하는 삼매 등을 가져다 한꺼번에 쓸어 태평양 바다 속으로 던져 버리고, 다시는 들어 말하지 말며, 팔만사천 미세한 생각 머리를 잡아 단번에 끊어 버리고, 본래 참구하던 화두를 들어 일으키되, 맨 뒤 한 귀절에만 힘을 써서 들어 일으키어 들며 오고 들며 가다가 화두만 앞에 나타나서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지며, 고요한 가운데나 시끄러운 가운데나 들지 않아도 들어지거든 바로 이때에 의심을 일으킴이 좋으니,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웃입거나 밥먹거나 똥누거나 오줌누거나 하는 일체 곳에 온 몰으로 아울러 한날 의심덩이로 되어져서 의심하여 오고 의심하여 가며, 맞닥뜨려 오고 맞닥뜨려 가되 몸과 마음이 정(定)을 이루거든 그 환함을 찾을지언정 화두상을 향하여 점쳐 헤아리거나 어묵이나 경서에서 찾거나 함은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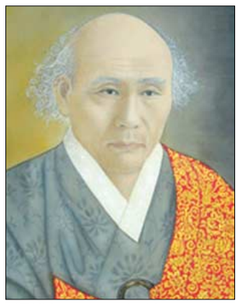
바로 모를지기 닭이 알을 깔 때에 새끼가 알속에서 껍질을 탁 쪼아 깨는 마당에 끊어지며 짚불에서 콩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이 되어야 바야흐로 비로소 집에 이른 것이니라.

만약 이 화두가 들어도 일으켜지지 않고 화두가 식어져서 답답히 재미 없을 때에는 나직나직 소리를 내어 이뭣고를 잇달아 세 번쯤 들면 화두가 문득 힘이 있어짐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바로 힘을 쓰기 좋을 것이니 가히 놓아 버리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은 각각 뜻을 세우고 정신을 차려서 눈알을 잡아 비비어 정진하는 가운데 다시 더 정진하며, 용맹한 곳에 다시 더 용맹하여 맷돌 맞듯 합에 밟아 부딪치면 온갖 것이 깨달아 질 것이니 여기에 이르렀거든 바로 선지식을 친견함이 좋으니라. 이십 년 삼십 년을 묻지 말고 물가에나 숲 아래서 길이 성스러운 태아를 기를지니라.

하늘 용을 추천하여 낸다면 감히 사람들 앞을 향하여 큰 입을 열고, 큰 말씀을 하며 금강권을 삼켰다 토했다 자재하며 가시 찌르는 숲 가운데라도 팔을 흔들고 지내 나올 것이며, 한 생각 가운데에 시방세계를 삼켜 버리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토해 낼 것이니 만일 여기에서 이르렀다면 바야흐로 너의 이마에 노사관을 쓰고 보신(報身) 부처님과 화신(化身) 부처님 머리에 앉았다고 허락하려니와 혹 그러하지 못하거든 낮에도 참구하고 밤에도 참구하여 포단 높이 불여 급히 눈알을 불여 보아라.

이것이 무엇인고?


만공(滿空, 1871~1946) 스님

백지로 돌아 가면 자유 얻게 돼

만공 스님

무념처 들면 참나 볼수 있어
미련 남는다면 참선 어려워

참선법은 옛부터 있는 것이지만 중간에 선지식들이 화두드는 법으로 참선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그 후로 수없는 도인이 출현하였나니, 화두는 1700여 개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란 화두를 의심하였나니, 이 화두는 의심이 두 개로 갈라지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그 하나는 무엇인고?’이렇게 화두를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하나는 무엇인고? 의심하여 가되, 의심한다는 생각까지 끊어진 적적(寂寂)하고 성성(惺惺)한 무념처에 들어가야 나를 볼 수 있게 되나니라.

하나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 정신 영혼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니, 하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고?

의심을 지어 가되, 고양이가 쥐를 노릴 때에 일념에 들 듯, 물이 흘러갈 때에 간단(間斷)이 없듯, 의심을 간절히 하여가면 반드시 하나를 알게 되나니라.

참선한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데 미련이 남아 있거나, 인간으로서의 자랑거리인 학문이나, 기이한 재주 등 무엇이라도 남은 미련이 있다면 참선하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이니, 아주 백지로 돌아가야 하나니라. 크게 나의 구속(拘束)에 단련을 치른다면 그 대가로 큰 나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라.

참선을 하려면 먼저 육국(六國, 眼耳鼻舌身意의 여섯 감관기관)의 전란(戰亂)을 평정시켜 마음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공부할 준비가 된 것이니라.

가장 자유롭고 제일 간편한 공부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염라국 사자(使者)의 눈도 피할 수 있나니라.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체가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할 때 일체가 멸하나니라. 내 한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이 곧 우주의 건립과 파괴요, 인생의 생사니라.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르쳤다 함은 믈질 이전의 마음을 지적한 것이니라.

공부가 잘 된다고 느낄 때 공부와는 벌써 어긋난 것이니라. 꿈속에서도 공부해 가는 것을 증험(證驗)하여 선생을 삼을 것이니라. 꿈도 없고 생시도 없이 잠이 푹 들었을 때에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를 어디에 두는 지 알아야 하느니라.

꿈이라 하는 것은 업신(業身)의 동작인데, 깨어 있을 때는 생각만으로 헤매다가 잘 때 업신이 제 몸을 나투어 가지고 육신이 하던 행동을 짓는 것이니라. 꿈과 생시가 일여(一如)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니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보다도 이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결정적 신심부터 세워야 하나니라. 오전(悟前)이나 오후(悟後)나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나니라.


한암(漢岩, 1876~1951) 스님

자신을 믿어야 大道 이룰수 있다

한암 스님

외불(外佛), 모래로 밥 짓는 격
차별의 생각 계교 헤아림 경계

참선이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참(參)이란 합(合)함이니, 자성에 합하여 청정한 마음을 보양(保養)하고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음이다. 오직 바라건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무상대도(無上大道)를 깨달아서 다시는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속히 불과(佛果)를 증득하기를 바라고 바라는 바이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 일단대사(一段大事)의 인연을 밝히고자 한다면, 맨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이며 구경(究竟)에 다름이 없음을 믿어서 철저하게 의심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비록 만겁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大道)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하여 이러한 마음을 굳건히 고집하면서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진겁(塵劫 :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신공양하며, 뼈를 부수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베끼며, 장좌불와(長坐不臥)하고, 묘시(09~11시)에 일종식(一種食)을 하며, 그리고 일대장경(一大藏經)을 모두 읽으며, 갖가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이기에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 제일의 요체(要諦)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곧 외불(外佛)이니, 나에게 어찌 부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제불(諸佛)이 나의 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상근기(上根機)의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하나의 기연과 경계에서 이를 잡아 곧바로 사용하므로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 참구를 논한다면 마땅히 조주(趙州)의 ‘무자(無字)’와,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와, 동산(洞山)의 ‘마삼근(麻三斤)’과, 운문(雲門)의 ‘마른 똥 막대기’ 등 맛이 없는 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이 화두를 끊임없이 들어 마치 모기가 무쇠 소에 앉아 주둥이를 박지 못할 곳에까지 몰입하듯 하여야 한다.

만일 조그마한 차별의 생각과 터럭 끝만한 계교와 헤아림이 그 사이에 동하면, 옛사람이 말한 “잡독이 마음에 침투하여 지혜를 손상한다.”합이니 학인이 가장 먼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고 하니, 화두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이 되고, 화두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짐에 이르러서야 육근(六根)의 문이 자연히 툭 열리어, 홀로 드높고 드높으며, 평탄하고 평탄하게 되어, 마치 달빛이 시내 물결 속에 투사되어 부딪쳐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잃지 않음과 같은 때에 이르러야 대오(大悟)에 가까울 것이다.



"시방세계가 거대한 무문관"

"무문관에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박차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껍질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철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챙기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정삼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2월 28일 원적에 든 관응 스님(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직지사 조실 역임)은 지난 2000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문관 수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관응 스님이 6년간 천축사 무문관에서 용맹정진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생사(生死)의 관문을 뚫는 무문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달마대사의 '벽관법'이 시원
조주, 고봉, 경허 스님 등 수행이어

무문관 수행이란 겨우 한 사람이 기거할 만한 공간,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몇 년이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독방은 가로 한칸, 세로 두칸 크기의 좁은 공간이다. 수세식 좌변기와 간이 샤워기가 설치돼 있고 상하기 쉬운 음식물을 넣어둘 수 있는 작은 냉장고도 한 대 있다.

매일 오전 11시 방마다 유일하게 외부와 통하는 작은 공양구(供養口)가 열리고 시봉을 맡은 스님이 음식을 넣어준다. 이처럼 4면이 벽인 방안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최소 3개월부터 3년 동안 면벽참선하는 것을 '무문관(無門關) 수행'이란 한다.

'무문관'이란 명칭은 송나라 무문혜개 선사가 지은 선어록 이름을 딴 것이다.

가로 한칸, 세로 두칸 속 선정 삼매
공양구 외부와 잇는 유일한 통로

무문관 수행의 유래 문을 닫아걸고 정진하는 '폐문 정진(閉門精進)' 법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달마 대사의 면벽 9년이 시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규봉종밀 선사는 <도서(都序)>에서 달마 선법인 '벽관(壁觀)'을 "밖으로 모든 인연을 멈추고 안으로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면벽하여 마음을 본다'는 의미에서 '면벽관심(面壁觀心)'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 달마 대사의 '면벽선'은 마음을 장벽과 같이 요지부동한 상태에서 도와 하나되는 선 수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훗날 조주, 고봉 스님 등이 죽기를 각오하고 정진했다는 '사관(死關)'도 무문관 수행의 일종이었다. 한말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폐문 수행하고, 일제시대 효봉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 선방에서 3년간 두문불출하며 정진한 것도 무문관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주지 정영 스님(현 대자암 조실)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량을 세우면서부터다.

천축사 처음…현재 10여곳 달해
안거인원의 2% 총 40여명 수행

국내 수행 현황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선원은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한 93년에 3층 규모의 '삼매당(三昧堂)'이란 이름의 선원이다. 현재 제1 무문관선원에 비구니스님 4인 등 10명이, 제2 무문관선원에 비구니스님 3명 등 7명이 5개월과정으로 무문관 수행 중이다.

대자암에 이어 94년 문을 연 무문관은 제주도 남국선원(선원장 혜국). 현재 7명의 중진급 수좌들이 정진중이다.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5년 후까지 접수가 끝난 상태.

98년 여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도 '무금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2000년 4월부터 3년과정으로 5안거 이상을 지낸 9명의 스님이 정진결제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하안거부터는 8명의 비구 스님들이 3개월과정으로 정진하고 있다. 2002년 4월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제 방부를 받았다. 매 안거 때마다 5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고 있다.

수좌 스님들은 알려지지 않은 토굴까지 포함하면 무문관이 10여곳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다 합치면 무문관 수행자는 40여명에 달하며, 매년 안거에 드는 2,000여 수좌의 2%에 달한다.

현재 수좌계에서는 종립선원인 봉암사에 30여명 정원의 무문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백련사 문무관에서 공양구를 통해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참선의 과학적 효과

서구 의학계 명상연구 올인

선과 위빠사나 등 동양 전래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명상(meditation)이 서양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타임>은 2003년 8월 4일자 '명상의 과학'을 주제로 한 커버스토리에서 명상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상 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의 보도를 토대로 명상을 할 경우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해온 서양인들이 그동안 무엇을 밝혀냈는지 알아보자.

서양에서 명상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는 1960대에 시작되었는데,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교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벤슨 교수는 1967년 초월명상 수행자 3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명상 전후에 혈압·심박수·체온 등 생리현상의 변화가 뚜렷함을 밝혀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명상 이전에 비해 산소 소비량이 17% 줄고, 심박수는 분당 3차례로 느려지고, 뇌파 가운데 잠잘 때 나오는 세타파가 활성화되는 등 심신이 이완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와 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정교한 의료장비들이 개발됨에 따라 명상할 때의 뇌 상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위스콘신대학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는 명상에 들어가면 이마 바로 뒷부분인 전전두 피질에서 오른쪽의 활성은 떨어지고 왼쪽은 활성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오른쪽 전전두 피질은 스트레스와 싸우는 작용을 하고 왼쪽은 만족감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는 오른쪽 전전두 피질이 발달해 있지만 낙관적사고의 소유자는 왼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더 열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명상을 통해 뇌를 훈련할 경우 왼쪽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명상에 대해 이런 과학적인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미 의사들은 심장병, 에이즈, 암 등과 같은 만성적이고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거나 적어도 통제하기 위해 명상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명상은 또 우울증,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증 등과 같은 심적 불균형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명상은 이밖에 범죄 성향을 줄이거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근방의 킹스카운티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위빠사나를 하루에 11시간씩 10일간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75%에서 5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해온 존 카밧진은 명상훈련을 처음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각각에게 독감백신을 주사한 뒤 혈액속의 항체 수준을 측정, 명상을 하면 인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명상, 몸·마음 건강에 도움 '타임'지 보도



허버트 벤슨 최초 연구
심신변화 밝혀
美 의사들, 질병예방
완화에 적극 권장

애착·증오만 떠나면…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체계는 삼법인(三法印)과 연기설(緣起說)이며 실천체계는 사제설(四諦說)입니다. 이를 도외시한 수행법은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2월 10일 저녁 조계사 극락전. 2백여 재가 수행자들의 열기가 겨울 밤의 한기를 몰아낸 가운데 열린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의 '수행법 대강좌 결제' 현장. 이날 '참선 수행법'을 주제로 법문에 나선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 스님(前 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은 선수행에 앞서 삼법인과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모든 존재현상이 시간적으로 서로 조건지워져 있으면서 덧없이 변하므로 무상한 것이며, 또한 공간적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으므로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삶의 시공간적 연기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존재현상을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적으로 어떤 실체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합니다. 사람들을 고통의 늪 속에서 허덕이게 하는 이런 집착과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편이 참선입니다."

1972년 백양사로 출가, 동국대, 인도 푸나대 및 영국 옥스퍼드대 학교를 졸업(철학박사)한 후 백양사 참사람수행원에서 재가 불자들에게 참선 및 근본불교 수행을 지도해 온 미산 스님. 스님은 요즘 초기불교 근본주의자들의 '근본불교로 돌아가자'는 구호와 관련, 근본불교만이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불교의 바른 수행 전통을 보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산 스님은 기초 수행 및 지도체계가 부실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간화선은 바른 수행 전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조사선은 기존의 교리적 언어의 관념화를 척파하고 어떠한 실체관념도 용납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과 언어로 붓다의 근본정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뛰어난 수행법"이란 설명이다. 초기불교와 선 수행에 대한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미산 스님의 법문을 통해 선 수행의 원리를 알아본다.



우곡선원의 직장인 · 공무원들의 정진모습.

거문고 줄처럼 적절한 긴장으로 정진해야
"마음의 빛을 안으로 돌이켜 면밀히 살펴라"

밖에서 안으로 '회광반조'

인도의 우화집에 보면 행복은 인간들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 모든 물심(物心)의 현상, 즉 담마(dhamma, 법)는 항상 밖이 아닌 안에서만 처리되며, 5온(色受想行識)의 어떤 필터를 통해서 여과되느냐에 따라 행복 아니면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수행의 제1원리는 항상 마음의 빛을 '밖에서 안으로 돌이켜(廻光反照)' 이 물심현상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일상 속에서

물심 현상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것, 즉 담마의 성찰은 바로 지금 여기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순간 이어져야 한다.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면 담마는 모두 담마라는 관념(산냐)으로 변해 버려 '나'라고 하는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다. 간화선의 경우 화두의 필터로 그 밖의 다른 수행법은 각기 다른 필터로 법의 관념화를 막는다.



미산 스님

화두챙김은 '사띠'

마음챙김은 사띠(sati, 念)의 우리말 번역이며 한역은 정념(正念)으로 번역된다. 늘 마음을 챙겨 지금 여기 자신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다. 간화선에서 '화두챙김'이 가능한 이유는 늘 화두를 놓치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게 하는 것과 화두를 들고 성성하게 깨어 있는 상태는 사띠의 기능 때문이다. '챙김'이라는 능동적인 기능과 '깨어 있는 마음'이라는 수동적 기능을 조화롭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띠이며, 모든 불교 수행에 있어서 사띠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

간화선의 3요소와 5력

초기불교 수행체계인 37조도품에 있는 5근(五根)/ 5력(五力: 信 精進 定 念)의 경우와 간화선의 3가지 필수요건(大信心 大憤心 大疑心)을 비교해 보면 사띠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간화선에서는 대의심을 축으로 하여 대신심과 대분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의심은 지혜, 삼매, 그리고 마음챙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한 심리현상이다. 대의심은 지혜의 근원지인 자성청정심에의 계합을 대전제로 한다. 의단이 형성되면 모든 분별경계가 붙을 수 없고, 의단 자체가 지혜의 발광체라고 볼 수 있다. 대의심이란 늘 화두와 함께 하는 것, 즉 화두챙김이 있으므로 가능하며 이것이 사띠이다. 사띠가 지속적으로 현전하면 자연히 마음이 안정되고 삼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분별심을 떠나 있는 그대로 보기

치우침이 없는 중도의 입장에서 물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직관의 힘이 커진다. <신심명>에도 "다만 애착과 증오의 마음만 떠나면 모든 현상들의 본 모습이 통연히 명백하리라"고 하였다. 애착과 증오의 분별심에 걸려 있으면 사물이나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분별심을 벗어나 평정심을 회복하면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직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다.

중도를 지키며 정진하라

정진할 때는 팽팽한 거문고 줄처럼 너무 지나쳐도 안되고 그렇다고 느슨한 거문고 줄처럼 너무 늘어져 게을러도 안 된다. 화두 참구시 대분심을 발하여 공부하라 했다고 육단심으로 밀어붙이면 상기병에 시달리게 되어 더 이상 정진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정진심을 늦추면 삼매에 추진력이 없게 되고 바로 혼침에 빠지게 된다. 치우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의 긴장감과 추진력을 가질 때 최상의 정진 효과를 낼 수 있다.

팔정도는 불교의 종합수행법

팔정도는 초전법륜에서 붓다가 제시한 대표적인 불교수행법으로서 여덟 가지 측면에서의 수행을 뜻한다. 이러한 팔정도를 계(戒, 정어, 정업, 정명)·정(定, 정정진, 정념, 정정)·혜(慧, 정견, 정사유) 삼학(三學)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수행내용에 따라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곳은 법당입니다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태우지 않는 음이온 청각향 출시!!



차량용 가정용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베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 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 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냄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www.Aromamall.org
KOREA Aroma 알갱이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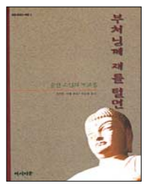
禪 수행을 위한 맑고 청정한 가르침

– 여시아문의 깨달음을 위한 선 지침서 –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첼 엮음 / 최윤정 옮김

A5신 396쪽 / 값 9,000원



숭산 스님의 선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숭산 스님이 외국인 제자들과 주고받은 선에 관한 편지글(1973년~1975년)과 제자들이 자유롭게 던진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책은, '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곧장 들어가는 책이다. 하지만 담은 없다. 그 답은 책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읽는이 자신의 몫이다. 큰 의심덩어리 하나를 챙길 수만 있어도 이 책을 읽는 보람으로 충분하다.

무문관, 혹은 "나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 값 6,000원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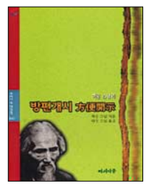
방대한 선의 문헌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집인 『무문관』을 한글 세대를 위해 번역하고 친절하게 해설해 놓은 책이다.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역이다. 필자 자신 한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 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방편개시

허운 스님 지음,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6,000원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선방일기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 값 5,000원



솔직담백한 선방에서의 일과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 값 4,0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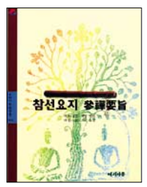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 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직접 한국말을 배워 번역한 책이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 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참 선 요 지

허운 화상 법어 / 대성 옮김

B6 변형 278쪽 / 값 5,500원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항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출가 수행자들이 초발심을 잊고 본분사를 저버릴 때, 그 폐해는 수행자 자신은 물론이고 불교 전체에 미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긴 그간의 불교계 안팎을 돌아볼 때, 수행자는 진정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허운 화상은 이 책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그야말로 참선의 요지만 담았다.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시고도 '나는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삶은 苦가 아니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의 획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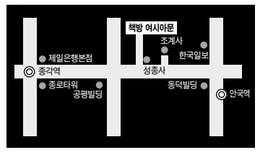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선불교 꽃 피운 당대 선맥 계보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 저, 류시화 역, 경서원, 1만5천원

중국의 선은 남북조시대 남조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로부터 혜가, 승찬 등을 거쳐 육조혜능에 이른다. 혜능은 이책의 저자 오경웅이 공자, 노자등과 함께 중국최고의 현재로 꼽는 인물이다. 혜능은 선의 핵심인 사상을 만들었다. 흔히 달마의 사구게로 알려진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게송은 실상 혜능의 사상을 집약한 것이다. 혜능의 뒤를 이어 마조, 석두, 종념등이 나타난다. 그중 당 무종의 혹독한 불교 탄압을 선종만이 극복할 수 있도록 터를 잡은 인물이 백장이다.



이외에도 당대 선불교의 꽃을 활짝 피워 선학의 황금시대를 맞게한 선학 오가의 운문, 동산, 위산, 임제, 법안을 비롯한 선승 50여 명의 공안을 비롯, 몽둥이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도를 깨치는 수행법, 당대 선맥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대만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오경웅이 1967년에 영문으로 쓴 것을 번역한 것으로 서구 지성들이 읽고 선불교에 눈을 떴다고 한다.

100가지 문답통해 큰 틀 보기

100문100답 선불교강좌 (상, 하)

일지 저, 대원정사, 8천원

"그동안 나는 기존의 어록 공부나 선종사 중심의 선학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불교인문주의에 입각한 현대선학을 모색해 왔다. 이책에서 강조하는 기본 시각은 바로 깨달음만을 극대화시켜서 초극의 레디칼 리티만 강조된 나머지 대승 불교의 근간을 망각해 버린 비불교적 선에서 불교적인 선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100문 100답 선불교강좌>는 한국 불교의 주축을 이루는 선불교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100가지 항목을 선정, 해설한 책이다. 선의 기원과 선종의 역사뿐만 아니라 화두, 묵조선, 방과할, 구산선문 등 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한다.



보리달마로부터 얼마전에 입적한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선의 역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선사들의 행적도 조명했다.

2002년 갑작스럽게 입적한 일지 스님은 당신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듯, "이 책은 선에 관한 나의 절망과 사랑을 담은 장편의 우울한 변론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간화선-위빠사나' 뭐가 다를까

묻지 않는 질문

현웅스님 저, 민족사, 1만2천원

현웅 스님(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은 <묻지 않는 질문>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법을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올바른 수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이야기한다.



전 조계총림 방장 구산 스님의 제자인 현웅 스님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육조사와 돈오선원에서 20여년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선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스님이 그동안 서양인들에게 해온 법문과 시, 선사와의 법거량 등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깨달음의 세계, 그 현대적 의미 등을 납납이 이야기 한다.

스님이 말하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차이점은 이렇다. "위빠사나 명상법은 팔, 다리 등 감각과 느낌을 통해 점진적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간화선, 즉 화두법은 그런 무상한 것들을 놔두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空)'는 관점으로 들어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화두공부는 나무의 뿌리, 즉 근원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방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육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심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氣가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아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분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요일 공유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12단주와 108염주 1set 가격 195,000원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투병중인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흑단무늬목염주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와 원적외선이 상온에서 (현재온도) 발산되는 나무가 흑단무늬목이다. 나무 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108염주는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며 건강과 행운을 안겨주고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며 강한氣의 발산으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부터 사용하였다고 전래된 최고의 흑단목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게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갑신년 대자 대비 하신 부처님의 가호로 대광명, 대성취 하십시요.

부처님오신날, 신년, 백중 및 각행사에 참석하는 불자님께 보시할 108흑단목염주 • 손목합장주를 사찰에 계신 스님께 최소의 가격으로 납품하여 드리오니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내 매점 및 불교용품 매점에서도 판매하실수 있도록 주문예약 받습니다.

케이스는 별도로 주문 예약 받습니다

규 격 8mm, 10mm, 12mm

氣가발산되는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문향이 은은하게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포대화상 향로를 수입 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현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이시며 포대화상 향로로 조각하여 많은 사찰 및 스님들께서도 소장 하고 있으며 불자님들의 집에나 사업장에 두시면 화를 쫓고 복과 행운이 오며 사업도 번창하고 소원 성취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웃음을 주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베풀어주며 불심을 전파하고 포교 활동의 매체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포대화상 향로는 정교한 조각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또한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복 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예불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포대화상 향로 입니다.

◈ 크기 : (대)가로 26cm 폭 15cm 높이 16cm 가격 155,000원 (소)가로 20cm 폭 12cm 높이 16cm
가격 95,000원 (수공예품이라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3210-3178 /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성철 스님이 말한 '중도와 연기'

백일법문 (상, 하)
백련선서간행회, 장경각, 각권 7천원



성철 스님이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100일 동안 불교 전반에 관한 법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한 책이다.

상,하 두권으로, 상권은 근본 불교, 즉 아함경과 남전대장경에 나타난 원시불교의 각종 이론을 대승의 입장에서 풀이했다. 하권은 대승불교의 제반사상, 즉 중관과 유식은 물론 천태, 화엄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의 요점을 설명하고 중도사상(中道思想)을 핵심으로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중국 선종 및 우리나라 선종사상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의 중심 사상을 중도(中道)와 연기(緣起)로 요약한다.

중도란, 두 극단을 버림으로써 양변이 서로 통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일체의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이다. 이 중도란 말도 그 상태를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어 잠시 빌려쓰는 것일 뿐, 양변이 없는데 가운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라고 명징한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삶(生)이 있으므로 죽음(死)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있는 것처럼 모든 법(法),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이 늘 추천하는 책이다.

美 곳곳에 뿌려진 숭산선사 법어

선의 나침반 1, 2
현각스님 엮음, 허문명 역, 열림원, 7천5백원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국제선원이 있는 화계사 조실 숭산 스님은 한국 불교계에서 해외 포교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로 꼽힌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한국 이민자 중심 포교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백인 대상 포교활동에 힘써 언어 장벽은 물론 백인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선불교를 널리 보급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포교의 결과 한가운데 위치하는 인물이 바로 현각 스님이다. 스승과 나눈 아름다운 인연을 <만행>이란 단행본으로 펴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벽안의 현각 스님은 미국 곳곳에서 목격한 스승의 법어를 노트며 녹음 테이프, 비디오 등에 담았다. 현각 스님은 4년여에 걸쳐 이것을 정리해 1997년 미국에서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으로 출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린다. 무엇보다 이 책의 매력은 일상의 언어와 이 시대의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숭산스님이 전하는 내용은 명쾌하고 조심자를 위한 듯 비유가 풍부하다. 책 속에는 스님이 치는 '탕'하는 주장자 소리도 있고, 파안대소하는 웃음소리도 있다. 조주 스님은 "차나 한잔 마셔라"하고 말했지만 스님은 "코카콜라나 밀크쉐이크를 먹어라"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스님은 결코 심오한 깊이를 과시하지 않는다. 눈이 흐려진 우리를 눈뜸의 바다로 친절하게 안내할 뿐이다.

참된 나 찾기, 지름길로 가보자

참선요지
허운대사/대성스님 역, 여시아문, 5천5백원

여시아문이 펴낸 <참선요지>는 참선의 진수를 펼쳐 보인다. 하지만 진수만이 아니다. 참선의 목적과 참선을 하기 위한 선결요건, 화두 참선법 등 참선을 쉽고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주옥같은 설명들이 곁들여져 있다. 여시아문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선(禪)편의 첫 번째 권.

이 책은 중국 허운 스님의 참선에 관한 법문이 담긴 <허운 노화상 연보법휘>(대만 수원선원 刊)의 본문을 대성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허운 스님이 선방에서 한 소참법문인 '선칠법문'과 함께 연보의 내용 일부를 간추린 허운 스님의 약전(略傳)도 포함시켜 놓아 허운 스님의 행장을 따라가며 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역자 대성 스님은 "선에 대한 조사 스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허운 스님의 가르침은 평이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를 지녀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말한다.

허운 스님은 참선의 선결조건으로 망상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설한 '쉼이 곧 깨달음(歇卽菩提)'이라고 하신 '쉼(歇)'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달마 조사가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쉬어버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의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쉼'은 '놓아 버린다'라는 의미다.

'실천과 사상'으로 본 조사선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태완 저, 장경각, 1만8천원



이 책은 혜능에서 시작하여 마조에서 완성되고 그 문하에서 풍미한 중국 조사선의 본질을 실천과 사상 두 측면으로 나눠 고찰한다. 실천적 측면은 직지인심과 견성성불이며, 사상적 측면은 심성관(心性觀)과 수증관(修證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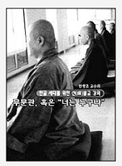
이 가운데 견성성불 편에서는 조사선의 가장 큰 특징인 선문답을 통하여 견성을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살피고, 견성 체험의 일화 가운데 마조의 경우를 대표적 모델로 선정하여 견성 체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조사선이 스승과 제자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통하여 이심전심을 실천하는 선법임을 강조한다. 또 수증관 편에서는 조사선의 어록과 <전등록>에 나타나는 선사들의 공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선에서의 공부방법, 학선수도(學禪修道)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혜능의 수증관이 중국 선종의 사상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혜능에서 임제에 이르는 조사들의 수증관 특색 등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특히 저자가 역점을 기울이는 부분은 혜능과 그 문하가 이전의 점수선을 극복하고 새로이 행한 돈오선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어떤 점에서 점수선을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한국 선종에서 행하는 돈오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과 맥락이 닿는다.

한글세대를 위한 화두 길잡이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저, 여시아문, 6천원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답고 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는 한형조 교수의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집이다.

선을 평면의 언설로써 즉 논리와 변증을 통해 접근하여 한글세대 누구라도 읽어나가다 보면 선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만하다.

이 책은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무문관 원본의 편집체제를 존중하였고,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한편 이러한 강의에 불편해할 사람들, 즉 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군데군데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는데, 이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편집, 독자의 편의를 도왔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제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굳이 역사와 사승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禪과 하이데거 존재론의 만남

선의 세계(1, 2)
고형곤 저, 운주사, 1만3천원



철학교수와 대학총장을 지낸 원로 철학자 고형곤 박사의 책. 한국 불교의 법맥과 그 특징인 통불교적 성격과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동서사상 사이에 가교를 놓음과 동시에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논저이다.

1991년 발행된 고형곤 박사의 <선의 세계> 초판은 학술원 저작상을 받을 정도로 그 주제와 깊이에 있어서 선(禪)철학의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저자가 그동안 생활해 오면서 얻은 선적 느낌들과 그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에 철학적인 견해를 더하여 새로이 증보판을 낸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선교일치의 특색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과 아울러 선의 세계에 서구철학을 참여시킴으로써 그것의 접점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밝혀 놓았다. 선불교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근간이 되는 불교, 특히 선교일치의 선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서구사상과의 접근과 차이점을 밝혀주는 연구서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총론에서 세 가지 견해, 즉 깨침이 없는 퇴속적 단계와 선의 문턱에 들어선 단계, 선의 궁극적 경지에 도달한 깨침의 단계에 대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지식들아, 나는 홍인 화상의 문하에서 한번 듣고 말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본성을 단박에 보았다. 그러므로 이 교법을 후대에 유행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 깨닫게 하여 각자가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성품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육조단경)

오조홍인 스님이 새벽에 혜능 스님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들여 <금강경>을 설해 주었는데, 혜능 스님이 한번 듣고 말끝에 바로 깨달았다는 견성체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불자들은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것이다.

"한번 듣고 깨달았다고요?"

"그럼 오랫동안 수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선사와 대강백의 법문을 듣기위해 불원천리 전국의 산사를 찾는 불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다. 하지만 옛부터 선사들은 '법문 듣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공부법'이라고 말해 왔다.

조사선에서의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형태인데, 이 '직지인심'은 스승의 설법이나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문을 듣고 단박 깨치는 '언하변오(言下便悟)'는 혜능 스님의 돈오 체험에서 발단되어 조사선 선체험의 일반적인 방식이 된 것이다.

'언하변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듣는 즉시 발심하거나 깨닫는 기연(機緣)을 만들어보자.

한번 듣고 깨달아요?

남종선의 특징은 '말끝에 단박 깨침'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다'는 돈오견성은 <육조단경> 이래 조사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언하변오의 돈오견성은 좌선간심(坐禪看心)이라는 인도에서 전래된 혜능 이전의 선법을 극복하고 혜능 이후의 중국 선을 새로운 선으로 열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전등록> 등 선종 어록을 살펴보아도 깨달음의 기연은 6근(根)을 통한 지각이 전부이고, 염불이나 지계, 관법 수행이 깨달음의 기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종에서 견성의 기연들은 대체로 말을 듣는 순간, 행위를 하거나 보는 순간, 자연물의 소리를 듣거나 움직임을 보는 순간에 깨닫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선지식의 말(법문)을 듣고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음은 물론이다. 혜능 이후에 융성한 마조와 석두 문하의 중국 조사선 전통에서 깨달음의 거의 대부분이 설법과 문답을 통해 견성을 체험하는 '언하변오'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까닭은 언어가 사람사이의 의사 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 당시도 법문 듣고 깨쳐

실지로 부처님 재세시에도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보리회 김재영 지도법사는 <붓다의 대중견성운동>(도피안사)에서 빨리어 <법구경>인 <Dhammapada-Commentry>를 통해 총 299건의 '대중 견성사건'을 확인했다. 부처님 재세시 총 1만2천975명 이상의 대중이 견성(수다원과 이상)했음을 경전을 통해 확인한 김 법사는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려는 초발심의 단계를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같은 자세는 오늘날 깨달음을 특별하고 전문화된 사건으로 신비화하는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심지법문은 깨달음의 씨앗

골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 성불케 하는 이심전심의 묘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스승은 제자가 본래 가지고 있지만 잊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자극하고 촉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관련 남악회양 스님은 마조 선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움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함은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는 기연이 맞았기 때문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에 필요한 요소는 마음 땅인 '심지(心地)'와 씨앗을 뿌리는 제자의 '발심', 물을 주는 스승의 '직지인심' 및 이 두 요소가 적절히 맞아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기연' 등이라 할 수 있다.

설법과 문답은 공부의 필요조건

선을 배우겠다고 발심한 사람은 우선 선원에 들어가 생활하며 선사의 상당시중(上堂示衆)을 듣거나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묻거나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직지인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선 공부의 필요조건인 상당설법과 문답을 통한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발심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또는 '청문(請問)' ▷선지식의 응답에 의문만 얻은 경우 제방 선원에서 참학하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서 선지식에게 해답을 확인하는 '감변'(堪辨) ▷깨달음이 옳다고 인정하는 '인가(認可)' ▷불잡은 본성을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며 과거의 습기를 떨어버리고 더욱 본성에 출실해 가는 '보임(保任)' 등으로 구분된다.

정통 조사선 공부법 회복해야

조계종은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는 스스로 하는 '자기점검'이외에 선지식의 상당설법이나 '지도점검'이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형식화되거나 사라진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

이에 따라 조사선의 한 방편으로 확립된 간화선 참구와 더불어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를 가능하게 하는 상당법문과 선문답, 지도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명선원 회주 대효 스님은 "조사선의 수행법은 좌선, 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설법과 문답법이라는데 보편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답으로 공부하는 도량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법문, 지도지침을 통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시도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선원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안국선원, 현정선원, 보림선원, 제주 원명선원, 부산 무심선원 등은 법문을 듣다가 의문나는 점이나 정진 과정에서 부딪친 경계를 문답을 통해 스스로 해결토록 지도한다.

20여년전부터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은 조사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문답식 수행법을 지도한다. 좌선위주의 간화선을 강조하지 않고 '법문 듣기'와 문답을 통한 참구방법을 사용한다.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관계없이 곧바로 자기 마음을 보고, 깨달음의 본래 그 자리를 이해하여 그 자리에서 생활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수행법이다.

서울(02-732-0772) 및 부산 안국선원은 선 법문을 통해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킨 후, 선원장 수불 스님으로부터 활구 화두를 받아 1주일 용맹정진한 후 개별적인 점검을 받는다.

현정선원(02-582-9371)과 무심선원(051-515-7226)은 '법문'이 가장 중요한 수행 방편이다. 특히 무심선원은 일대일 입실지도, 소참법문, 대중법문이란 공부형식을 통해 작위적인 공부를 반대하는 '무위법(無爲法)'을 강조한다.

보림선원(02-914-6187)은 거사풍(居士風)의 설법과 좌선이 주요 공부법이다. 재가자들이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등 새로운 화두라는 의미의 '새말귀'를 제시한다.

이밖에 스승과 제자간의 문답-점검 시스템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은 화계사 선우회, 전등사, 불심정사, 선도회가 대표적이다.

오직 열린 마음으로 만사 놓고 쉬어라

'선의 기치를 드높인 육조혜능(638~713) 스님은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좌선(坐禪)과 간화(看話)를 주창하지 않았다. 다만 단박에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볼 것(見性)을 강조했을 따름이었다.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다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돌이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참선이란 선지식의 지도와 자신의 열려있는 마음이 전제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곧 몸의 좌선이며, 마음의 화두 챙김이다.


좌선할 때는 양 엄지손가락 끝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계정인(法界正印)을 해야 한다. 양 손가락 끝이 떨어지면 긴장이 풀어져 졸음이나 망상에 빠지기 쉽다.

좌선하기 전 주의사항

"모든 인연을 놓아 버리고 만사를 쉬어, 몸과 마음이 하나 같이 움직이고,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한다."<좌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좌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조절이다. 설사, 변비, 복통 등이 있거나, 배가 부르거나 고파도 좋지 않다. 또 음식물은 되도록 자극적인 것을 피하고 대소변도 시작하기 전에 봐둬야 한다. 그리고 식사 30분 후에 좌선을 시작한다. 수면조절 역시 필요하다. 많이 자도 좋지 않고 부족해도 좋지 않다. 좌선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과 상체, 팔, 다리, 무릎, 허리 등을 풀어주는 가벼운 체조가 필요하다.

좌선 자세

15년 전통의 해인사 선우회가 제시하는 좌선의 자세는 다음과 같다. "고요한 곳에서 두터운 방석을 깔고 하며, 발은 두 발을 반대편 넓적 다리 위에 놓는 가부좌가 기본이다. 이 때 어느 쪽 발이 위로 와도 상관없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는 두 발을 번갈아 위에 두는 것이 좋다. 또 두 발은 '일(一)' 자가 되어 몸이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하며, 다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손은 포개서 발 위에 편하게 놓는데 위에 두는 손은 발의 순서와 일치하면 된다. 이 때 두 엄지손가락 끝은 서로 맞대야 한다. 눈은 지그시 떠서 졸음을 쫓아야 하며 시선은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손 끝이 닿는 지점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다리가 아플 경우는 살며시 바꾸어 놓아도 무방하다. 망념이 일어나면 다만 망념인 줄 알아채면 저절로 사라지니, 절대로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

호흡법

좌선시의 호흡은 우선 숨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며 숨을 거칠 게 하지 말고, 스스로 호흡한다는 의식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라야 한다. 공기를 조용히 들이마시되 아랫배가 약간 불룩하도록 하고, 조용히 내쉬어 차츰 아랫배가 약간 들어가도록 8부 가량만 숨을 쉰다. 이 때 잠시 호흡을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뭣고' 하는 것이 화두를 배로 참구하는 한 요령이다.

화두 받는 법

화두 받을 때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수선회 회장 현담스님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화두를 받는다는 안이한 정신 자세로는 화두를 받아야 소용이 없다"면서, "사람 몸을 받은 금생(今生)에 수행 정진하여 생사윤회를 해결하겠다는 대신심(大信心)으로 굳은 각오가 되었을 때 선지식 스님을 찾아가서 화두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화두 드는 법

화두는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다.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은 좌선시, 평상시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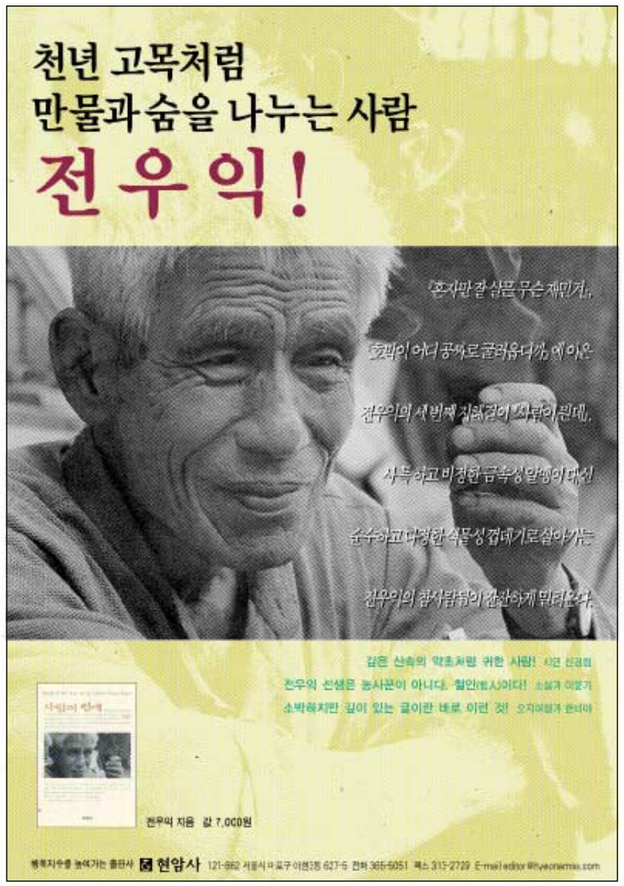
"앉아서 참선할 때에는 화두는 전방 1.5 내지 2m 아래에 두고 의심을 끊어지지 않게 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 되면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일을 하나, 다른 이와 대화를 할 때도 화두를 놓지 않고 눈 앞에서 생생하게 화두의 의심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좌선 끝내는 법

집단으로 좌선하는 선방에서는 끝내는 신호에 따르기만 하면 되지만 혼자서 좌선하고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옛 선사들은 "좌선이 끝나 일어설 때에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 후에 편안히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서서는 안된다. 좌선에서 일어난 뒤에는 어느 때나 항상 좌선의 방법에 의해 선정(禪定)의 힘을 보호하고 유지하기를 어린애를 돌보듯 하라"고 했다.

화두 참구시 주의할 점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는 '조주 무자'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열가지 병통(十種病)을 말하고 있다. △유(有)와 무(無)의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진무(眞無)의 무(無)로 생각지도 말고 △도리(道理)로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며 △의근하(意根下)를 향해서 사량하고 계교하지도 말며 △눈썹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는 데서 캐내려고 하지도 말며 △어로상(語路上)에서 활계(活計)를 짓지도 말며 △일 없는 갑옷 속에 드날려 있지도 말며 △화두를 들어 일으킨 곳을 향하여 알려 하지 말며 △문자로써 이끌어 증명하지 말며 △어리석음을 가져다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라.



마음의 목소리, 마음의 귀로 들어야

좌선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삼매에 드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자세는 명상과 정신집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자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부좌를 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번뇌나 망상 속에 헤매거나 주위의 경계나 사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자신의 본래면목을 되찾는 훈련이다.

수식관(數息觀)

수식관(數息觀)은 좌선을 하고 있는 자기의 호흡을 하나 하나 세는 명상법인데, 호흡을 세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자기의 호흡을 하나에서 열까지 혹은 스물까지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시켜 세어보는 것이다.

호흡은 한 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것을 하나로 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혹은 스물까지 틀리지 않고 세었다면 다시 열이나 스물에서 거꾸로 세어 내려온다.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 숫자를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수식관은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하~나' 하고 단전에 완전히 들여보내고 잠시 단전에 머물게 한 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두~울'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며 세어보는 방법이다. 절대로 자기 체질로 무리하지 말고 체질과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세어본다.

이 방법이 초보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잡념이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호흡과 일치되어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반복하여 자신의 호흡을 마음으로 관찰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세고 있는 마음의 목소리를 마음의 귀로 또렷하게 듣고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자 공안의 참구법

공안(公案)은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하는 좌선 수행의 방편으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기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하자, 조주스님은 '무(無)'라고 말한 것이 무자공안의 전부이다.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조주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하는 의심을 묶어서 조주가 말한 '無'를 참구하는 것이다. 무자공안은 호흡을 천천히 들여 마시면서 '무…'라고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단전까지 호흡을 끌어 내리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무…'하고 마음으로 묵소리로 낸다. 이렇게 호흡을 반복하며 참구하는 수행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식관과 마찬가지로 '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마음의 귀로 또렷하게 듣고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일체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라는 의심을 묶어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무…'라고 참구한다. 공안을 일념으로 참구할 때, 자기와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지혜로써 불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본 스님

망념 일어날 때 즉시 자각하면 곧 사라져

명념과 혼침의 극복

좌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 이것을 '마구니의 장애'라고 해서 '선병'이라고 한다. 마장에 대해서는 <대승기신론>< 능엄경> <천태지관> 등에서 50종류로 설하고 있다.

좌선 중에 여래, 제석천, 비구니, 부인 등의 모습을 나투어 열반과 깨달음을 얻어서 신통변화 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두 망념(妄念)에서 생긴 환상이며 마구니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뿌리치고 수식관이나 공안 참구를 계속한다. 마구니의 경계에 이끌리면 시간만 낭비하고, 자칫 환상에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다.

<대승기신론>에는 수행자가 마구니의 장난에 떨어지는 것은 선근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좌선의>에도 '망념이 일어나면 곧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해야 한다. 망념이 일어난 줄 자각하게 되면 망념은 곧 없어진다'고 설하고 있다.

좌선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나 신통은 모두 번뇌, 망념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현혹되고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이 착각하는 망념인 줄 알지 못하면 그 번뇌, 망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육도 윤회에 빠져서 허덕이게 하는 것이다. 망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다시 수식관과 공안을 참구하여 본래심을 되찾으면 된다.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혼침(昏沈)에 빠지는 것을 '수마'에 떨어진다고 한다. 옛날 고승들은 혼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좌선하였다는 기록이 많다. 이것은 혼침에 빠지면 의식이 몽롱하여 정신없고 주인 없는 좌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훔쳐히 경계해야 한다.

경책(警策)

좌선 중에 졸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않거나 자세가 흩어지면 경책을 한다. 이것은 장군죽비로 수행자의 어깨를 때려 망념과 수마를 내쫓는 것을 말한다. 경책은 본인이 원하여 받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졸음이나 망념에 떨어진 사람, 자세가 나쁜 사람을 좋은 자세로 고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

경책을 할 때는 담당자가 경책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어깨 위에 죽비를 가볍게 올려놓고 지그시 누르면서 경책할 것을 알린다. 그러면 경책받을 사람은 졸음에서 깨어나거나 긴장된 몸을 재정리하여 합장하고 머리를 왼쪽으로 가볍게 기울이며 오른쪽 어깨로 경책을 받도록 한다. 경책을 받은 다음에도 합장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경책 담당자도 합장하여 답례한다.

포행

포행은 다리가 잘 저리고 졸음이 와서 좌선을 할 수 없을 때 조용히 가볍게 걸어 다니는 수행이다. 따라서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조용하고 위엄 있게 걸어가면서 선정을 닦는 것이다. 한번의 호흡에 서너 발자국씩 걷도록 하며 보폭도 자기 발길의 반쯤씩 짧게 하여 앞으로 천천히 전신을 흔들며 2~3분 정도 걷도록 한다. 시선은 앞으로 가볍게 떨군다. 포행을 마치는 죽비가 울리면 보통 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합장하고 좌선방석을 정돈하다. 선방을 나올 때는 오른발부터 나오도록 한다.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하여 다리와 전신을 가볍게 신진대사 시킨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본지 논설위원

